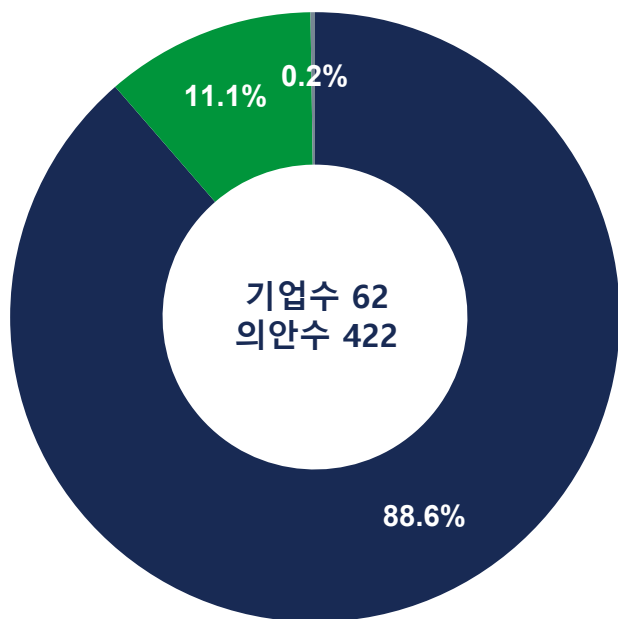


## 2024-2025 의결권 행사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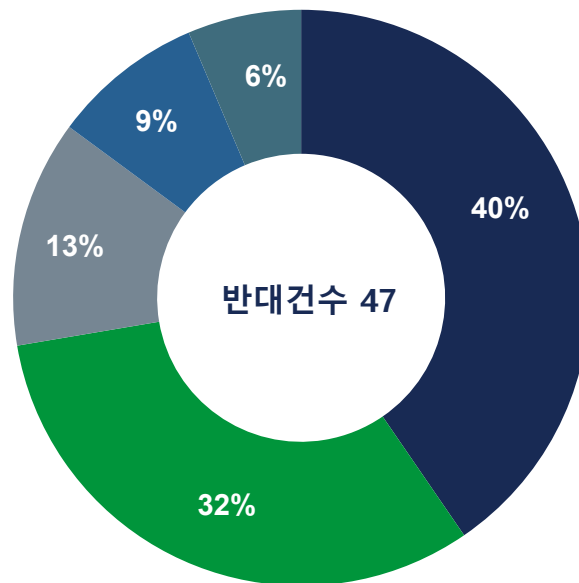
- 2024~2025년 베어링자산운용은 62개 기업, 422건 의안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찬성 374건(88.6%), 반대 47건(11.1%), 중립·기권 1건(0.3%)이었습니다.
- 반대는 이사 선·해임, 임원보수, 감사위원 선임, 결산·배당, 정관변경에서 주로 발생했습니다.

2024-2025 주주총회 의안 행사 비율



■ 찬성 ■ 반대 ■ 중립/기권

2024-2025 주주총회 의결권 반대 행사 비율



■ 이사의 선/해임 ■ 임원보수 ■ 감사(위원)의 선/해임  
■ 결산 및 배당 ■ 정관변경

시장구분	의결권 대상법인	주주총회일자	의안유형	의안명	관계	보유주식수 (주)	자본비율 (%)	찬성주식수	반대주식수	불행사 주식수	중립행사 주식수	행사 및 불행사 사유
코스닥	성광벤드	20240913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사업목적 추가, 사업목적 변경, 사업목적 삭제)	기타	396,539	1.4	396,539				신규사업인 태양광 발전을 시작하기 위한 사업목적 추가이며 경쟁사들에 비해 준비비중이 높았으므로 사업다각화가 부정적이지 않음. 회사가 현 금성자산 활용 계획에서 주주환원을 우선으로 한다고 확인함에 따라 자본지출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리스크가 크다고 볼 수 없음. 찬성의 건.
코스닥	티씨케이	2024100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선임의 건 -사내이사 오장민 선임의 건(신규선임)	기타	60,040	0.5142	60,040				- 사내이사 오장민 선임의 건 - 사내이사 후보 오장민은 삼성전자, 삼성전자재팬 근무 (2004~2020) - 삼성전자재팬 대표이사를 역임(2020~2023) - 이후 삼성전자 자문역으로 활동(2023~) - 위의 경력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 대표이사 경험으로 전반적인 경영상 의사결정을 통한 회사발전 적임자로 판단하였다는 회사의 건 동의 - 현재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인 상황에서 사내이사가 주가된다하더라도 사외이사 비율 25%로 독립성 이슈 없음 - 결의안은 의결 - 경영사유 없음
거래소	한일시멘트	20241112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임영문)	기타	295,396	0.4264	295,396				임영문 사외이사 후보는 SK건설에서 재무지휘부부장, CFO 등을 역임하면서 재무, 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 회사는 임영문 후보를 감사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며 후보는 한일시멘트 사내 임직원이지 아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활동하기에도 독립성이 위태되지 않아 사외 이사로서 결격 사유 없음
거래소	현대건설	20250103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한우)	기타	118,643	0.1065	118,643				이한우 사내이사 후보는 현대건설에서 30년동안 근무한 건설 전문가. 후보는 주택사업본부장, 전략기획사업부장 등을 역임하면서 현장 경험과 전략 기획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함. 현대건설은 전체 이사회구성원 7인 중 사외이사가 4인으로 이사회 구성원 중 사외이사 비중이 절반 이상임. 이한우 사내이사 선임이 되어도 이사회 중 1/2이 사외이사임으로 사외이사 비중 조건을 만족함
거래소	기아	20250314	결산 및 배당	제81기(2024.1.1 ~ 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295,750	0.074	295,750				찬성의견, '24년 DPS는 6,500원으로 '23년 DPS 5,600원 대비 증가. '24년 배당성향 26% 수준으로 '23년 배당성향 25% 대비 소폭 개선되었고 등락에 기반한 DPS 설정 보여줌(감사 보고서 제출 전)
거래소	기아	20250314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 (사업목적 '부동산 개발업' 추가)	기타	295,750	0.074	295,750				찬성의견, '부동산 개발업이 사업목적으로 추가되는 이유는 인증중고차 시장 확장을 위한 것. 앞서 현대자동차도 '23년 3월 정기 주총을 앞두고 사업 목적에 부동산 개발업을 추가한 바 있고, 기아의 경우 '23년 3월 정기 주총을 앞두고 사업 목적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추가한 바 있음. 현대차와 기아는 각 '23년 10월과 11월 인증 중고차 시장에 진출했음. 인증중고차 사업을 통해 기아의 중고차 가치가 시장 내에서 적정 가격에 평가됨은 브랜드 평판 관리와 함께 기업가치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바, 주주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
거래소	기아	2025031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선임의 건 (송호성)	기타	295,750	0.074	295,750				찬성의견, 송호성 사내이사 후보는 2020년부터 기아의 대표이사로서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음. 송 호부의 대표이사 부임 이전 2018~2019년 영업 이익은 약 1조원 이하 수준이었으나 부임 이후 영업이익이 2조원, 5조원 이상으로 성장하였으며 '24년 기준 영업이익은 12조원으로 확대됨. 재임 기간동안 기업의 실적 개선과 함께 주주환원 역시 이에 부합하며 확대되어 왔음. 이력 검토시 결격 사유 없음
거래소	기아	2025031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정희선)	기타	295,750	0.074	295,750				찬성의견, 정희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2020년부터 기아 사내이사로서의 직위를 유지하고 있음. 2009년까지 기아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여 이후 현대자동차 부회장에서 약 10년간 재직하였으며 그룹사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그룹사의 글로벌 역량 및 레퍼런스 확대에 기여. 기아의 이사회 내 임직원 소속이며 동 기간 기아의 이사회 내 위원회 선임 관련 특이사항 없었음. 이력 검토시 결격 사유 없음
거래소	기아	2025031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승준)	기타	295,750	0.074	295,750				찬성의견, 김승준 후보의 경우 연임이 아닌 신규 선임의 건 기아의 재무 전문가. 기아의 실적 개선이 반영되어 2020년 기아 경영분석팀장으로 부임, 2021년부터 재무관리 실장으로 재직, 2024년부터 재경본부장으로 재직하며 기아의 주주환원 확대에 관한 소통이 있음. 이력 검토시 결격 사유 없음
거래소	기아	2025031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선임의 건 (신현정)	기타	295,750	0.074	295,750				찬성의견, 사외이사 연임의 건으로 지닌 이사회 임기 내 이사회 내 경영위, 임주위, 보수위 활동을 하였음. 개인 이력은 기업에 공학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쌓아오고 있는 만큼 향후 기아가 미래 모빌리티 전력을 기획하는 데 있어 이에 필요한 경영 방향성과 이에 적합한 이사회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함. 이력 검토시 결격 사유 없음
거래소	기아	20250314	임원 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295,750	0.074	295,750				찬성의견, 기아의 이사 보수 한도는 지난 '23년 3월 정기 주총 당시 직전년도 한도 100억원(실 지급액 50억원)에서 80억원으로 한도 축소된 바 있음. '22년 지배주주순이익이 약 4.8조원 수준이었던 당시 대비 '24년 지배주주순이익은 9.8조원 수준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만큼 이사 보수 한도 상향폭은 적정 수준 이내. 동기간 주주환원 규모(자사주 매입 및 소각+ 현금 배당)도 약 2.7배 수준으로 확대된 만큼 주주환원 정책 개선이 반영되었음.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의결 건 찬성 의견
거래소	삼성물산	20250314	결산 및 배당	제61기(2024.1.1 ~ 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147,557	0.083	147,557				찬성의견, 감사보고서 제출 확인 (2/27) 제 61기 주당 배당금 : 2,600원으로 전년도 2,550원 대비 증가 (24년도 수이익 2,77조원으로 전년도 2,72조 대비 소폭 증가함에 따라 주당 배당금도 확대. 배당성향은 30.1% 수준으로 약음)
거래소	삼성물산	20250314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목적사업 정비의 건	기타	147,557	0.083	147,557				찬성의견, 미영위 목적사업인 수의업 삭제, 신사업 추진에 따라 의학품 등의 연구개발 지원, 수탁사업 및 관련 서비스업, 통신반도체개발, 수소 발전 및 관련 부대사업을 추가하였음
거래소	삼성물산	20250314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이사회 및 위원회 관련 정관 정비의 건	기타	147,557	0.083	147,557				찬성의견, 이사회 위원회 중 내부거래위원회의 명칭을 ESG위원회로 수정. 이사회 소집 절차에서 의장이 회의를 정하여 각 의사에게 통고하는 시점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서 적어도 7일 전으로 변경.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24시간전으로 단속 가능하도록 함. 회일 통고 일정을 앞당김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더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개선이라고 판단
거래소	삼성물산	20250314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기타 법령 등에 따른 정관 정비의 건	기타	147,557	0.083	147,557				찬성의견, 상법개정을 반영하여 정관 정비, 신주의 배당기산일과 관련 기존에는 배당기산일이 반드시 사업연도 말이어야 했으나, 이를 삭제하여 배당기산일을 자유롭게 설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배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된 동종 주식에 대해 발행일과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공정거래법 개정을 반영하여 법령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함. 전자증권법 개정을 반영하여 주주명부 작성 및 비치하는 항목을 신설
거래소	삼성물산	20250314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부칙 - 정관개정에 따른 시행일)	기타	147,557	0.083	147,557				찬성의견, 정관개정에 따른 시행일 부칙 명시
거래소	삼성물산	20250314	임원 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147,557	0.083	147,557				찬성의견, 이사 보수 최고한도액이 전년도 200억원이었으나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82억원(연당 평균 9.1억원)이었음. 연당 평균 보수금액이 업종 평균대비 높은 수준이나, 동사의 주주환원정책이 개선되는데 이사회가 기여하고 있고, 전년대비 10% 감액한 수준으로 재연된 점을 감안하여 찬성의견
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20250314	결산 및 배당	제14기(2024.1.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8,624	0.012	8,624				찬성의견, 주주이익에 침해되는 사항 없음. 감사보고서 제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배당을 지급하지 않으나 동사는 향후 본업인 항체CDMO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capex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22년에 향후 3개년의 FCF의 10%를 배당하는 부분을 검토하였다 발표하여 25년에는 배당부분에 대한 회사측의 코멘트가 있을 것으로 전망
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20250314	정관변경	정관변경의 건 (ESG위원회 설치)	기타	8,624	0.012	8,624				찬성의견, 주주이익에 침해되는 사항 없음. 이사회 산하 설치가능한 위원회에 ESG위원회를 추가하고,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과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정한 부분은 주주까지 제고에 공칭적으로 판단
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2025031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유승호 선임의 건 (신규선임)	기타	8,624	0.012	8,624				찬성의견, 결격사유 없음. 재무/행정 전문가로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경영활동 및 내부통제 기능을 감속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2025031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이호승 선임의 건 (신규선임)	기타	8,624	0.012	8,624				찬성의견, 결격사유 없음.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한화손해보험의 감사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기업의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
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2025031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창우 선임의 건 (재선임)	기타	8,624	0.012	-	8,624			반대의견, 해당 후보자는 22년 이사회회법였으나 당시 전 CEO와 CFO가 18년 회계부정사건으로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이들이 이사회직함을 유지하는 점을 방관하였으므로 반대
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20250314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 이호승 선임의 건 (신규선임)	기타	8,624	0.012	8,624				찬성의견, 결격사유 없음.다양한 공직활동에서 경험은 이사회의 독립성과 경영투명성을 높이고 조직 내 감사체계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
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20250314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8,624	0.012	-	8,624			찬성의견, 증가하는 이사보수한도가 업계평균대비 과도하다고 판단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사한도를 증액
거래소	삼성증권	20250314	결산 및 배당	제43기(2024.1.1 ~ 2024.12.31)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안) 승인의 건	기타	432,970	0.485	432,970				찬성의견, 202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1조20558억 원, 순이익 8990억 원, 실적 기록 (각각 YoY 62.7%, 64.2% 증가). 이에 따라 2021년 이후 3년 만에 영업이익 1조 회복. 주요요인은 주요 금융환경 개선 및 해외주식 위탁매매수 증가 (2,042억) 등에 따른 브로커리지 실적 호조 실적 증가에 따라, 24년 DPS는 3,500원으로 전기 2,200원 대비 큰폭 증가. 배당수익률도 5.42%에서 7.29%로 확대 (배당성향은 34%대 유지). 이 임종가거 주주환원으로 이어짐. 결격사유 없음
거래소	삼성증권	20250314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이사회 및 위원회 관련 정관 정비	기타	432,970	0.485	432,970				찬성의견,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조문 신설 및 지배구조법 개정사항 반영 (절차적 정비 강화, 각종 위원회 관련 세부조항 신설 등). 전법적인 이사회 운영방안 강화 및 관련법을 따르기위한 단순 개정
거래소	삼성증권	20250314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기타 법령 개정 및 표준정관에 따른 정관 정비	기타	432,970	0.485	432,970				찬성의견, 전자증권법 도입에 따른 단순 정관 정비 및 상정법 표준정관 문구 준용을 통한 단순 정관 정비
거래소	삼성증권	2025031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선임 - 김화진	기타	432,970	0.485	432,970				찬성의견, 후보자의 결격사유 없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력과 전문지식 보유했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후보자는 한국ESG기준설 의결권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연금 지배구조개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금융 관련 법 권위자로서 법/제도 등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 금융규제 관련 자문 및 ESG활동 강화에 기여할것으로 기대

거래소	삼성증권	2025031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선임 - 박경희	기타	432,970	0.485	432,970		전성익건, 후보자의 결격사유 없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경력과 전문지식 보유했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후보자는 삼성증권 내부에서 오랜기간 리테일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사내이사직 수행에 필요한 금융산업 및 리테일 사업 관련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거래소	삼성증권	2025031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선임 - 고영동	기타	432,970	0.485	432,970		전성익건, 후보자의 결격사유 없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경력과 전문지식 보유했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후보자는 삼성증권에서 경영지원실장으로 회사 업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산업에 대한 전문성도 겸비하고 있음.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성장에 지속 기여할 수 있을 것
거래소	삼성증권	20250314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김화진	기타	432,970	0.485	432,970		전성익건, 후보자의 결격사유 없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경력과 전문지식 보유했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후보자는 한국ESG기준원 의결권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연금 지배구조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금융 관련 법 권위자로서 법/제도 등 현안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
거래소	삼성증권	2025031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최혜리	기타	432,970	0.485	432,970		금융 관련 법, 회계, 권위자로서 ESG 및 지배구조 관련 기여 및 감사위원회 선임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전성익건, 후보자의 결격사유 없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경력과 전문지식 보유했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후보자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법률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법조계 및 공공기관 등에서 활동하며, 풍부한 이력을 쌓아왔음. 특히 법률 지식과 공공기관 위원회 참여 경험 등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회의 법적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진 대상 심도깊은 조언을 통해 안정적인 감사활동에 기여할것으로 보임
거래소	한솔케미칼	20250318	결산 및 배당	제 45기(2024.1.1 ~ 2024. 12. 31) 연결/별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75,042	0.662	75,042		전성익건, 이사의 보수한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 실 지급액은 업계 평균 (5억대) 대비 8억으로 소폭 높은 수준이나, 동사 실적, 선제중동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이 없는 수준의 보수한도로 판단되므로 찬성 전성익건, 24년 DPS는 2,100원으로 23년 DPS 2,100원과 동일. 24년도 실적이 23년과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동일한 DPS는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회사의 합리적이고 일관적인 정책을 보여주었다고 판단. 27만주의 자사주를 취득하면서 소각에 대한 부분은 결정된바 없으나, 지속적인 현금배당과 자사주취득은 긍정적 찬성의견.
거래소	한솔케미칼	2025031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선임의 건 (박원환)	기타	75,042	0.662	75,042		전성익건, 2011년부터 현재까지 대내이사 사장으로 재직중. 신사업발굴, 투자 의사결정을 통해 외형성장을 주도. 회사의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전성익건, 2016~2024년까지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재직하고, 25년 1월부터 정밀화학/전자소재영업본부장으로 지임 및 운영분야의 전문성을 갖추 있음.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가치 향상에 공헌할 것으로 판단
거래소	한솔케미칼	2025031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선임의 건 (박진원)	기타	75,042	0.662	75,042		전성익건, 후보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자정감사로 재직하고 현재는 변호사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법률전문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서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대변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거래소	한솔케미칼	2025031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김술)	기타	75,042	0.662	75,042		전성익건,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재직중으로 회계, 재무 전문가로 독립적인 관점에서 내부 통제 및 준법경영의 강화할 지식을 갖추었다고 판단.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위한 자문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
거래소	한솔케미칼	20250318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박진원)	기타	75,042	0.662	75,042		전성익건, 후보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 자정감사로 재직하고 현재는 변호사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법률전문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서 주주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대변하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거래소	한솔케미칼	20250318	임원보수	이사 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기타	75,042	0.662	-	75,042	반대의견, 제안된 이사보수한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시장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판단. 24년 지급된 보수는 한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평균을 상회하는 이사보수한도를 제안한 사유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반대의견 전성익건, 임직원들의 주주매수선택권제 제공은 회사의 경영과 인력의 효율성에 있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 주주선택권의 수가 8명의 총 123,400주로 일반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 회사의 희석효율이 금번 주주매수선택권을 포함하여 5% 미만이기 때문에 (3.4%) 찬성의견.
거래소	한솔케미칼	20250318	임원보수	임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기타	75,042	0.662	75,042		전성익건, 주주이익에 침해되는 사항 없음. 감사보고서 제출, 착년에 이어 올해도 배당을 1000원 지급하여 크지않은 수준이나 동사는 향후 법인 인 이차전지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capex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동사는 22년 3개년동안 1000원의 현금배당을 연급한 부분을 이행하고 있으며 FCF의 5-10%를 배당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capax투자 등으로 FCF가 여유로운 상황이라 아니라 판단
거래소	삼성SDI	20250319	결산 및 배당	제55기(2024.1.1 ~ 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41,164	0.06	41,164		전성익건, 제안된 이사보수한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시장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판단. 24년 지급된 보수는 한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평균을 상회하는 이사보수한도를 제안한 사유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반대의견 전성익건, 임직원들의 주주매수선택권제 제공은 회사의 경영과 인력의 효율성에 있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 주주선택권의 수가 8명의 총 123,400주로 일반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 회사의 희석효율이 금번 주주매수선택권을 포함하여 5% 미만이기 때문에 (3.4%) 찬성의견.
거래소	삼성SDI	2025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최준선 선임의 건	기타	41,164	0.06	41,164		전성익건, 주주이익에 침해되는 사항 없음. 감사보고서 제출, 착년에 이어 올해도 배당을 1000원 지급하여 크지않은 수준이나 동사는 향후 법인 인 이차전지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capex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 동사는 22년 3개년동안 1000원의 현금배당을 연급한 부분을 이행하고 있으며 FCF의 5-10%를 배당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 capax투자 등으로 FCF가 여유로운 상황이라 아니라 판단
거래소	삼성SDI	20250319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41,164	0.06	41,164		전성익건, 제안된 이사보수한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지만 시장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판단. 24년 지급된 보수는 한도에 미치지 못하지만, 평균을 상회하는 이사보수한도를 제안한 사유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반대의견 전성익건, 임직원들의 주주매수선택권제 제공은 회사의 경영과 인력의 효율성에 있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 주주선택권의 수가 8명의 총 123,400주로 일반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 회사의 희석효율이 금번 주주매수선택권을 포함하여 5% 미만이기 때문에 (3.4%) 찬성의견.
거래소	삼성SDI	20250319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전자증권 관련 조문 정비)	기타	41,164	0.06	41,164		전성익건, 주주이익에 침해되는 사항 없음. 해당 정관변경은 전자증권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주이익에 영향을 줄만한 요소가 미미한 내용이라 판단
거래소	삼성엑스디에스	20250319	결산 및 배당	제40기(2024.1.1 ~ 2024.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당)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131,152	0.17	-	131,152	반대의견, 24년 DPS는 2,900원으로 23년 DPS 2,700원 대비 증가. 동사는 일회성 비정상 손익을 제외하고 배당성향 30%를 산정해 집행하고 있음. 향후 3년 (25-27년)간 배당 정책또한 배당성향 30%에 입각하여 집행할 것으로 지난 1월 정책을 공시한 바 있음. 동사는 연결기준으로 5조원, 별도기준으로 2.7조원의 순현금 회사업. 연결로 분류되는 2.3조원의 순현금 또한 삼성SDS 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 100% 보유한 해외법인이 가지고 있음. 동사의 실질 순현금은 5조원이라고 볼 수 있음. 시가 총액의 54%에 달하는 동사의 순현금은 매년 규모가 증대하고 있으며, 동사의 ROE (자본 효율성)를 하락시키고 있음. 동사의 현금 흐름에 앞맞는 투자, M&A, 주주환원 계획이 시장에 공유될 필요가 있음. 동사가 제시한 30% 수준의 배당성향 (금액 기준으로는 2,243억원)은 동사 현금상황과 비교할 때, 현저히 부족한 수준임.
거래소	삼성엑스디에스	2025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이준희 선임의 건	기타	131,152	0.17	131,152		전성익건, 기존 사내이사였던 황성우, 구형준씨는 퇴임할 예정. 이준희 이사는 이를 대체하는 사내이사 후보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기술전력 팀장, 네트워크기업부 개발팀장, 전략 마케팅 팀장 등을 역임. 삼성SDS와 삼성전자가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와 AI 서비스 사업등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
거래소	삼성엑스디에스	2025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이호준 선임의 건	기타	131,152	0.17	131,152		전성익건, 기존 사내이사였던 황성우, 구형준씨는 퇴임할 예정. 이호준 이사는 이를 대체하는 사내이사 후보임. 글로벌 대표 SaaS 컨설팅 회사인, 액센츄어에서 IT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프로젝트 컨설팅을 리딩한 경험이 있음. 삼성SDS의 클라우드 사업 리딩과 신규사업 발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거래소	삼성엑스디에스	20250319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전자증권 관련 조문 정비)	기타	131,152	0.17	131,152		전사증권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고, 미시외 전자 없이 가능한 위판과 종류를 추가하였음. 주가인 이사회는 내부거래위원회, 보상위원회, ESG위원회,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등임.
거래소	삼성엑스디에스	20250319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기타	131,152	0.17	131,152		전자증권의 경우 권리 행사와 관련된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실시간 관리 할수 있고, 투명성, 효율성, 안정성 등을 높일 수 있음. 이사회 내 내부위원회 수의 증가는 전문성을 강화할수 있고, 특정분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의사결정과정에에서의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내부 위원회 수가 증가할 때가 아니라, 이사회 멤버의 수가 증가할 경우임. 동사는 현재 이사회 멤버 수는 현재 전년도 8명에서 올해 7명으로 감소한 액센츄어 사내이사 3명, 시오이씨 1명
거래소	삼성전기	20250319	결산 및 배당	제52기(2024.1.1 ~ 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68,034	0.091	68,034		전성익건, 이사회보수 한도액은 전년도와 동일. 사내 이사 2명이 퇴임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이사 수는 7명으로 감소. 이사 수가 1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한도 금액이 동일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실제 지급금액과 이사보수한도 간의 차이가 있는편이고, 동종기업과 비교시 동사의 이당 이사 보수한도가 높다고 볼수 없음. 전성익건, 2025년 2월 21일 감사보고서 제출 완료. 제 52기 보통주 주당 배당금은 1800원으로 제 51기와 비교하여 56.5% 증가하였음. 우선주를 포함한 배당금 총액도 56.4% 증가. 동기간 지배주주순이익이 60.6% 증가. 배당성향은 20% 수준을 유지함
거래소	삼성전기	2025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선임의 건 (장덕현)	기타	68,034	0.091	68,034		전성익건, 사내이사 후보 장덕현은 미국 University of Florida에서 전자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삼성전자 SLS사업부 LSI개발실장, SOC개발실장, Sensor사업팀장을 역임.부품 및 반도체 기술 분야 전문가. 삼성전기 본업인 MLCC 사업 특성상 반도체 사이클과 맞물려 수익 변동성이 확대될 수 밖에 없는만큼 전반 반도체 사업 관련 전문지식이 전문 경영인에게 요구되는 바, 후보 이력이 매우 적합한 것으로 여겨짐
거래소	삼성전기	2025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선임의 건 (김성진)	기타	68,034	0.091	68,034		전성익건, 김성진 후보는 7년 삼성전기 경영지원실장으로 부임 이후 판매대 사이클 하에서 재무 안정성 확보에 기여한 바 있기에 재선임 안전에 찬성의견
거래소	삼성전기	2025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윤정)	기타	68,034	0.091	68,034		전성익건, 이윤정 사외이사 후보는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환경 및 ESG 전문 변호사로,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회 위원 및 고문 변호사,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한국환경친화협회 회원을 역임하는 등 환경 및 ESG 규제 및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 2022년부터 삼성전기의 사외이사 겸 ESG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경영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과 위기 대응방안 감독 등을 통해 사외이사직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지난 3년간 이사회 및 위원회 참석률은 100%

거래소	삼성전기	20250319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68,034	0.091	68,034			전성건의, 이사 보수 총액 또는 한도액이 10억원 감소하는 안건으로 이사의 수가 유지되는 가운데 인당 한도는 감소하는 안건. 주주 이익에 반하는 내용 없음
거래소	삼성전기	20250319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전자증권 관련 조문 정비)	기타	68,034	0.091	68,034			전성건의, 전자증권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주주열부 작성에 대한 내용 구체화, 주주이익에 반하는 내용 없음
거래소	삼성전자	20250319	결산 및 배당	제56기(2024.1.1 ~ 2024.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4,286,505	0.072	4,286,505			전성건의, 24년 DPS는 1,446원으로 23년 DPS대비 2배 증가. 24년도 실적은 23년 실적대비 큰 폭 증가하였음. 현금배당뿐아니와 주식소각(약 3조 원, 5천만주)을 25년 2월발표하면서 추가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시행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 5년 평균 FCF 양수인점을 토대로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찬성의견
거래소	삼성전자	2025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김준성 선임의 건	기타	4,286,505	0.072	4,286,505			전성건의,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투자기금의 CIO로 싱가포르투자청 토털리턴전략그룹의 MD를 역임. 선전금융시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투자 업계 전문가. 22년 최초로 사외이사 선임되고, 글로벌 투자자 시각에 기반한 의견을 객관적으로 제시. 자사주매입을 포함, 주주환원, 주주지주 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 금융전문가로 경영에 대한 객관적 시각으로 감당하고 견제하는 사외이사 직책에 적임자로 판단
거래소	삼성전자	2025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허은병 선임의 건	기타	4,286,505	0.072	4,286,505			전성건의,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이며, 에너지자원, 환경, 기술경제, 정책분야 전문가. 22년 사외이사로서 선임되고 국내외 트렌드와 이해관계자들의 시각을 이사회에 적극고유하며 실질적 조언들을 제공. 반도체 부문의 제조경영력, 국제적 공급망 및 인트라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언. 24년부터 내부거래위원장을 맡아 건전하고 공정한 내부통제 수립에 기여. 환경, 기술경제분야 전문가로 사외이사 직책에 적임자로 판단
거래소	삼성전자	2025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유영희 선임의 건	기타	4,286,505	0.072	4,286,505			전성건의, 갤럭시사유없음. 국제통상 업무에 매진한 국제 통상전문가. 20년 WTO 사무총장 최종후보 2인에 오르는 실력과 신망을 인정받았음 있음. 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또한 미국 법학 박사학위와 뉴욕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법률가로서 회사의 준법경영과 재무정보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거래소	삼성전자	2025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이혁재 선임의 건	기타	4,286,505	0.072	4,286,505			전성건의,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및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동연구부장, 시스템반도체 산여전종택 센터장등 반도체 산업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보유. 24년부터 한국공학한림원의 반도체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학계를 대표한 재연활동을 지속. 삼성전자의 기술적 초격차, 리더십 복원에 적임자로 판단
거래소	삼성전자	2025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전영현 선임의 건	기타	4,286,505	0.072	4,286,505			전성건의, 24년부터 DS부문장으로 메모리개발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높은 지식을 보유. 17~22년 삼성SDI 대표이사로 재임하면서 경영성과를 창출. 산업에 대한 안목을 바탕으로 경쟁력있는 기술, 제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
거래소	삼성전자	2025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노태문 선임의 건	기타	4,286,505	0.072	4,286,505			전성건의, 갤럭시 S시리즈를 개발한 스마트폰 개발 전문가. 20년부터 MX사업부장으로 갤럭시 버즈, 워치등 생태계 확장에 노력. 지난 3년 사내이사로 주요 투자자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요청사항을 조율해왔다고 판단
거래소	삼성전자	2025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송재혁 선임의 건	기타	4,286,505	0.072	4,286,505			전성건의, 22년부터 후보자는 DS부문 CTO겸 반도체연구소장직을 수행중. 세계최초 V8 NAND 개발에 기여하였으며 기술리더십 확대를 공고히 하기위한 노력을 지속. 반도체 기술과 사업의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
거래소	삼성전자	20250319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4,286,505	0.072	4,286,505			전성건의, 이사회의 규모를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6명으로 기존 이사회 11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고, 보수한도를 430억원에서 360억원으로 감소시킨 채서, 24년 경영성과는 23년대비 큰 폭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보수한도는 과하지 않다고 판단
거래소	삼성전자	20250319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신재윤 선임의 건	기타	4,286,505	0.072	4,286,505			전성건의, 갤럭시사유없음. 재정경제부 및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정책, 금융, 재정 분야의 주요 보직을 거치며 거시경제 및 금융 전문가. 과거의 경력으로 국제규범 준수 및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감시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글로벌 리스크관리 관 조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회사경영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으로 판단.
거래소	삼성전자	20250319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유영희 선임의 건	기타	4,286,505	0.072	4,286,505			전성건의, 갤럭시사유없음. 국제통상 업무에 매진한 국제 통상전문가. 20년 WTO 사무총장 최종후보 2인에 오르는 실력과 신망을 인정받았음 있음. 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또한 미국 법학 박사학위와 뉴욕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법률가로서 회사의 준법경영과 재무정보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거래소	삼성화재해상보험	20250319	결산 및 배당	제75기(2024.1.1 ~ 12.31)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안) 승인의 건	기타	39,634	0.084	39,634			전성건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 5조 1,143억원이었던 매출액은 23.1% 증가하여 6조 2,973억원을 기록, 영업이익은 22.6% 상승하여 2,528억 기록. 이는 올해 신계약 판매호조에 따른 실적 개선 덕분. 실적호조에 해당사항 증가까지 더해지면서 24년 DPS는 19,000원으로 전기 16,000원 대비 큰폭 증가 (배당성향 전년도 37%에서 38%로 증가. 주주환원율은 6%에서 5%대로 비슷한 수준 유지). 이익증가가 주주환원으로 이어짐. 갤럭시사유 없음
거래소	삼성화재해상보험	20250319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안)의 건 - 이사회 및 위원회 관련 정관 정비	기타	39,634	0.084	39,634			전성건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의 양성평등 조문 신설 및 지배구조별 개칭사항 반영 (절차적 정비 강화, 각종 위원회 관련 세부조항 신설 등). 전 버전인 이사회 운영방안 강화 및 관련법을 따르기위한 단순 개칭
거래소	삼성화재해상보험	20250319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안)의 건 - 기타 법령 개정 및 표준정관에 따른 정관 정비	기타	39,634	0.084	39,634			전성건의, 전자증권법 도입에 따른 단순 정관 정비 및 상장형 표준정관 문구 준용을 통한 단순 정비 (사채 발행, 주주명부 작성 및 비치 근거 마련)
거래소	삼성화재해상보험	2025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선임의 건 - 박성연(임기 3년)	기타	39,634	0.084	39,634			전성건의, 후보자의 결격사유 없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경력과 전문지식 보유했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후보자는 경영학과 교수로 다년간 재임하면서 다수의 마케팅 논문 작성 및 여러 정부 요직을 역임한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 또한 금융위 위원, 현대상사 사외이사, 그리고 지난 3년간 삼성화재의 사외이사로서 오랜기간 금융보험업에 몸담으며, 해당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보험 및 마케팅 전문가로서 삼성화재의 경영상황은 물론, 미션과 비전에 대해 충분한 이해
거래소	삼성화재해상보험	2025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선임의 건 - 구영민(임기 3년)	기타	39,634	0.084	39,634			전성건의, 후보자의 결격사유 없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경력과 전문지식 보유했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후보자는 삼성화재 내부에서 오랜기간 경영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사내이사직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됨. 자동차보험 부문장 재임시 모빌리티산업의 진출과, 여러 금융회사를 주도한 이해 등으로 볼때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거래소	삼성화재해상보험	20250319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박성연(임기 3년)	기타	39,634	0.084	39,634			전성건의, 후보자는 경영학과 교수로 다년간 재임하면서 다수의 마케팅 논문 작성 및 여러 정부 요직을 역임한 마케팅 분야의 전문가. 또한 금융위 위원, 현대상사 사외이사, 그리고 지난 3년간 삼성화재의 사외이사로서 오랜기간 금융보험업에 몸담으며, 해당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보험 및 마케팅 전문가로서 삼성화재의 경영상황은 물론, 미션과 비전에 대해 충분한 이해
거래소	삼성화재해상보험	20250319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39,634	0.084	39,634			후보자는 우체국공직제단, 아톰다재재단 이사 등을 역임하는 등 높은 수준의 사회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갖추고 있으며, 실제 지난 3년간 감사위원회 100% 참석률 및 중요 감사의견을 충실히 해냈음. 전문성, 책임감, 윤리 의식 등을 고려한 윤리위원회 구성에 적임하다고 사료됨
거래소	제일기획	20250319	결산 및 배당	제52기(2024.1.1 ~ 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 예정 : 보통주 1주당 1,230원	기타	951,734	0.827	951,734			전성건의, 이사의 보수한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 실 지급액은 업계 평균 (3억대) 대비 5억으로 소폭 높은 수준이나, 동사 매출액, 업계 1위 점유율 및 영업이익 등을 고려할 때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이 없는 수준의 보수한도로 판단되므로 찬성
거래소	제일기획	20250319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전자증권 관련 조문 변경)	기타	951,734	0.827	951,734			전성건의, 제 52기 감사 전 연결/별도 재무제표 제출 3월 11일 감사보고서 제출 예정 제 52기 주당 배당금 : 1,230원으로 적절 * 전년 DPS 1,110원 (실적 성장에 맞게 DPS 상승했고 배당성향 60%를 전년대와 동일하게 유지하였음)
거래소	제일기획	2025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장병한 선임의 건(중임)	기타	951,734	0.827	951,734			전성건의, 전자증권 제도 도입에 따른 권리주주 확정 주주명부 패쇄 절차 불필요하여 관련 조문을 변경했고,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소집통지 시점을 24시간 이내에서 7일로 연장(긴급한 사정 제외)하는 정관개정으로 한국ESG기준원의 모범기준을 반영해 주주까지 제고 목적에 부합
거래소	제일기획	2025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기타	951,734	0.827	951,734			전성건의, 장병한 사외이사 임기만으로 재선임하는 전이며, 2022년부터 제일기획 사외이사로서 재직하면서 이사회에 100% 참석해 성실히 임했음. 기획예산처 장관과 3선 국회의원을 지낸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제일기획 이사회에 건실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거래소	제일기획	20250319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951,734	0.827	951,734			전성건의, 2025년 이사보수한도가 전년 95억 95억 대비 감소했으며, 2024년 실적금액 역시 2023년 66.5억원 대비 감소한 48억원을 기록했음. 동사는 사내이사의 보상정책에 대해서 목표인센티브, 성과인센티브, 장기성과인센티브로 세분화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2020~2022년 ROE 27%, 세전이익률 20%, 추가상승률 3%, 달성에 따라 2023~2025년 장기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음.
거래소	제일기획	20250319	임원보수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951,734	0.827	951,734			전성건의, 동사는 상법 제542조 10-1항에 따라서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법안에 해당하지 않기에 주중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상근감사 1인을 선임하고 있음. 2024년 재선임된 이홍성 상근감사는 회계법인 경력 20년 이상의 공인회계사로서 감사 업무에 필요한 역량이 있고 2024년 이사회 참석률 100%로 이사회 감시와 결재라는 많은 역할에 충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 보수 기준으로 판단됨
거래소	현대모비스	20250319	결산 및 배당	제4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승인의 건(2024년 1월 1일~ 12월 31일)	기타	138,242	0.149	138,242			전성건의, 주주총회 소집 공고 목적별 기재 사항에 재무제표 공표 하였으며 2025년 3월 5일 감사의견 적정인 감사보고서 제출 완료. 외부감사인 이 감사총회 후 당해법인에 제출하는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는 당해법인의 주주총회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된 재무제표가 아니므로 동 승인과 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는점 참조

거레소	현대모비스	20250319	결산 및 배당	이혁명여금처분개산서 승인의 건 - 결산배당금(1주당) : 보통주 5,000원, 우선주 5,050원(예정) ※ 기지급한 분기배당(1주당 1,000원) 포함하여 연간 보통주 6,000원, 우선주 6,050원 지급	기타	138,242	0.149	138,242			찬성의견 결산배당금(1주당) 보통주 5,000원, 우선주 5,050원 (예정)로 기지급한 분기배당(1주당 1,000원) 포함하여 연간 보통주 6,000원, 우선주 6,050원 지급 예정됨. 이는 적전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연간 배당금이 보통주, 우선주 각 500원 증가한 것. 동기간 지배주주이익은 18.5% 증가한 반면, 연간 배당지급액은 32.8% 증가하였음을 감안하면 주주환원 규모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됨
거레소	현대모비스	2025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부칙(2025.3.20) - 개정 정관 시행일)	기타	138,242	0.149	138,242			찬성의견. 2022년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위원회에 100% 출석하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모두 참여함. 법률 및 거버넌스 전문가로서 회사의 이사회 중심 경영 및 거버넌스 선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 가능. 후보 자체의 결격 사유 없으며 재선임 건으로 찬성 의견
거레소	현대모비스	2025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규석)	기타	138,242	0.149	138,242			찬성의견. 이규석 사내이사 후보자는 현대자동차가 구매부장을 역임하는 등 공급망 관리(SCM)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모비스에 부임 이후 수익성 사전관리 프로세스 도입, 수익성이 낮아진 모비스의 모듈 사업부분의 점진적 수익성 개선을 이끌고 있음. 후보 자체의 결격 사유 없으며 재선임 건으로 찬성 의견
거레소	현대모비스	20250319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선임의 건(조윤덕)	기타	138,242	0.149	-	138,242		반대의견. 후보 자체의 결격 사유는 없으나, 지난해 사외이사로 선출된 Keith Witek의 이력(Tenstorrent COO)을 감안 시 충분한 독립성을 확보한 사외이사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ISS의 입장임. 때문에 Keith Witek이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사회 신규 선임 후보인 조윤덕 사내이사 선임에 찬성할 경우 현대모비스의 이사회 내 실질적인 사외이사 과반확보가 어려울 것인한 판단 하에 신규 사내이사 후보인 조윤덕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 제시, 다른 후보들에 대해 동일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경우 정상적인 이사회 운영이 어렵고 사외이사 비중이 상법상 기준을 미달하게 되므로 조윤덕 후보에 대해서만 별도의 반대 의견 제시하며 이에 동의함. BAM&D 아래와 같이 Keith Witek 선임에 반대한 바 있으며 이에 제3-3 안건에 대하여 동일하게 반대 의견 제시  ** 지난 Keith Witek 선임 관련 BAMK의 반대 사유.  Tenstorrent는 현대자동차와 기아로부터 5천만 달러를 투자를 받은 사실이 있음. 현대모비스의 직접 투자는 없었으나, 그룹사 내 R&D와 CAPEX 의사 결정에 있 현대차/기아의 투자에 현대모비스가 함께 투자를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그룹사간 투자금액 배분 방식에 대해서 주주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그룹사 내에서 현대모비스의 지위/독립성 여부에 대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현대차/기아와
거레소	현대모비스	20250319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김화찬)	기타	138,242	0.149	138,242			찬성의견. 2022년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100% 출석하여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모두 참여함. 법률 및 거버넌스 전문가로서 회사의 이사회 중심 경영 및 거버넌스 선진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언 가능. 후보 자체의 결격 사유 없으며 재선임 건으로 찬성 의견
거레소	현대모비스	20250319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138,242	0.149	138,242			찬성의견. 지난 13년간 통결되었던 보수한도는 그 동안의 물가 상승 및 경영성과 개선 등을 감안하여 20억원 증액됨. '24년 경영성과 가 약 18% 가량 개선되었고 동기간 이사회에게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은 전기 대비 5% 증가, 적정 범위 수준임
거레소	현대모비스	20250319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분기배당 기준일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 반영)	기타	138,242	0.149	138,242			찬성의견. 주주의 배당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분기배당 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 12(2025.1.21. 시행)에 맞추어 문구를 수정한 것으로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없음
거레소	LG에너지솔루션	20250320	결산 및 배당	제5기(2024.1.1 ~ 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32,812	0.014	32,812			찬성의견. 주주이익에 침해되는 사항 없음. 감사보고서 제출,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배당을 지급한 것으로 당사는 향후 분업인 이차전지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인 capex 집행이 필요하다 판단. 당분간 늘어나는 고객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어짐에 따라 회사는 안정적인 잉여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향후 적절한 시기에 주주환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거레소	LG에너지솔루션	2025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기타비상무이사 관봉석 선임의 건	기타	32,812	0.014	32,812			찬성의견. 결격사유 없음. 후보자는 LG전자 미디어사업부장, 상용기획그룹장, HE사업부장 및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사업 구조 간선화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 운영 역량을 확보하였다고 판단하며, 현재 (주)LG COO로서 LG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을 수립 및 실행하여 계열사 간 시너지를 강화하고 그룹 전반의 기업가치를 높여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거레소	LG에너지솔루션	2025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이창실 선임의 건	기타	32,812	0.014	32,812			찬성의견. 결격사유 없음. 후보자는 LG전자에서 IR담당, 북미기획관리담당, 사업개발담당 등을 역임한 후, LG화학 전지사업본부 경영관리 총괄로서 재무 분야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회사의 CFO로서 회사의 IPO를 이끌어 낸 경력이 있어 전문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 경영관리 체계 확립과 주요 사화에 대한 책임자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거레소	LG에너지솔루션	20250320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32,812	0.014	32,812			찬성의견. 이사보수한도가 업계평균대비 높긴하지만 이사보수 실질금액에 대비하여 기존 이사보수한도가 높았던 부분을 현실화하여 한도를 낮추는 제안이므로 찬성 신안안 제57기 감사 전 연결/별도 재무제표 제출. 3월 12일 감사보고서 제출 예정. 제 57기 주당 총 배당금 : 10,000원으로 적절 (분기균등 2,500원) (배당성장률 69%, 전년도 45% 대비 상승. 절감합항 약화로 전년대비 당기순이익 절반 수준 줄었으나, 약속한 주주환원정책을 실행해 투자자들에게 신 뢰를 줄 수 있다고 있음).
거레소	POSCO홀딩스	20250320	결산 및 배당	제5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80,473	0.097	80,473			찬성의견. 사채 발행이 기존 이사회의 결의로만 가능했으나, 이사회가 사채의 금액과 종류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1년간 사채 발행을 위임할 수 있는 조항으로 변경. 포스코그룹의 경영 효율성 측면에서 해당 조항 변경은 자금조달에 대한 유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 사채의 종류와 금액, 기한을 이사회가 사전에 정하기 때문에 과도한 권한 위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해당 정관은 일반사채에 한하며, 주식수에 영향을 미치는 전한 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는 예외를 유지)
거레소	POSCO홀딩스	20250320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대표이사 회장 연임 후 재선임 시 주주총회의결정적속수 상황	기타	80,473	0.097	80,473			주주 관점에서 CEO의 연임 자격 검증등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관 변경, 대표이사 회장을 연임한 이후 다시 대표이사 회장 후보가 될 경우 '특별결의'로 의결기준을 상향하는 것. 2023년 12월 현직 회장의 연임 우선 심사제 폐지에 이어 연속적인 조치. 주주가지 상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됨
거레소	POSCO홀딩스	20250320	정관변경	정관 변경의 건 (기업시민헌장 전문 삭제)	기타	80,473	0.097	80,473			찬성의견. 2022년 3월 지주회사 출범과 함께 기업시민헌장 전문을 정관에 반영했으나, 경영이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감안해 전문에 두지 않은 일반 관례를 따라 조항을 삭제하는 것. 합리적 결정으로 보여짐
거레소	POSCO홀딩스	20250320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분기 배당기준일 변경	기타	80,473	0.097	80,473			찬성의견. 2024년 12월 자본시장법 제 165조의 12개정으로 분기 배당 절차의 개선이 가능해져 결산배당과 같이 배당금확정 후 배당기준일 방식으로 배당 절차 변경을 정관에 도입
거레소	POSCO홀딩스	2025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이주태 선임의 건	기타	80,473	0.097	80,473			찬성의견. 이주태 후보자는 포스코 경영전략실장(전무), 경영기획본부장(부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그룹 전반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아왔을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 차원의 사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거레소	POSCO홀딩스	2025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전성래 선임의 건	기타	80,473	0.097	80,473			찬성의견. 전성래 후보자는 열연마케팅실장(상무), 인도 법인장(전무) 등 절강 영업에서 핵심적인 전방 업무를 맡아오면서 역량을 갖춘 것으로 보여짐. 그룹의 핵심 사업인 절강산업에서 시장 전문가로서 경험으로 사내이사가 되면 그룹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거레소	POSCO홀딩스	2025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김기수 선임의 건	기타	80,473	0.097	80,473			찬성의견. 김기수 후보자는 포스코연구�프라그먼트(상무부), 엔지니어링솔루션실장(상무), 저탄소공정연구소장(전무), 기술연구원장(부사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그룹CTO를 겸임하고 있음. 수십년간의 절강 R&D 역량을 기반으로 사내이사가 되면 그룹의 기술 체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거레소	POSCO홀딩스	2025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유진태 선임의 건	기타	80,473	0.097	80,473			찬성의견. 유진태 후보자는 LG화학 고분자/신소재 연구소에서 35년간 근무한 연구자로서의 이력이 확실하며, 2022년부터 포스코홀딩스 사외이사로서 활동하면서 그룹의 핵심사업인 이차전지 분야에서 사업전략 방향을 제시해왔음. 사외이사로서 다시 이사회에 합류하면 그룹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됨
거레소	POSCO홀딩스	2025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손성규 선임의 건	기타	80,473	0.097	80,473			찬성의견. 손성규 후보자는 연세대 경영학(회계)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과거 한국거레소 공시위원장과 한국회계학회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음. 공시/회계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룹 경영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조인할 역할이 충분하기에 그룹의 성장과 주주 이익에 계속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거래소	이노션	20250320	결산 및 배당	제 20기 (2024.01.01~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570,474	1.426	570,474	전성의건. 제 20기 감사 전 연결/별도 재무제표 제출 3월 12일 감사보고서 제출 예정 제 20기 주당 배당금 : 중간 225원, 결산 950원으로 적절 (DPS는 전년과 동일하나, EPS 수족 감소로 배당성향 47%로 전년 46% 대비 상승)
거래소	이노션	2025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신승호 선임의 건	기타	570,474	1.426	570,474	전성의건. 후보자는 이노션에서 재경지원실장으로 역임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현대자동차 회계팀과 경영기획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재무/기획 전문가. 현대자동차 그룹 전반을 관할하는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이노션의 그룹내 위상에 대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거래소	이노션	20250320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570,474	1.426	-	570,474 2025년 이사보수한도 총액을 전년과 동일하게 유지했고, 2024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이 2023년과 비교했을 때 감소했을. 그러나 이사의 보수한도가 시장대비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며,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에 대하여 회사에서 제출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 적절한 이사의 보수 설정 방식에 대해 회사측에서 공표하기를 권유하며 해당 안건에 대해 반대의견
거래소	현대자동차	20250320	결산 및 배당	제57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89,466	0.043	89,466	전성의건. 2025년 3월 5일 감사보고서 제출 완료. 제 57기 보통주 기준 DPS는 분기/중간 배당 6000원, 결산 6000원을 집행하여 연간 총 DPS 12000원을 지급했음. 우선주를 포함한 연간 배당 총액은 3.15조원으로 전기 대비 5% 증가했으며 자기주식 소각을 포함한 총 주주환원 규모는 3.46조원으로 지배주주수익 대비 27.6%, 동기간 지배주주수익은 4.7% 증가했음을 감안하면 적정 규모의 주주환원이 있었음
거래소	현대자동차	20250320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사업목적 추가	기타	89,466	0.043	89,466	전성의건. 수조 관련 사업의 확장 가능성 고려한 사업목적 추가. '24년 6월 현대모비스의 수소자동차 부품사업을 이관받았으며 이에따라 현대차 그룹 내 분산되어 있던 수소 사업이 일원화 됨녀서 제품 개발 속도 기대. 향후 사용자 중심의 수소차 시장 개회사 수소 생태계 리더십 확보는 현대차 기업가치 증진에 (+)가 될 것으로 기대
거래소	현대자동차	20250320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분기배당 개선	기타	89,466	0.043	89,466	전성의건. 분기배당 기준일을 분기/반기말일로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함. 배당절차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25.1월)을 반영한 것으로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없음
거래소	현대자동차	20250320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부칙(2025.3.20) - 개정 절차 시행일	기타	89,466	0.043	89,466	개정된 정관의 시행일을 공표하는 목적으로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내용 없음
거래소	현대자동차	2025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선임의 건(김수이)	기타	89,466	0.043	89,466	전성의건. CPPIB(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에서 글로벌 PE부문의 대표를 역임. 금융분야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거래소	현대자동차	2025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선임의 건(도진병)	기타	89,466	0.043	89,466	전성의건. 필립에서 반도체 수석 부사장 및 글로벌 세일즈 총괄대표를 역임한 바 있음. 향후 현대차의 전통와 전략 추진 과정에서 반도체 밸류체인 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 지난 핀테크 기점으로 찾아 내 반도체 밸류체인 구축의 중요성이 대두된 바 있음. 도진병 후보의 관련 이력이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거래소	현대자동차	2025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선임의 건(Benjamin Tan)	기타	89,466	0.043	89,466	전성의건. 벤자민 탄 사외이사 후보자는 GIC, Wellington Management, Capital International 등 글로벌 금융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금융 전문성을 보유, 특히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도 높음. 후보자는 현대자동차 최초의 싱가포르 국적 사외이사로서 현대자동차 이사회의 국제 다양성을 제고하고, 사회문화적 편에 대해 객관적인 의견 을 제시하며, 회사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다양하고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이사회의 다양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거래소	현대자동차	2025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선임의 건(정희선)	기타	89,466	0.043	89,466	전성의건 2020년 현대차 그룹 회장 취임 이후 현대자동차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전략을 성공적으로 수립 및 추진 중. 총, 현재 상황에 대응하여 조직이 공장 운영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사업 권역별 최적화 전략을 수립하였고, GM 및 웨이모 등과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전략적 협력 기반을 구축.
거래소	현대자동차	2025032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선임의 건(진은숙)	기타	89,466	0.043	89,466	부임 이후 3개월 더워 추진기 주주화환을 마련 등 주주환원 관련 정책 구체화 되는 점 긍정적 전성의건. 진은숙 사내이사 후보자는 오랜 기간 IT산업에서 근무한 전문가로 데이터, 클라우드, SW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 이사회가 기술 관련 투자 의사결정시 더욱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주주와 회사 모두의 발전에 기여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
거래소	현대자동차	20250320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김수이)	기타	89,466	0.043	89,466	전성의건. CPPIB(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에서 글로벌 PE부문의 대표를 역임. 오랜 기간 금융부문 재직 이력을 보유. 오랜 기간 동안 연금금의 수익성을 관리하며 쌓아온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회사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의 회계와 입무를 철저히 감사할 수 있을 것
거래소	현대자동차	20250320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도진병)	기타	89,466	0.043	89,466	전성의건. 필립에서 반도체 수석 부사장 및 글로벌 세일즈 총괄대표를 역임한 바 있음. 향후 현대차의 SDV 전략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관련 밸류체인 구축 시 보다 실무적으로 합리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방향성 제시할 수 있는 이력 보유. 다양한 분야의 역할과 경험을 통해 회사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사의 업무를 철저히 감사하여, 궁극적으로 회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거래소	현대자동차	20250320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89,466	0.043	89,466	전성의건. 이사보수의 인당 한도액이 증가하였으나, 회사의 총 이익 규모도 증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한도액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 또한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의 경우 제 56기 지급액이 177억원이었었던 반면, 제57기 지급액은 168억원으로 감소
코스닥	하이룩코리아	20250321	결산 및 배당	제47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1주당 현금배당 1,150원	기타	273,986	2.228	273,986	전성의건. 1주당 현금 배당 1,150원으로 추가배당을 3.9%로 전년 대비 배당이 올랐음. 24년 11월의 주식소각에 이어 주주환원 확대되는 점 긍정적으로 평가
코스닥	하이룩코리아	2025032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문유진 선임의 건	기타	273,986	2.228	273,986	2013년 최대주주가 된 이래 세 번째 임기로 재선임되는 사내이사로서 부회장으로서 안정적인 경영을 해온 점 긍정적으로 평가. 반대사유 없음.
코스닥	하이룩코리아	2025032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문정환 선임의 건	기타	273,986	2.228	273,986	전성의건. 문 후보자는 1977년에 입사, 2016년에 분령온 전 회장에게서 분령온 부회장과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오랫동안 안정적인 경영을 통해 경영능력을 입증하였음. 최근 오너경영인으로써 오너 일가가 보유한 협동사와 하이룩단조에 내부거래 이익누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해당 업체 합병과 자사주 소각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이 있었고 이종 자사주 소각을 수락한 점 긍정적. 내부거래 이익누수에 대해서는 입증되지 전까지 사내이사로서의 자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것으로 판단됨
코스닥	하이룩코리아	20250321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273,986	2.228	-	273,986 반대의견. 주주에게 안건이 발의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회사의 책임이나 이사보수한도 상황에 대한 이유가 전혀 설명되지 않았음. 이사 보수한도가 아직 전년도의 이사보수한도에 다다르지 않은 점, 반대의견시 이사보수한도가 적어도 내려가지 않을 점을 감안할때 반대의견 제시를 통해 회사의 높은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음.
코스닥	하이룩코리아	20250321	임원보수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273,986	2.228	273,986	전성의건. 감사의 보수한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 실질금액은 2억 5천만원으로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나 업계 1위인 동사의 위치를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
거래소	DL이앤씨	20250324	결산 및 배당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301,107	0.778	301,107	202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2,709억원, 당기순이익 2,295억원을 달성하며 전년대비 YoY로 각각 -18%, 13% 성장함. 건설 업종의 둔화로 인해서 마진에 훼손되었지만 주택사업 부문의 완가율이 개선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익을 개선이 일어나고 있음. 24년 DPS는 540원으로 배당수익률 2.5%, 23년 DPS 500원 배당수익률 1.4%로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수준. 영업실적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배당금을 증가하여 주주환원을 하고자 함. 결격사유 없음.
거래소	DL이앤씨	20250324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감사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대한 상법 개정 반영 및 배당절차 간소화)	기타	301,107	0.778	301,107	정관 변경의 내용은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상법 개정 내용 반영과, 배당 절차 간소화를 위한 개정. 배당은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하면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공고해야한다는 것으로 주주들의 배당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서 주주친화적인 정책으로 보임. 결격사유 없음.
거래소	DL이앤씨	20250324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기타	301,107	0.778	301,107	금번 이사 보수한도액은 3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전기에 실제 지급 보수 총액은 13.7억원으로 40% 집행됨. 동종업계 유사회사의 보수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결격사유를 없다고 판단함.
거래소	DL이앤씨	2025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김성규 선임의 건	기타	301,107	0.778	301,107	김성규 후보는 DL이앤씨의 CFO를 24년부터 역임하고 있으며 과거 LF푸드의 CFO와 대표이사를 역임하여 재무, 회계 분야에서 다년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 회사의 재무 건전성 관리와 현금 유동성 파악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 전략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판단됨. 결격사유 없음.
거래소	DL이앤씨	2025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이정은 선임의 건	기타	301,107	0.778	301,107	이정은 후보는 DL 이앤씨의 COO, 최고 디지털 사업자로 DL이앤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있음. 주택사업 부문에 다년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함.
거래소	LG화학	20250324	결산 및 배당	제24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1주당 배당예정액: 보통주 1,000원, 우선주 1,050원)	기타	54,876	0.078	54,876	2025년 3월 7일 감사보고서 제출 완료. 제 24기 보통주 주당 배당금은 1,000원으로 제 23기와 비교하여 감소하였으나 어려운 시황으로 인해 순이익이 큰 폭 감소하고 배당가능이익이 산출되지 않은 연도였음에도 기입까지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차원에서 배당 결정
거래소	LG화학	20250324	정관변경	정관 변경의 건 - 배당절차 개선에 따른 정관 변경의 건	기타	54,876	0.078	54,876	이사회 결의에 따라 중간배당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과 이사회가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하는 조항을 추가.
거래소	LG화학	20250324	정관변경	정관 변경의 건 - 지점 등 설치에 관한 정관 변경의 건	기타	54,876	0.078	54,876	전반적으로 중간배당에 관한 배당 절차 개선이 목적. 주주이익에 반하는 내용 없음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반영한 정관 정비로 주주이익에 반하는 내용 없음

거레소	LG화학	2025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신학철 선임의 건	기타	54,876	0.078	54,876			신 후보는 세계적 기업인 3M 주식 부회장 출신의 전문 경영인으로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LG화학의 대표이사로 재직. 해당 기간 신성장정책 중 신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지속하고 R&D역량 강화 등을 통해 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한 바 있음. 다양한 화학 산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회사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회사 사업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이끌 수 있다는 판단 관 후보는 LG전자에서 다양한 사업부를 거쳐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동안 신사업 기획, 경영관리, 전략, 생산 등 '물류제언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최고 경영자로서의 경험을 축적. 2022년부터 LG화학 이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바 있으며 4년간 HLG부회장으로 재임, 그룹과 회사에 대해서도 이해도가 높아 성공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 조 후보는 과학기술정책과 미래 커바넌스 연구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로서 지난 3년간 LG화학의 사외이사로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 의사결정에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한 바 있음. 향후에도 회사에 대한 보다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자문 제공, 폭넓은 해외 네트워크 강화에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거레소	LG화학	2025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기타비상무이사 권봉석 선임의 건	기타	54,876	0.078	54,876			이 후보는 현재 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석유화학 공정 및 Sustainability 사업분야 전반에 대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지난 3년간 LG화학의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경영과 이사회 운영에 다양한 인사이트 제시한 바 있고 향후에도 장한 바 있고 향후에도 장한 바 있음. 이해도를 바탕으로 사업 발상성에 대한 자문 제공, 회사의 의사결정에 역할이 기대된다는 판단
거레소	LG화학	2025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조화순 선임의 건	기타	54,876	0.078	54,876			제3-3호의안에 기재한 이유로 조 후보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주의 이익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거레소	LG화학	20250324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조화순 선임의 건	기타	54,876	0.078	54,876			제3-4호의안에 기재한 이유로 이 후보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주의 이익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거레소	LG화학	20250324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이현주 선임의 건	기타	54,876	0.078	54,876			이사의 보수한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 실질금액은 6억으로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나 업계 1위인 동사의 위치를 감안할 때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고 24년 이미 어려운 경영환경에 따른 목표 미달성을 감안, 보수한도를 23년의 8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실제 집행율도 64%에서 53%로 감소) 축소한 바 있음
거레소	LG화학	20250324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54,876	0.078	54,876			전성익: 24년 매출액은 2,401억원(YoY 63%), 영업이익 373억원(YoY 폭락치전)을 기록하였음. Nand형 장비매출 비중이 높아 NAND 시황과 동일한 방향성을 보였던 업체. 24년부터 DRAM용 장비 매출이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실적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음. 25년 DRAM 장비매출 상승이 본격화되는 시기, NAND의 마이크로이전 선 수요, 선단공정투자자에 따른 기존장비 ASP 상승의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24년 DPS는 600원으로 23년 DPS 500원 대비 증가. 배당성향은 24.7%, DY 3.8%로 전년비 시가배당율도 상승. 23년도 영업적자에도 배당 실시하고 24년 실적에 호재전환됨에 따라 DPS 상승하면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소통을 시행하고 있음
거레소	LG화학	20250324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54,876	0.078	54,876			반대의견. 제안된 이사보수한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지만, 시장평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판단. 24년 지급된 보수는 한도에 미치지못하는 4,047백만원이지만, 평균을 상회하는 이사보수한도를 재확인 사유가 공개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반대의견.
거레소	LG화학	20250324	임원보수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217,064	1.098	217,064			전성익: 제안된 감사보수한도는 2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전기에 실제로 지급된 금액이 한도의 약 50% 수준인 103백만원이며, 감사 보수한도의 수준이 시장 평균과 대비하여 높지않다고 판단
거레소	테스	20250324	결산 및 배당	제23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건 * 현금 배당액 : 1주당 600원	기타	217,064	1.098	217,064			한성: 202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630억원, 당기순이익 430억원을 기록했으며 2023년 대비 YoY로 각각 -2.8%, -46% 역성장함.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소비 경기 둔화에 따른 의료 소비비 감소이며 대외적 환경의 변화가 영업실적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함. 회사는 영업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주까지 제고에 노력을 다하고 있음. 중장기 배당 정책을 설명. 750원의 최저 배당금을 설정함. 또한 24년과 25년 초 자사주 소각을 두 차례 진행했으며 2027년까지 총 22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예정. 2024년 DPS는 750원으로 2023년과 동일하며 24년 배당성향은 약 36%(23년19%) 로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주까지 제고를 위해서 배당금은 유지할 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주까지 환수를 취소하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서 결과 사용 없다고 사료됨
거레소	테스	20250324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217,064	1.098	217,064			한성: 202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630억원, 당기순이익 430억원을 기록했으며 2023년 대비 YoY로 각각 -2.8%, -46% 역성장함.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소비 경기 둔화에 따른 의료 소비비 감소이며 대외적 환경의 변화가 영업실적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함. 회사는 영업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주까지 제고에 노력을 다하고 있음. 중장기 배당 정책을 설명. 750원의 최저 배당금을 설정함. 또한 24년과 25년 초 자사주 소각을 두 차례 진행했으며 2027년까지 총 22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예정. 2024년 DPS는 750원으로 2023년과 동일하며 24년 배당성향은 약 36%(23년19%) 로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주까지 제고를 위해서 배당금은 유지할 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주까지 환수를 취소하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서 결과 사용 없다고 사료됨
거레소	한성	20250324	정관변경	제 3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311,441	1.331	311,441			한성: 202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630억원, 당기순이익 430억원을 기록했으며 2023년 대비 YoY로 각각 -2.8%, -46% 역성장함.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소비 경기 둔화에 따른 의료 소비비 감소이며 대외적 환경의 변화가 영업실적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함. 회사는 영업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주까지 제고에 노력을 다하고 있음. 중장기 배당 정책을 설명. 750원의 최저 배당금을 설정함. 또한 24년과 25년 초 자사주 소각을 두 차례 진행했으며 2027년까지 총 22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예정. 2024년 DPS는 750원으로 2023년과 동일하며 24년 배당성향은 약 36%(23년19%) 로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주까지 제고를 위해서 배당금은 유지할 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주까지 환수를 취소하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서 결과 사용 없다고 사료됨
거레소	한성	2025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김민덕 선임의 건	기타	311,441	1.331	311,441			한성: 202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630억원, 당기순이익 430억원을 기록했으며 2023년 대비 YoY로 각각 -2.8%, -46% 역성장함.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소비 경기 둔화에 따른 의료 소비비 감소이며 대외적 환경의 변화가 영업실적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함. 회사는 영업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주까지 제고에 노력을 다하고 있음. 중장기 배당 정책을 설명. 750원의 최저 배당금을 설정함. 또한 24년과 25년 초 자사주 소각을 두 차례 진행했으며 2027년까지 총 22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예정. 2024년 DPS는 750원으로 2023년과 동일하며 24년 배당성향은 약 36%(23년19%) 로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주까지 제고를 위해서 배당금은 유지할 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주까지 환수를 취소하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서 결과 사용 없다고 사료됨
거레소	한성	20250324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311,441	1.331	311,441			한성: 202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630억원, 당기순이익 430억원을 기록했으며 2023년 대비 YoY로 각각 -2.8%, -46% 역성장함. 주요 원인으로는 국내 소비 경기 둔화에 따른 의료 소비비 감소이며 대외적 환경의 변화가 영업실적에 악영향을 주었다고 판단함. 회사는 영업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주까지 제고에 노력을 다하고 있음. 중장기 배당 정책을 설명. 750원의 최저 배당금을 설정함. 또한 24년과 25년 초 자사주 소각을 두 차례 진행했으며 2027년까지 총 220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예정. 2024년 DPS는 750원으로 2023년과 동일하며 24년 배당성향은 약 36%(23년19%) 로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주까지 제고를 위해서 배당금은 유지할 하고 있는 상황으로 주주까지 환수를 취소하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서 결과 사용 없다고 사료됨
거레소	한솔제지	20250324	결산 및 배당	제10기(24.1.1~24.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기타	240,979	1.012	240,979			한성: 202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219억원, 순손실 303억원으로 2023년 대비 각각 54%, 감소, 180% 감소함. 필름 및 해상운임 급등과 글로벌 제지 수요 약화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됨. 24년 연간 DPS는 보통주 500원으로 전년과 배당금액은 동일함. 영업실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배당정책을 유지하면서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모습
거레소	한솔제지	20250324	임원보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기타	240,979	1.012	240,979			한성: 202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219억원, 순손실 303억원으로 2023년 대비 각각 54%, 감소, 180% 감소함. 필름 및 해상운임 급등과 글로벌 제지 수요 약화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됨. 24년 연간 DPS는 보통주 500원으로 전년과 배당금액은 동일함. 영업실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배당정책을 유지하면서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모습
거레소	한솔제지	2025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최충용 선임의 건	기타	240,979	1.012	240,979			한성: 202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219억원, 순손실 303억원으로 2023년 대비 각각 54%, 감소, 180% 감소함. 필름 및 해상운임 급등과 글로벌 제지 수요 약화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됨. 24년 연간 DPS는 보통주 500원으로 전년과 배당금액은 동일함. 영업실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배당정책을 유지하면서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모습
거레소	한솔제지	2025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오준균 선임의 건	기타	240,979	1.012	240,979			한성: 202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219억원, 순손실 303억원으로 2023년 대비 각각 54%, 감소, 180% 감소함. 필름 및 해상운임 급등과 글로벌 제지 수요 약화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됨. 24년 연간 DPS는 보통주 500원으로 전년과 배당금액은 동일함. 영업실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배당정책을 유지하면서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모습
거레소	한솔제지	20250324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김희관 선임의 건	기타	240,979	1.012	240,979			한성: 202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219억원, 순손실 303억원으로 2023년 대비 각각 54%, 감소, 180% 감소함. 필름 및 해상운임 급등과 글로벌 제지 수요 약화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됨. 24년 연간 DPS는 보통주 500원으로 전년과 배당금액은 동일함. 영업실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배당정책을 유지하면서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모습
거레소	한솔제지	20250324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김희관 선임의 건	기타	240,979	1.012	240,979			한성: 202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219억원, 순손실 303억원으로 2023년 대비 각각 54%, 감소, 180% 감소함. 필름 및 해상운임 급등과 글로벌 제지 수요 약화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됨. 24년 연간 DPS는 보통주 500원으로 전년과 배당금액은 동일함. 영업실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배당정책을 유지하면서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모습
거레소	한솔제지	20250324	임원보수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기타	240,979	1.012	240,979			한성: 202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219억원, 순손실 303억원으로 2023년 대비 각각 54%, 감소, 180% 감소함. 필름 및 해상운임 급등과 글로벌 제지 수요 약화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됨. 24년 연간 DPS는 보통주 500원으로 전년과 배당금액은 동일함. 영업실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배당정책을 유지하면서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모습
거레소	LG생활건강	20250325	결산 및 배당	제24기 재무제표 승인 - 1주당 예정배당금: 보통주 3,500원 / 우선주 3,550원	기타	58,126	0.372	58,126			한성: 202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219억원, 순손실 303억원으로 2023년 대비 각각 54%, 감소, 180% 감소함. 필름 및 해상운임 급등과 글로벌 제지 수요 약화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됨. 24년 연간 DPS는 보통주 500원으로 전년과 배당금액은 동일함. 영업실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배당정책을 유지하면서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모습
거레소	LG생활건강	20250325	정관변경	정관 변경 승인의 건 (중간배당에 관한 배당절차 개선)	기타	58,126	0.372	58,126			한성: 202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219억원, 순손실 303억원으로 2023년 대비 각각 54%, 감소, 180% 감소함. 필름 및 해상운임 급등과 글로벌 제지 수요 약화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됨. 24년 연간 DPS는 보통주 500원으로 전년과 배당금액은 동일함. 영업실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배당정책을 유지하면서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모습
거레소	LG생활건강	2025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선임(이명석)	기타	58,126	0.372	58,126			한성: 202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219억원, 순손실 303억원으로 2023년 대비 각각 54%, 감소, 180% 감소함. 필름 및 해상운임 급등과 글로벌 제지 수요 약화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됨. 24년 연간 DPS는 보통주 500원으로 전년과 배당금액은 동일함. 영업실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배당정책을 유지하면서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모습
거레소	LG생활건강	2025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선임(이상철)	기타	58,126	0.372	58,126			한성: 202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219억원, 순손실 303억원으로 2023년 대비 각각 54%, 감소, 180% 감소함. 필름 및 해상운임 급등과 글로벌 제지 수요 약화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됨. 24년 연간 DPS는 보통주 500원으로 전년과 배당금액은 동일함. 영업실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배당정책을 유지하면서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모습
거레소	LG생활건강	2025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선임(이승윤)	기타	58,126	0.372	58,126			한성: 202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219억원, 순손실 303억원으로 2023년 대비 각각 54%, 감소, 180% 감소함. 필름 및 해상운임 급등과 글로벌 제지 수요 약화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됨. 24년 연간 DPS는 보통주 500원으로 전년과 배당금액은 동일함. 영업실적 약화에도 불구하고 배당정책을 유지하면서 주주환원에 적극적인 모습



거레소	LG생활건강	2025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에 되는 이사 선임 - 사외이사 이우영	기타	58,126	0.372	58,126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대법원, 검찰청, 법제처 자문 등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 보유. 지난 임기 동안 이사회 운영에 객관적이고 법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옴.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사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감사 및 견제 역할을 수행. 향후 기업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 찬성의견.
거레소	LG생활건강	20250325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이상철)	기타	58,126	0.372	58,126			이상철 감사위원 후보는 회계 전문가로서 자본 조달 및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은 물론, 재무보고, 내부통제 및 투명한 회계운영에 있어 감사위원으로서의 전문역량이 기대됨. 찬성의견.
거레소	LG생활건강	20250325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이승윤)	기타	58,126	0.372	58,126			이승윤 감사위원후보는 디지털 마케팅 분야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회사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감사위원회 활동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됨. 찬성의견.
거레소	LG생활건강	20250325	임원보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기타	58,126	0.372	58,126			전년과 동일한 60억원의 이사보수한도 제시. 한도 자체도 동종업계 대비 높은 편이 아니며, 실제 지급 보수도 한도의 절반에 못 미치는 편. 찬성의견.
코스닥	레이언스	20250325	결산 및 배당	제14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연결/별도)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한금배당 100원/주)	기타	177,549	1.07	177,549			찬성의견. 한금배당 100원으로 전년대비 개선이 있었으나 2022년 주당배당금 300원 이후 다시 회복되지 못하는 점이 아쉬움. 유동자산 2,270억원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은 약 1,420억원으로 무차입경영중. 디택터 기반 꾸준한 실적을 바탕으로 매년 200억원 수준의 영업현금흐름 발생하며 현금의 쌓이는 구조였으나 최근 감익으로 인해 배당을 줄인 것으로 판단.
코스닥	레이언스	20250325	임원보수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기타	177,549	1.07	-	177,549		반대의견. 이사 보수한도의 인상을 제안하고 있지 않음에도 안전에서 제시한 이사 보수한도가 과다하다고 판단. 당사는 이번 보수한도 안전에서 이사회의 규모를 7명(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4명)으로 축소하고 보수한도를 유지시켰음. 사내이사 1인당 실지급액은 전년대비 -1.4% 감소하였으며 경영성과는 영업이익기준 23년도 197억원에서 24년 66억원으로 하락하였음. 레이언스는 경영성과가 크게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지급액은 소폭 감소하였으므로 이사보수 실지급액이 경영성과에 연계되지 않고 현재 책정된 보수한도가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
거레소	하나금융지주	20250325	결산 및 배당	제20기(2024년1월1일~2024년12월31일)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250,617	0.087	250,617			찬성의견. 제 20기 연결/별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제출. 제 20기 주당 총 배당금 : 3,600원으로 적절 (1-3분기 균등 배당 600원, 결산배당 1,800원) 제 19기 주당 총 배당금 : 3,400원  2024년 총주주환율은 38%이며, 전년 33% 대비 대폭 상향시켰음 2024년 자사주매입 소작은 3970억원으로, 전년비 1500억 대비 큰 폭으로 증가  2024년 EPS 12,629원으로 YoY +11% 상승 2024년 BPS 137,082원으로 YoY +10.5% 상승 2024년 CET1 13.13%으로 전년 동기 13.22%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상승과 ELS충당부채 영향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견조한 자본여력을 조성했음.
거레소	하나금융지주	20250325	정관변경	정관 개정의 건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을 반영한 정관 개정)	기타	250,617	0.087	250,617			2024년 10월에 발표한 기업가치 재구조화에서 약속한 내용에 맞게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우량한 자본비용을 기반한 성장의견. 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을 반영한 정관 개정으로 주주권익에 반하는 특이사항은 없음. 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서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근거를 정관 조항으로 마련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책무 관련위험관리점검 등에 대한 근거 조항도 추가하는 건. 또한, 분기배당을 "선 배당 급확정 후 배당기일" 방식으로 맞게 변경하는 것. 전반적으로 이사회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법 개정에 따라서 정관 조항을 강화하고 주주가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거레소	하나금융지주	2025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박동문) 선임의 건	기타	250,617	0.087	250,617			반대의견. 합병주 회장의 임기간 진행된 주요 2건의 소송 (DLF불완전 판매 관련 금감원 징계, 은행 특혜채용 업무방해죄와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하고, 합병주 회장 재선임과 기존 이사들의 재선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함 (A) 합병주 특혜채용 관련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 소송, - 2018년 6월 검찰이 합병주 당시 행장에 대해 2015년 신입채용 지인 청탁, 2013-2016년 남녀 신입행원의 남녀성비 강제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 - 2022년 3월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 무죄 - 2023년 11월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 선고 (징역 6개월, 집행 2년, 벌금 300만원) - 2023년 11월 합병주CEO 대법원 상고 - 2025년 대법원 판결 예상 (B) 합병주 DLF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 2020년 DLF불완전 판매 관련 금감원이 하나은행에 벌금 168억원과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금지를 처분함. 이와 동시에 합병주에게도 중징계(3개월간 금융권 취업제한) 처분 - 합병주 당시 행장은 금감원 징계에 대해 DLF상품의 판매를 직접 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벌함에 징계 처분 취소를 요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 2022년 1월 1심 취소소송 패소 - 2024년 3월 2심 취소소송 승소 - 2024년 7월 3심 대법원에서 2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 무죄로 최종 판결 - 2025년 3월 금감원은 합병주에 대한 징계조치를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합병주 회장의 금융사 임원직 위유가 가능해졌음 #합병주 회장 성과 및 소송 이후 조치. 합병주 회장이 2015년 통합은행장 취임한 이후 그룹의 당기순이익이 2024년까지 4.1배가 증가하고, 자산 건전성이 강화되는 뛰어난 경영실적을 이뤄냈음. 주주환원정책에서도 선진사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빠르게 개시하였으며, 기업가치제고 전략과 주주환원 기준과 방식에 있어서도 개선했음. 2건의 소송 문제가 발생한 뒤로는 KPI 제도를 변경하여 고위험투자상품의 비중을 큰폭으로 하락시켰고, 특히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 고객의 경우 48.8% 감소,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고객은 46.7%를 감소시키는 변화를 이끌어 냈음. 아울러, 2018년은 은행연합회에서 제정한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했는데, 핵심직인으로 학력/가족/출신 등 개인정보를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과 면접 전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한. 2021년 변호사/교수 등 구성된 채용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만장일치제를 적용했음. 2019년~2024년 총 1,233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했으며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이사회의 합병주 회장 관련 법률 리스크 검토. 이사회가 합병주 회장 법률 리스크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1)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2) 법무법인의 의견에 따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 1심에서 무죄 선고된 9건

거레소	하나금융지주	2025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이강원) 선임의 건	기타	250,617	0.087		250,617				반대의견. 합병주 회장의 임기간 진행된 주요 2건의 소송 (DLF불완전 판매 관련 금감원 징계, 은행 특혜채용 업무방해죄와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하고, 합병주 회장 재선임과 기존 이사들의 재선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함 (A) 합병주 특혜채용 관련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위반 혐의 소송. - 2018년 6월 검찰이 합병주 당시 행장에 대해 2015년 신입채용 지인 청탁, 2013-2016년 남녀 신입행원의 남녀성비 강제해 남녀고용평등법 위 반 혐의로 기소 - 2022년 3월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 무죄 - 2023년 11월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 선고 (징역 6개월, 집유 2년, 벌금 300만원) - 2023년 11월 합병주CEO 대법원 상고 - 2025년 대법원 판결 예상 (B) 합병주 DLF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 2020년 DLF불완전 판매 관련 금감원이 하나은행에 벌금 168억원과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금지를 처분함. 이와 동시에 합병주에게도 중징계(3 개월간 금융권 취업제한) 처분 - 합병주 당시 행장은 금감원 징계에 대해 DLF상품의 판매를 직접 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벌함에 징계 처분 취소를 요하는 행 정소송을 제기 - 2022년 1월 1심 취소소송 패소 - 2024년 3월 2심 취소소송 승소 - 2024년 7월 3심 대법원에서 2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 무죄로 최종 판결 - 2025년 3월 금감원은 합병주에 대한 징계조치를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합병주 회장의 금융사 임원직 위유가 가능해졌 을 #합병주 회장 성과 및 소송 이후 조치. 합병주 회장이 2015년 통합은행장 취임한 이후 그룹의 당기순이익이 2024년까지 4.1배가 증가하고, 자산 건전성이 강화되는 뛰어난 경영실적을 이뤄냈음. 주주환원정책에서도 선진사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빠르게 개시업했으며, 기업가치제고 전략과 주주환원 기준과 방식에 있어서도 개선했음. 2건의 소송 문제가 발생한 뒤로는 KPI 제도를 변경하여 고위험투자상품의 비중을 큰폭으로 하락시 켜고, 특히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 고객의 경우 48.8% 감소,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고객은 46.7%를 감소시키는 변화를 이끌어 냈음. 아울러, 2018 년에 은행연합회에서 제정한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했는데, 핵심직으로 학력/가족/출신 등 개인정보를 배제한 블 라인드 채용과 면접 전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함. 2021년 변호사/교수 등 구성된 채용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만장일치제를 적용했음. 2019년~2024년 총 1,233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했으며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이사회의 합병주 회장 관련 법률 리스크 검토. 이사회가 합병주 회장 법률 리스크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1)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무 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2) 법무법인의 의견에 따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 1심에서 무죄 선고된 9건
거레소	하나금융지주	2025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이준사) 선임의 건	기타	250,617	0.087		250,617				반대의견. 합병주 회장의 임기간 진행된 주요 2건의 소송 (DLF불완전 판매 관련 금감원 징계, 은행 특혜채용 업무방해죄와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하고, 합병주 회장 재선임과 기존 이사들의 재선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함 (A) 합병주 특혜채용 관련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위반 혐의 소송. - 2018년 6월 검찰이 합병주 당시 행장에 대해 2015년 신입채용 지인 청탁, 2013-2016년 남녀 신입행원의 남녀성비 강제해 남녀고용평등법 위 반 혐의로 기소 - 2022년 3월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 무죄 - 2023년 11월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 선고 (징역 6개월, 집유 2년, 벌금 300만원) - 2023년 11월 합병주CEO 대법원 상고 - 2025년 대법원 판결 예상 (B) 합병주 DLF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 2020년 DLF불완전 판매 관련 금감원이 하나은행에 벌금 168억원과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금지를 처분함. 이와 동시에 합병주에게도 중징계(3 개월간 금융권 취업제한) 처분 - 합병주 당시 행장은 금감원 징계에 대해 DLF상품의 판매를 직접 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벌함에 징계 처분 취소를 요하는 행 정소송을 제기 - 2022년 1월 1심 취소소송 패소 - 2024년 3월 2심 취소소송 승소 - 2024년 7월 3심 대법원에서 2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 무죄로 최종 판결 - 2025년 3월 금감원은 합병주에 대한 징계조치를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합병주 회장의 금융사 임원직 위유가 가능해졌 을 #합병주 회장 성과 및 소송 이후 조치. 합병주 회장이 2015년 통합은행장 취임한 이후 그룹의 당기순이익이 2024년까지 4.1배가 증가하고, 자산 건전성이 강화되는 뛰어난 경영실적을 이뤄냈음. 주주환원정책에서도 선진사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빠르게 개시업했으며, 기업가치제고 전략과 주주환원 기준과 방식에 있어서도 개선했음. 2건의 소송 문제가 발생한 뒤로는 KPI 제도를 변경하여 고위험투자상품의 비중을 큰폭으로 하락시 켜고, 특히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 고객의 경우 48.8% 감소,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고객은 46.7%를 감소시키는 변화를 이끌어 냈음. 아울러, 2018 년에 은행연합회에서 제정한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했는데, 핵심직으로 학력/가족/출신 등 개인정보를 배제한 블 라인드 채용과 면접 전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함. 2021년 변호사/교수 등 구성된 채용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만장일치제를 적용했음. 2019년~2024년 총 1,233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했으며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이사회의 합병주 회장 관련 법률 리스크 검토. 이사회가 합병주 회장 법률 리스크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1)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무 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2) 법무법인의 의견에 따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 1심에서 무죄 선고된 9건
거레소	하나금융지주	2025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서영숙) 선임의 건	기타	250,617	0.087	250,617					후보자는 SC제일은행 기업역신심사부 상무, 역신심사부문장 전무를 역임한 금융 전문인임. SC제일은행 재직 전에는 Citib, HSBC, AMRO 등 유수 의 글로벌 금융회사에서 기업재무분석, 신용포트폴리오 관리, 리스크 관리 분야에서 수십년간 경험을 쌓았음. 국내외 금융 산업에 대한 이해와 노 하우를 바탕으로 하나금융지주의 이사회가 글로벌 선진사 수준의 역량을 갖도록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거레소	하나금융지주	2025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함영주) 선임의 건	기타	250,617	0.087	-			250,617	<p>중립의견.</p> <p>#함영주 회장 성과 및 소송 이후 조치 함영주 회장이 2015년 통합은행장 취임한 이후 그룹의 당기순이익이 2024년까지 4.1배가 증가하고, 자산건전성이 강화되는 뛰어난 경영실적을 이뤄냈음. 주주환원정책에서도 선진사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빠르게 캐치업했으며, 기업가치제고 전략과 주주환원 기준과 방식에 있어서도 개선했음. 2건의 소송 문제가 발생한 뒤로는 KPI 제도를 변경하여 고위험투자상품의 비중을 큰폭으로 하락시켰고, 특히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 고객 의 경우 48.8% 감소,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고객은 46.7%를 감소시키는 변화를 이끌어 냈음. 아울러, 2018년에 은행연합회에서 제정한 '은행권 채 용 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했는데, 핵심직인으로 학력/가족/출신 등 개인정보를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과 면접 전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함. 2021년 변호사/교수 등 구성된 채용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연장일지제를 적용했음. 2019년~2024년 총 1,233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했으며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p> <p>#배어림자산운용 의견 DLF 사건의 중징계 관련 심판 승소를 통해서 무거운 책임에 대한 징계는 법적으로 경감 또는 해소 되었고, 채용 비리 사건에 대해서 여전히 소송 중이지만 무죄 주정을 적용 할 수 있으며 국내 대형 법무법인 3곳의 공통된 의견은 3심 무죄판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 특혜채용 사건이 HR 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 있으나, 사회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재판에 걸린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으며, 최근 프로세스에는 긍정 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상기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 지배구조 연구소는 본 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제시함. 중차대한 문제이지만, 현재 주주총회가 임박하였기 때문에 경영상의 안정이 필요하고 과거 대비 법적 이슈가 희석 또는 완화되었으며 하나금융지주의 실적이 크게 개 선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상황에서 CEO의 연임을 반대하면 경영 혼선이 발생하면 주주가치에 반할 수 있는 결정이 될 수 있음. 찬성의견.</p>
거레소	하나금융지주	2025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이승열) 선임의 건	기타	250,617	0.087	250,617				<p>후보자는 하나은행 대표이사 은행장으로 재임 중이며, 은행 경영 전문가로서 역량을 입증해왔고, 그룹재무총괄, 하나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 등 금융지주 전반의 업무에 높은 평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23.3월 하나금융지주 사내이사로 선임된 이후 함영주 회장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조치하지 못함으로써 이사회 이사로서 역할에 대한 비판이 있음. 다만, 후보자는 사내이사로서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함영주 회장이 회장후보 리스트에 다시 등재되는 과정에서 의사표현 권한이 없고, 함영주 회장의 특혜채용 소송 3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CEO 공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승계구도와 그 과정에서 경영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사내이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후보자의 이사 선임이 주주가치에 더 유익할 것으로 판단됨</p>
거레소	하나금융지주	2025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강성욱) 선임의 건	기타	250,617	0.087	250,617				<p>찬성의견. 후보자는 하나금융지주 시너지부문장(부회장) 및 하나증권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중이며,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대표이사과 하나은행 경영지 원/영업그룹장 등을 거치면서 리테일/HR/자산운용 등 두루 경험을 축적했기 때문에 금융지주 이사로서 활동하기 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 됨. 또한, 하나증권CEO로 재임하는 기간에 하나증권의 연속적자 고리를 끊고 2024년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할 실현하면서 경영 능력을 입증했음. 2024.3월 하나금융지주 사내이사로서 선임된 이후 함영주 회장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 조치하지 못함으로써 이사회 이사로서 역할에 대한 비판이 있음. 다만, 후보자는 사내이사로서 사외이사로만 구성된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함영주 회장이 회장후보 리스트에 다시 등재 되는 과정에서 의사표현 권한이 없고, 함영주 회장의 특혜채용 소송 3심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CEO 공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승계구도와 그 과정에서 경영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사내이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해당 후보자의 이사 선임이 주주가치에 더 유익할 것으로 판단됨</p>
거레소	하나금융지주	2025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원숙연) 선임의 건	기타	250,617	0.087			250,617		<p>반대의견. 함영주 회장의 임기간 진행된 주요 2건의 소송 (DLF불완전 판매 관련 금감원 징계, 은행 특혜채용 업무방해죄와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하고, 함영주 회장 재선임과 기존 이사들의 재선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함 (A) 함영주 특혜채용 관련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위반 혐의 소송, - 2018년 6월 검찰이 함영주 당시 행장에 대해 2015년 신입채용 지인 정탁, 2013-2016년 남녀 신입행원의 남녀비율 강제해 남녀고용평등법 위 반 혐의로 기소 - 2022년 3월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 무죄 - 2023년 11월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 선고 (징역 6개월, 집유 2년, 벌금 300만원) - 2023년 11월 함영주CEO 대법원 상고 - 2025년 대법원 판결 예상 (B) 함영주 DLF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 - 2020년 DLF불완전 판매 관련 금감원이 하나은행에 벌금 168억원과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금지를 처분함. 이와 동시에 함영주에게도 중징계(3 개월간 금융권 취업제한) 처분 - 함영주 당시 행장은 금감원 징계에 대해 DLF상품의 판매를 직접 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벌함에 징계 처분 취소를 요하는 행 정소송을 제기 - 2022년 1월 1심 취소소송 패소 - 2024년 3월 2심 취소소송 승소 - 2024년 7월 3심 대법원에서 2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 무죄로 최종 판결 - 2025년 3월 금감원은 함영주에 대한 징계조치를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함영주 회장의 금융사 임원직 위유가 가능해졌 음 #함영주 회장 성과 및 소송 이후 조치. 함영주 회장이 2015년 통합은행장 취임한 이후 그룹의 당기순이익이 2024년까지 4.1배가 증가하고, 자산 건전성이 강화되는 뛰어난 경영실적을 이뤄냈음. 주주환원정책에서도 선진사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빠르게 캐치업했으며, 기업가치제고 전략과 주주환원 기준과 방식에 있어서도 개선했음. 2건의 소송 문제가 발생한 뒤로는 KPI 제도를 변경하여 고위험투자상품의 비중을 큰폭으로 하락시 켜고, 특히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 고객의 경우 48.8% 감소,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고객은 46.7%를 감소시키는 변화를 이끌어 냈음. 아울러, 2018 년 은행연합회에서 제정한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했는데, 핵심직인으로 학력/가족/출신 등 개인정보를 배제한 블 라인드 채용과 면접 전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함. 2021년 변호사/교수 등 구성된 채용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연장일지제를 적용했음. 2019년~2024년 총 1,233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했으며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 #이사회의 함영주 회장 관련 법률 리스크 검토. 이사회가 함영주 회장 법률 리스크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1)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무 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2) 법무법인의 의견에 따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 1심에서 무죄 선고된 9건</p>

거레소	하나금융지주	20250325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박동문) 선임의 건	기타	250,617	0.087	250,617	<p>반대의견. 합병주 회장의 임기간 진행된 주요 2건의 소송 (DLF불완전 판매 관련 금감원 징계, 은행 특혜채용 업무방해죄와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하고, 합병주 회장 재선임과 기존 이사들의 재선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함</p> <p>(A) 합병주 특혜채용 관련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위반 혐의 소송.</p> <p>- 2018년 6월 검찰이 합병주 당시 행장에 대해 2015년 신입채용 지인 청탁, 2013-2016년 남녀 신입행원의 남녀성비 강제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p> <p>- 2022년 3월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 무죄</p> <p>- 2023년 11월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 선고 (징역 6개월, 집행 2년, 벌금 300만원)</p> <p>- 2023년 11월 합병주CEO 대법원 상고</p> <p>- 2025년 대법원 판결 예상</p> <p>(B) 합병주 DLF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p> <p>- 2020년 DLF불완전 판매 관련 금감원이 하나은행에 벌금 168억원과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금지를 처분함. 이와 동시에 합병주에게도 중징계(3개월간 금융권 취업제한) 처분</p> <p>- 합병주 당시 행장은 금감원 징계에 대해 DLF상품의 판매를 직접 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벌함에 징계 처분 취소를 요하는 행정소송을 제기</p> <p>- 2022년 1월 1심 취소소송 패소</p> <p>- 2024년 3월 2심 취소소송 승소</p> <p>- 2024년 7월 3심 대법원에서 2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 무죄로 최종 판결</p> <p>- 2025년 3월 금감원은 합병주에 대한 징계조치를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합병주 회장의 금융사 임원직 위유가 가능해졌음</p> <p>#합병주 회장 성과 및 소송 이후 조치. 합병주 회장이 2015년 통합은행장 취임한 이후 그들의 담기순이익이 2024년까지 4.1배가 증가하고, 자산 건전성이 강화되는 뛰어난 경영실적을 이뤄냈음. 주주환원정책에서도 선진사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빠르게 캐치업했으며, 기업가치제고 전략과 주주환원 기준과 방식에 있어서도 개선했음. 2건의 소송 문제가 발생한 뒤로는 KPI 제도를 변경하여 고위험투자상품의 비중을 큰폭으로 하락시켰고, 특히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 고객의 경우 48.8% 감소,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고객은 46.7%를 감소시키는 변화를 이끌어 냈음. 아울러, 2018년에 은행연합회에서 제정한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했는데, 핵심직인으로 학력/가족/출신 등 개인정보를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과 면접 전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함. 2021년 변호사/교수 등 구성원 채용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만장일치제를 적용했음. 2019년~2024년 총 1,233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했으며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p> <p>#이사회와 합병주 회장 관련 법률 리스크 검토. 이사회가 합병주 회장 법률 리스크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1)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2) 법무법인의 의견에 따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 1심에서 무죄 선고된 9건 반대의견. 합병주 회장의 임기간 진행된 주요 2건의 소송 (DLF불완전 판매 관련 금감원 징계, 은행 특혜채용 업무방해죄와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하고, 합병주 회장 재선임과 기존 이사들의 재선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함</p> <p>(A) 합병주 특혜채용 관련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위반 혐의 소송.</p> <p>- 2018년 6월 검찰이 합병주 당시 행장에 대해 2015년 신입채용 지인 청탁, 2013-2016년 남녀 신입행원의 남녀성비 강제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p> <p>- 2022년 3월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 무죄</p> <p>- 2023년 11월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 선고 (징역 6개월, 집행 2년, 벌금 300만원)</p> <p>- 2023년 11월 합병주CEO 대법원 상고</p> <p>- 2025년 대법원 판결 예상</p> <p>(B) 합병주 DLF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p> <p>- 2020년 DLF불완전 판매 관련 금감원이 하나은행에 벌금 168억원과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금지를 처분함. 이와 동시에 합병주에게도 중징계(3개월간 금융권 취업제한) 처분</p> <p>- 합병주 당시 행장은 금감원 징계에 대해 DLF상품의 판매를 직접 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벌함에 징계 처분 취소를 요하는 행정소송을 제기</p> <p>- 2022년 1월 1심 취소소송 패소</p> <p>- 2024년 3월 2심 취소소송 승소</p> <p>- 2024년 7월 3심 대법원에서 2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 무죄로 최종 판결</p> <p>- 2025년 3월 금감원은 합병주에 대한 징계조치를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합병주 회장의 금융사 임원직 위유가 가능해졌음</p> <p>#합병주 회장 성과 및 소송 이후 조치. 합병주 회장이 2015년 통합은행장 취임한 이후 그들의 담기순이익이 2024년까지 4.1배가 증가하고, 자산 건전성이 강화되는 뛰어난 경영실적을 이뤄냈음. 주주환원정책에서도 선진사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빠르게 캐치업했으며, 기업가치제고 전략과 주주환원 기준과 방식에 있어서도 개선했음. 2건의 소송 문제가 발생한 뒤로는 KPI 제도를 변경하여 고위험투자상품의 비중을 큰폭으로 하락시켰고, 특히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 고객의 경우 48.8% 감소,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고객은 46.7%를 감소시키는 변화를 이끌어 냈음. 아울러, 2018년에 은행연합회에서 제정한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했는데, 핵심직인으로 학력/가족/출신 등 개인정보를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과 면접 전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함. 2021년 변호사/교수 등 구성원 채용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만장일치제를 적용했음. 2019년~2024년 총 1,233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했으며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p> <p>#이사회와 합병주 회장 관련 법률 리스크 검토. 이사회가 합병주 회장 법률 리스크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1)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2) 법무법인의 의견에 따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 1심에서 무죄 선고된 9건 반대의견.</p>
거레소	하나금융지주	20250325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이재민) 선임의 건	기타	250,617	0.087	250,617	<p>반대의견. 합병주 회장의 임기간 진행된 주요 2건의 소송 (DLF불완전 판매 관련 금감원 징계, 은행 특혜채용 업무방해죄와 남녀고용평등법위반 혐의)에 대해 검토하고, 합병주 회장 재선임과 기존 이사들의 재선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함</p> <p>(A) 합병주 특혜채용 관련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위반 혐의 소송.</p> <p>- 2018년 6월 검찰이 합병주 당시 행장에 대해 2015년 신입채용 지인 청탁, 2013-2016년 남녀 신입행원의 남녀성비 강제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p> <p>- 2022년 3월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 무죄</p> <p>- 2023년 11월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 선고 (징역 6개월, 집행 2년, 벌금 300만원)</p> <p>- 2023년 11월 합병주CEO 대법원 상고</p> <p>- 2025년 대법원 판결 예상</p> <p>(B) 합병주 DLF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 중징계 처분 취소 행정소송.</p> <p>- 2020년 DLF불완전 판매 관련 금감원이 하나은행에 벌금 168억원과 6개월간 사모펀드 판매 금지를 처분함. 이와 동시에 합병주에게도 중징계(3개월간 금융권 취업제한) 처분</p> <p>- 합병주 당시 행장은 금감원 징계에 대해 DLF상품의 판매를 직접 감독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벌함에 징계 처분 취소를 요하는 행정소송을 제기</p> <p>- 2022년 1월 1심 취소소송 패소</p> <p>- 2024년 3월 2심 취소소송 승소</p> <p>- 2024년 7월 3심 대법원에서 2심 법원의 판단을 유지, 무죄로 최종 판결</p> <p>- 2025년 3월 금감원은 합병주에 대한 징계조치를 중징계에서 경징계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합병주 회장의 금융사 임원직 위유가 가능해졌음</p> <p>#합병주 회장 성과 및 소송 이후 조치. 합병주 회장이 2015년 통합은행장 취임한 이후 그들의 담기순이익이 2024년까지 4.1배가 증가하고, 자산 건전성이 강화되는 뛰어난 경영실적을 이뤄냈음. 주주환원정책에서도 선진사 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빠르게 캐치업했으며, 기업가치제고 전략과 주주환원 기준과 방식에 있어서도 개선했음. 2건의 소송 문제가 발생한 뒤로는 KPI 제도를 변경하여 고위험투자상품의 비중을 큰폭으로 하락시켰고, 특히 만 80세 이상 초고령자 고객의 경우 48.8% 감소,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고객은 46.7%를 감소시키는 변화를 이끌어 냈음. 아울러, 2018년에 은행연합회에서 제정한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규준에 따라 채용계획을 수립했는데, 핵심직인으로 학력/가족/출신 등 개인정보를 배제한 블라인드 채용과 면접 전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를 시행함. 2021년 변호사/교수 등 구성원 채용자문위원회를 설립하고 만장일치제를 적용했음. 2019년~2024년 총 1,233명의 신입행원을 채용했으며 그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음</p> <p>#이사회와 합병주 회장 관련 법률 리스크 검토. 이사회가 합병주 회장 법률 리스크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1) 형사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2) 법무법인의 의견에 따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 1심에서 무죄 선고된 9건 반대의견.</p>
거레소	하나금융지주	20250325	임원보수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250,617	0.087	250,617	<p>최고한도액이 작년과 동일하고 보수총액이 다른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다소 높은 편이지만 합리적인 수준으로 판단됨. 무리하게 낮게 설정된 경영진의 성과보수는 장기적으로 우수 인재물을 획득하는데 실패하여 주주가치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전년과 보수총액은 동일하며, 성과연동주식보상은 2024년 40,000주 한도에서 2025년 50,000주 한도로 상향되었음. 하나금융지주의 최근 경영성과를 고려하였을 때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p>
거레소	현대글로벌비스	20250325	결산 및 배당	제24기(2024.1.1 ~ 2024.12.31)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177,947	0.237	177,947	<p>전성의견. 당사는 수년째 고배당율 시행중으로 작년 기업가치 제고계획 발표회에서 앞으로 3년간 주당배당금 최소 5% 인상 및 배당성향 최소 25%이상 유지를 목표로 주주환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음. 올해 배당금액은 약속한 선에서 이뤄졌다고 판단.</p>
거레소	현대글로벌비스	2025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기타비상무이사 : 1명) 안예빈왕(Ean Evyin Wang) (기타비상무이사)	기타	177,947	0.237	177,947	<p>반대의견. 후보 개인은 이사로서 충분한 자질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이사회 구성을 볼때 한승희 이사는 당사의 주장과 달리 현대글로벌비스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따라 본 후보의 선임에도 이사회의 독립성은 충분히 높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대의견</p>
거레소	현대글로벌비스	20250325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177,947	0.237	177,947	<p>전성의견. 이사보수한도의 인상을 제안하고 있지 않으며 실 지급액은 절반 이하로 유지되고 있음. 또한 이사보수한도가 평균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보기 어려움.</p>
거레소	현대홈쇼핑	20250325	결산 및 배당	제24기(2024.1.1 ~ 2024.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139,772	1.165	139,772	<p>24년 매출액은 6.35조원(YoY 86.7%), 영업이익 1,280억(YoY 113.3%)를 기록. 24년부터 연결편입된 한섬과 현대유치택의 실적이 손익단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 25년 은기로 비교가 가능한 상황에서 지분법이익의 감소, 지배순이익단에서는 감소되는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홈쇼핑의 총취급고는 침전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연간 500~600억원의 영업이익은 기록할 수 있음. 한섬의 실적 회복세를 전망하고, 지배주주 변화에서 현대유치넷을 흡수합병한다면 보유한 현금은 큰 폭 증가 가능할 것. 주주친화정책의 자금으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예상.</p> <p>24년 DPS는 2,800원으로 23년 DPS 2,800원과 동일. 24년도 실적은 23년 실적대비 한섬과 현대유치택의 실적이 포함되면서 큰 폭 증가하였음. 하지만 지배순이익에서는 소폭 증가에 그치는 효과. 배당성향은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고, 배당수익률은 5.6%로 시장평균대비 높은 배당수익률을 기록</p>

거레소	현대홈쇼핑	2025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정교선 선임의 건	기타	139,772	1.165	139,772			<p>찬성의견. 후보자는 2009년부터 현대홈쇼핑 대표이사로 역임하고 현대백화점 그룹의 부회장으로 재직중. 현대홈쇼핑의 성장과 경영전력에 있어 합리적인 결정을 하였으며 경영전반을 관리하며 경쟁력을 강화시켰다고 판단. 금번 임기에도 한성과 현대캐피탈의 흡수합병을 결정하면서 실적 상승을 기록하였음. 지배구조의 변화 속에서 주주까지 제고에도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주주 가치를 증대시켰다고 판단. 이사회 중요한결사안을 결정하는 회의 출석률 100%를 기록 결격사유 없음</p>
거레소	현대홈쇼핑	2025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한광영 선임의 건	기타	139,772	1.165	139,772			<p>찬성의견. 후보자는 14년~20년 현대홈쇼핑 영업본부 상무, 21~23년 영업본부장 전무이사, 현재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재직중. 현대홈쇼핑 영업 본부장을 역임하고 대표이사로 경영전반을 관리하며 유통업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성장 전략 수립 및 핵심 경쟁력 기반의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내이사 적임자로 판단. 이사회 중요한결사안을 결정하는 회의 출석률 100%를 기록 결격사유 없음</p>
거레소	현대홈쇼핑	2025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김성진 선임의 건	기타	139,772	1.165	139,772			<p>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 카이스트대학원 산업공학과 석사,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을 졸업하고,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조달청 청장등을 역임한 경제분야 전문가. 이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진을 감독, 지원할 전문가 라고 판단.</p> <p>사외이사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성장전략과 고역 가치에 중점을 둔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판단.</p>
거레소	현대홈쇼핑	2025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장수형 선임의 건	기타	139,772	1.165	139,772			<p>찬성의견. 후보자는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하버드대학교 통계학 석사, 뉴욕대학교 스텐 경영대학원 마케팅 석.박사를 졸업한후 조지아대학교 경영대학 마케팅 조교수,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조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있는 마케팅분야 전문가. 이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진을 감독, 지원할 전문가라고 판단.</p> <p>사외이사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독립적이고 유용한 의견으로 회사의 성장전략과 고역 가치에 중점한 주어를 피력할 수 있는 전문가라고 판단</p>
거레소	현대홈쇼핑	20250325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이창구 선임의 건	기타	139,772	1.165	139,772			<p>찬성의견. 후보자는 제 35회 행정고시 합격이후,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 진흥정책국 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복지방 우정청장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을 역임한 방송분야 전문가. 이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진을 감독할 전문가라고 판단.</p> <p>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이 가능하며 객관적이고 유용한 주어를 제공할 수 있음 것</p>
거레소	현대홈쇼핑	20250325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김성진 선임의 건	기타	139,772	1.165	139,772			<p>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 카이스트대학원 산업공학과 석사, 워싱턴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를 졸업하고,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 조달청 청장등을 역임한 경제분야 전문가. 이와 같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홈쇼핑 주요 경영정책 결정에 있어 뛰어난 역할을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유용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경영진을 감독, 지원할 전문가라고 판단.</p> <p>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이 가능하며 객관적이고 유용한 주어를 제공할 수 있음 것</p>
거레소	현대홈쇼핑	20250325	임원보수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기타	139,772	1.165	139,772			<p>찬성의견. 제 14기 연결/별도 감사보고서 제출. 제 14기 주당 총 배당금 : 650원으로 적절 제 13기 주당 총 배당금 : 510원</p> <p>2024년 총 주주환원율은 28.5%로 전년 25.7% 대비 상승 (2024년 자사주 매입소각 330억원으로, 전년 160억원 대비 상승)</p> <p>2024년 EPS 2,505원으로 YoY +5% 상승 2024년 BPS 31,348원으로 YoY 6.9% 상승 2024년 CET1 12.35%로 전년 동기 11.69% 대비 대폭 상승. CET1 비율 상승세로는 업계 최상위 수준으로 자본역력 확보에 집중하는 전략.</p>
거레소	BNK금융지주	20250326	결산 및 배당	재무제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1,489,123	0.465	1,489,123			<p>높은 자본비율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주주환원정책을 약속했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에도 RWA성장보다는 안정적인 CET1에 기반한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할 것으로 판단함.</p> <p>개정된 상법/금융사지배구조법 등을 반영한 정관 개정으로 주주권익에 반하는 특이사항은 없음. 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서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근거를 정관 조항으로 마련하고, 이사회의 위험관리점검등에 대한 근거 조항도 추가하는 것. 또한, 기존 정관의 중간배당 조항을 분기배당으로 변경하며, 분기배당을 "선 배당금확정 후 배당기일" 방식에 맞게 변경하는 것. 전반적으로 이사회의 리스크관리 기능을 법 개정에 따라 선 접근 조항을 강화하고 주주가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판단됨</p>
거레소	BNK금융지주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사외이사 3명) - 이사 후보(사외이사) 이광주	기타	1,489,123	0.465	1,489,123			<p>찬성의견. 후보자는 한국은행에 입행 후 부총재보로 퇴임하기 전까지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과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역임한 경제 및 금융분야 전문가임. 2010~2015년 한국5C금융지주 사외이사를 맡아왔고, 2017년부터 부산은행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하는 등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BNK그룹에 대한 이해도도 높음. 2023년 3월부터 BNK금융지주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회의 자료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 후 적극적으론 참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5등급)으로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었음</p>
거레소	BNK금융지주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사외이사 3명) - 이사 후보(사외이사) 김병덕	기타	1,489,123	0.465	1,489,123			<p>찬성의견. 후보자는 수십년간 한국금융연구원 등에서 국내외 금융환경 및 경제 전반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금융분야 전문가임. 기획예산처 기금정책실의 관 등을 역임하고, 2019~2022년 KB생명보험 사외이사로 활동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사 이사회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바 있음. 2023년 3월 BNK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회의 자료에 대해 충분한 사전검토 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외이사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5등급)으로 역할 수행에 충신했던 것으로 알려짐</p>
거레소	BNK금융지주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사외이사 3명) - 이사 후보(사외이사) 박수용	기타	1,489,123	0.465	1,489,123			<p>찬성의견. 후보자는 서강대학교 소프트웨어융합대학 학장으로 재임중인 정보기술 분야 전문가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사)한국복합체인화학회 등을 역임하는 등 IT분야에서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산업계의 중요 직책을 거쳐왔음. 인터넷은행들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존 은행들에게도 높은 수준의 ITSW 서비스와 편의성을 요구하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대비 열위에 있는 여신/수신 기반에서 인터넷은행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오히려 디지털 경쟁력이 더 중요할 것으로 전망됨. 후보자가 BNK금융지주의 이사회에 합류하면, IT 분야에 대한 RNK금융지주의 전략에 대해 귀중한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p>

거레소	BNK금융지주	2025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정영석)	기타	1,489,123	0.465	1,489,123			<p>찬성의견. 후보자는 25년 이상 법학 교수와 법제서 법제자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률분야 전문가임. 또한, 2005년~2016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법률, 분쟁, 소송 등에 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음. 2023년 3월에 BNK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선임되어 활동하면서 평가등급도 탁월한 수준(5등급)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BNK금융지주의 사업규모가 커져가면서 자회사 은행, 증권, 캐피탈 등 여러 금융사업 분야에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음. 주주가치 차원에서 금융사의 법률 리스크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사회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함. 후보자는 경력상 이사회에서 금융시장 분쟁에 대해 다양한 실무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p>
거레소	BNK금융지주	2025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김남철)	기타	1,489,123	0.465	1,489,123			<p>찬성의견. 후보자는 롯데캐피탈에서 상임감사, Retail지원본부장 등을 역임한 이력을 보유한 금융시장 전문가임. 또한, 과거 부산은행 및 롯데캐피탈 근무 경력이 있어, BNK금융지주에 대한 이해도와 여건업 관련 전문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2024년 3월 BNK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이사회 및 이사회 대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사외이사 평가등이가 탁월한 수준(5등급)으로 사외이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소홀함이 없던 것으로 알려짐. 금융지주의 감사위원회의 내부통제, 리스크관리 역할이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으며, 특히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상품들이 늘어가고 있음. 후보자의 다년간의 금융시장 경력을 기반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중요한 조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p>
거레소	BNK금융지주	20250326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기타	1,489,123	0.465	1,489,123			<p>찬성의견. 이사보수 한도액이 선전사 대비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무리한 규모는 아니며, 전년과 동일 한도 적용.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는 전년 118천주에서 79천주로 한도를 감소했음. 2024년 이사보수 실제 지급액은 18억이며, CEO인 사내이사 13억, 사외이사 7인 합산 총 5억을 지급. 2024년 경영성과를 고려했을 때 합리적으로 판단됨.</p>
거레소	GS	20250326	결산 및 배당	제21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포함) 승인의 건	기타	491,896	0.529	491,896			<p>찬성의견. 3/18 감사보고서 제출 확인. 24년 주당 배당금은 2,700원으로 전년도 2,500원 대비 증가. 24년 당기순이익은 8,635억원으로 전년도 1조 5,787억원 대비 크게 감소. 이에 배당성향은 23년 15.0%에서 24년 29.6%로 상승.</p>
거레소	GS	20250326	정관변경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일부 변경의 건	기타	491,896	0.529	491,896			<p>찬성의견. 정관 40조 및 인사관리 규정 제1조에 의거, 임원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는 안건임. 주요 내용은 퇴직금 지급 계산 수정, 상무보 지급률 삭제하는 내용.</p>
거레소	GS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1명) - 사외이사 문효은	기타	491,896	0.529	491,896			<p>찬성의견. 후보자는 카카오 부사장, 다음서비스 대표이사,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교수, 어벤트리스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IT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전문가이지 여성 리더로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영전략과 실적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이사회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p>
거레소	GS	2025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명) - 사외이사 문효은	기타	491,896	0.529	491,896			<p>찬성의견. 후보자는 카카오 부사장, 다음서비스 대표이사, 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교수, 어벤트리스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IT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전문가이지 여성 리더로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영전략과 실적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이사회로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p>
거레소	GS	20250326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기타	491,896	0.529	491,896	491,896		<p>반대의견. 제안된 이사보수한도 금액은 120억원(연당 17.1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나, 업계 평균대비 높은 수준임. 또한 24년 순이익은 전년 대비 45% 급감하였고, 주가는 29.6% 하락하였음. 이사회의 성과 평가와 보상에 기업의 실적과 주가 수익률이 일정부분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함.</p>
거레소	HDC협스	20250326	결산 및 배당	제26기(2024.01.01. ~ 2024.12.31.)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안)	기타	298,640	1.15	298,640			<p>찬성의견. 2024년 연결기준 매출액 6,288억원, 영업이익 64억원, 순이익 104억원으로 2023년 대비 각각 3.7%, 39%, 21% 역성장함. 국내 건설 및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서 주요 사업부분의 성장률이 소폭 감소했으며 고정비 부담으로 이익률이 둔화함. 2024년 DPS는 450원으로 전년과 동일. 배당성향은 100%. 배당수익률은 5.2% 수준. 영업실적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주주가치 제고에도 신중히 배당금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함.</p>
거레소	HDC협스	20250326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사업영역 확대)	기타	298,640	1.15	298,640			<p>찬성의견. 정관 변경의 목적은 사업확장 및 신규사업 진입을 위한 것으로 회사의 매출 다각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의함.</p>
거레소	HDC협스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김성은 선임의 건	기타	298,640	1.15	298,640			<p>찬성의견. 김성은 사내이사 후보자는 2019년부터 HDC협스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며 재직기간 동안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경영을 해옴. 향후에도 회사의 경쟁력 및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p>
거레소	HDC협스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김정현 선임의 건	기타	298,640	1.15	298,640			<p>찬성의견. 김정현 사외이사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컴퓨터학과 교수로 IT 및 디지털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함.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기술 혁신 및 디지털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함.</p>
거레소	HDC협스	2025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 김승현 선임의 건	기타	298,640	1.15	298,640			<p>찬성의견. 김승현 감사 후보자는 광명세무서장과 국제재정에서 근무하면서 세무 및 회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 또한 HDC협스 감사로써 재직하는 동안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잘 수행했다고 판단함.</p>
거레소	HDC협스	20250326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기타	298,640	1.15	298,640			<p>찬성의견. 25년 보수 한도액은 전년과 동일한 30억원. 24년의 한도액 30억원 중 집행금액은 9억원으로 30% 수준. 24년 영업실적 성장성을 고려할 때 기업 가치 훼손 가능성이 없는 현재 수준의 30억원 보수한도에 대해 찬성.</p>
거레소	HDC협스	20250326	임원보수	감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기타	298,640	1.15	298,640			<p>찬성의견. 25년 보수 한도액은 전년과 동일한 2억원. 24년의 한도액 2억원 중 집행금액은 0.2억원으로 10% 수준. 24년 영업실적 성장성을 고려할 때 기업 가치 훼손 가능성이 없는 현재 수준의 2억원 보수한도에 대해 찬성.</p>
거레소	HD한국조선해양	20250326	결산 및 배당	제51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29,479	0.042	29,479			<p>찬성의견. 2024년 본격적인 출자전환으로 현대중공업 분할 이후 처음으로 주당 5,100원의 배당을 시작. 배당성향 30.8%로 낮지 않은 수준이며 앞으로 증가할 이익 수준에 맞춰 배당성향을 유지한다는 목표에 대해서 소통해왔음. 주주환원에 충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찬성의견.</p>
거레소	HD한국조선해양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정기선 선임의 건	기타	29,479	0.042	29,479			<p>찬성의견. 재선임되는 대표이사로서 후보자는 2017년부터 계열사에 재직하며 HD현대의 대표이사 수석부회장으로 재직중. 현재까지의 경영노하우를 비롯하여 회사 및 경영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자를 판단.</p>
거레소	HD한국조선해양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조영희 선임의 건	기타	29,479	0.042	29,479			<p>찬성의견. 재선임되는 사외이사로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써 회계와 재무 관련 적절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또한 해당 이사의 임명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이 유지되므로 반대사유 없음.</p>
거레소	HD한국조선해양	2025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조영희 선임의 건	기타	29,479	0.042	29,479			<p>찬성의견. 재선임되는 사외이사로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으로써 회계와 재무 관련 적절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또한 해당 이사의 임명을 통해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이 유지되므로 반대사유 없음.</p>
거레소	HD한국조선해양	20250326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29,479	0.042	29,479			<p>찬성의견.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한도를 제안하고 있음. 그럼에도 해당 한도는 시장 기준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으나, 실질적 총액은 한도의 63%였고 퇴직금도 한도에 포함이 되어야하는 점, 업계에서의 지위가 높은 점 감안할때 다소 높은 금액을 정당화할 수 있음.</p>
거레소	HL홀딩스	20250326	결산 및 배당	재무제표 승인의 건 (주당 예정 배당금 : 보통주 2,000원)	기타	167,167	1.693	167,167			<p>찬성의견. 3/18 감사보고서 제출되었음. 제 26기 주당 배당금은 2,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 24년도 순이익 198억원으로 전년도 487억원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주당 배당금은 전년도 수준 유지. 이에 배당성향은 23년 38.1%에서 24년 94.9%로 크게 상승.</p>
거레소	HL홀딩스	2025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노대래 선임의 건	기타	167,167	1.693	167,167			<p>찬성의견.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재무 및 회계 전문가로서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 회사의 거래 또는 감치 등을 포함한 대주주와의 특정한 이해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후보자를 포함한 이사회의 총 수는 7인이며 이 중 사외이사는 4인으로 과반을 차지하므로 이사회 독립성에도 문제가 없음.</p>
거레소	HL홀딩스	20250326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167,167	1.693	167,167			<p>찬성의견. 제안된 이사 보수한도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보수총액 50억원, 1인당 7.1억원). 업계 평균대비 높은 수준이기는 하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됨.</p>

거레소	KB금융	20250326	결산 및 배당	2024 회계연도(2024.1.1 ~ 2024.12.31)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포함) 및 이익배당(안) 승인의 건	기타	413,564	0.105	413,564	잔성의견. 제 17기 연결/별도 감사보고서 제출. 제 17기 주당 총 배당금 : 3,174원으로 적절 (매분기 균등 총액 배당 3,000억원) 제 16기 주당 총 배당금 : 3,060원  2024년 총 주주환원율은 39.8%로 전년 38% 대비 상승 (2024년 자사주 매입소액 8,200억원으로, 전년 5,720억원 대비 상승)  2024년 EPS 12,880원으로 YoY +12.1% 상승 2024년 BPS 152,836원으로 YoY 3.5% 상승 2024년 CET1 13.51%로 전년 동기 13.59% 대비 소폭 하락했으나 여전히 업계 최상위 자본여력을 보유.
거레소	KB금융	20250326	정관변경	정관변경의 건 (개정된 상법/금융사지배구조법 등을 반영)	기타	413,564	0.105	413,564	타행 대비 높은 자본비율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약속했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판단됨. 2025년에도 CET1에 기반한 기업가치제고 잔성의견. 개정된 상법/금융사지배구조법 등을 반영한 정관 개정으로 주주권에 반하는 특이사항은 없음. 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서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근거를 정관 조항으로 마련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책무 관련위험관리점검등에 대한 근거 조항도 추가하는 건. 또한, 분기배당을 "선 배당금확정 후 배당기일" 방식으로 맞게 변경하는 것. 전반적으로 이사회의 리스크관리 기능을 법 개정에 따라서 정관 조항을 강화하고 주주가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거레소	KB금융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이한주	기타	413,564	0.105	413,564	잔성의견. 후보자는 KB국민은행 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며, KB금융지주 CFO, KB라이프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뛰어난 이력을 보유. KB라이프 대표이사로서 우리은행생명과 KB생명보험의 통합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경영의 안정화를 이끈 성과를 냈음. 지주, 은행, 보험 등 KB금융그룹의 핵심적인 사업에서 C레벨 역할을 다년간 맡아 금융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사회에 참석하는 기타비상무이사로서 다양한 실무 중심의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판단됨.
거레소	KB금융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후보 여정성	기타	413,564	0.105	413,564	잔성의견. 후보자는 소비자경제학 박사 학위 취득자로 서울대 소비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음. 소비자보호 분야와 소비자지 구권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우수한 경영모형을 제시해 왔음. 2017년 이후 국무총리실 소비자정책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소비자 권익 증진 기여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공정한 제도 수립에 기여했으며, 2023년 3월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그룹의 금융 고객권익 증진을 비롯하여 소비자 중심경영과 ESG경영을 연계하는데 지속적인 조연을 제공했었음. 추후에도 복잡해지는 금융 환경속에서 소비자 중심의 금융 서비스 제공 및 중요해지 것으로 전망되며 후보자의 위시이트가 KB금융의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거레소	KB금융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후보 최재홍	기타	413,564	0.105	413,564	잔성의견. 후보자는 전자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가천대 창업대학 교수로 재임하고 있는 디지털/IT 분야의 대표 전문가임. 모바일웨어드 심사위원장, 카카오 사외이사 등을 역임하여 모바일, 플랫폼, 메타버스 및 스타트업 등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디지털/IT 관련 트렌드와 산업 동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지난 3년간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재임하며 디지털/IT분야에 대해 조언해왔음.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중은행도 인터넷은행 수준의 고객 친화적인 어플리케이션과 다양한 디지털 기반의 상품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후보자의 이사후보에 연하여 계속 중요해지 것으로 판단됨.
거레소	KB금융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후보 김성용	기타	413,564	0.105	413,564	잔성의견. 후보자는 사법고시를 합격한 변호사이며,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로 재임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임. 특허,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금융관련 심의와 법률자문 활동을 계속하며 금융/경제에 관련된 법률 전문성을 키워왔음. 31년간 활동한 법률 전문가로서 그룹의 주요 원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지난 2년간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재임하며 기업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데 기여해왔으며, 앞으로도 정부와 시장에서 요구하는 금융지주사의 거버넌스 수준이 지속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법률 조언 및 KB금융 이사회에서 상당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거레소	KB금융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후보 차은영	기타	413,564	0.105	413,564	잔성의견. 후보자는 경제학 박사 학위 소지자로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며,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사의위원, 기획재정부 투자플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금융업계의 굵직한 이력을 보유했음. 경제 주간지에 국내외 금융 이슈를 주기적으로 기고하는 등 업계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참여형 경제 전문가임. 또한, 하나금융지주와 삼성카드 등에서 사외이사로 15년 이상 활동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중요성과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실제 행위를 이사로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음.
거레소	KB금융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조하준	기타	413,564	0.105	413,564	잔성의견. 후보자는 회계학 박사 학위 소지자로, KT의 자금 담당 임원을 역임한 뒤로 BC카드, KT캐피탈 등 금융사 CFO를 재직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음. 해당 기간의 공로를 인정 받아 KT그룹 최초의 여성 사장으로 KT캐피탈 대표이사를 역임했음. 후보자는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에서 상근감사를 6년간 활동하면서, 감사업무에 대한 숙달이 높음. 2023년 3월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후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감사위원회를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짐. 이미 검증이 완료된 감사분야의 전문성과 감사위원회 참여 경험을 종합해 볼 때 향후에도 감사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거레소	KB금융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김선업	기타	413,564	0.105	413,564	잔성의견. 김선업 후보는 딜로이트 안회계법인을 거쳐 현재 이정회계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28년 동안 회계계를 맡고 있는 정통한 회계 전문가임. 최근에는 ESG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역할을 꾸준히 강화해 사외이사로서 전문성을 강화해 모범이 되었음. 회계법인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건설성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며 금융회사가 직면 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을 풍부한 식견을 바탕으로 해석 및 해결했었으며,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주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위원으로도 오랜기간 활동하며 회계감사와 경영자문 부문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음.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로 3년간 활동하며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기때문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KB금융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거레소	KB금융	2025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김성용	기타	413,564	0.105	413,564	잔성의견. 후보자는 사법고시를 합격한 변호사이며,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로 재임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임. 특허, 금융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금융관련 심의와 법률자문 활동을 계속하며 금융/경제에 관련된 법률 전문성을 키워왔음. 31년간 활동한 법률 전문가로서 그룹의 주요 현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됨 . 폭넓은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감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위원회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적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됨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지남해 감사위원회의 위임으로 활동하여 경영진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해왔고 그를 전반의 계획 수립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짐. 향후에도 감사위원회의 임무를 수행 하면서 KB금융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거레소	KB금융	2025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차은영	기타	413,564	0.105	413,564	잔성의견. 후보자는 경제학 박사 학위 소지자로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임 중이며,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사의위원, 기획재정부 투자플 운영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금융업계의 굵직한 이력을 보유했음. 경제 주간지에 국내외 금융 이슈를 주기적으로 기고하는 등 업계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참여형 경제 전문가임.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등 경험을 통해서 금융업의 관리/감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KB금융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다양한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거레소	KB금융	20250326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413,564	0.105	413,564	잔성의견. 이사보수 한도액이 시장 평균치를 상회하나 무리한 수준은 아니며, 전년과 동일 한도 적용. 장기인센티브 관련 내용 역시 전년과 동일. 주주총회에서 기 승인받은 한도 이내에서 제공될 예정. 2024년 회계연도에 지급된 실제 지급액은 16억원으로 2023년 회계연도에 지급된 22억 대비 감액 여 영향을 없게 최고 수준의 경영성과를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거레소	케이티엔지	20250326	결산 및 배당	제38기 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기타	311,158	0.248	311,158	잔성의견. 2024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0.8% 증가한 5조 909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 영업이익은 1조1848억원으로 1.5% 상승. 이는 올해 수출 매출 증가 및 경영 효율화를 통한 이익증가 덕분
거레소	케이티엔지	20250326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이사의 인원수 명확화	기타	311,158	0.248	311,158	24년 DPS는 5,400원 (증가 1,200원 포함)으로 전기 4,000원 대비 증가 배당수익률 5%대 유지. 이익증가가 높은 주주환원율로 이어짐. 잔성의견.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사외이사를 과반 이상으로 구성하는 조항에 대해 좀더 명시적으로 변경

거레소	케이티앤지	20250326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감사위원 선임 관련 조문 정비	기타	311,158	0.248	311,158	반대의견, 회사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3%분의 석제를 시도하고 있음
거레소	케이티앤지	20250326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대표이사 사장 선임 방법 명확화	기타	311,158	0.248	311,158	-해당 규제를 없앨시 문제는 감사위원회 위원 선출시 3%분의 적용을 회피할수 있다는 점임 -왜냐하면 후보를 추천받는과정에서 사외이사만 추천된다면, 이미 뽑힌 사외이사는 회사측 사람으로 3%분이 유명무실해짐 -이에 반하여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후보를 추천받는다면,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감사가 후보에 오를 수있고, 이에따라 3%분을 적용받는 상태에서 최대주주와 소액주주간에 공정한 표대결이 가능함 -최근 3%분을 이용해 행동주의에 성공한 수많은 사례를 비추어 볼때, 본 정관변경은 특히 소액주주의 권익 침해에 심각한 문제 소지가 있음 반대의견, KTOG는 24년 주총에서 행동주의 측과 이적 및 대표이사직 선출에 있어 이관들때 여러가지 2명의 대표이사직 1명을 임명해서 결정적 표대결을 한 바 있음. 그 결과 KT&G는 원하지 않는 사외이사 (행동주의 측이 원한 사외이사) 1명을 선임하게 되었음
거레소	케이티앤지	20250326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분기배당기준일 변경	기타	311,158	0.248	311,158	본 안건은 이에 대한 방어차원에서 나온 안건으로 사료됨. 대표이사하고 그외 이사 선임을 각각 다르면 조로 나누어 집중표대결을 한다면, 대표이사 조는 KT&G측에 좀더 유리한 후보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고, 그외 이사선임에 있어서도 좀더 표를 몰아주어 회사가 유리한 후보를 선임하는 방향으로 방어할수 있는 문제가 있음
거레소	케이티앤지	20250326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분기배당기준일 변경	기타	311,158	0.248	311,158	물론 회사측이 그간 수많은 주총에서 행동주의 공격에 시달려오며 방어책을 강구한 점은 이해할수 있는 결정이지만, 근본적으로 소액주주의 외부 이사 추천권 및 표결권이라는 핵심 권익 침해를 통해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입장
거레소	케이티앤지	20250326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분기배당기준일 변경	기타	311,158	0.248	311,158	특히 본 안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간 관행처럼 이어온 내부인사의 세습적인 대표이사선임이 아닌, 외부인사를 포함한 공정한 대표이사 선출 권력에 있음을 근거하여 반대의견을 표함
거레소	케이티앤지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이석창 선임의 건	기타	311,158	0.248	311,158	찬성의견, 주주까지 제고를 위해, 분기배당기준일에 대해 말일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일로 변경함으로써 배당을 확인하고 투자결정을 내릴수 있게 함
거레소	케이티앤지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손관수 선임의 건	기타	311,158	0.248	311,158	찬성의견, 후보자의 결격사유 없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경력과 전문지식 보유했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후보자는 전략총괄 및 CFO로서 회사의 중장기 비전 실현에 핵심적인 기여. 적극적인 ESG 경영 도입을 이끌었으며, 3대 핵심사업(글로벌CC, NGP, 건기식) 중심의 수익성 확대 및 신성장동력 확보 전략을 수립/추진한 성과
거레소	케이티앤지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손관수 선임의 건	기타	311,158	0.248	311,158	찬성의견, 후보자의 결격사유 없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경력과 전문지식 보유했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후보자는 C대한통운 대표로 (2014~2019) 재직 당시 매해 기록적인 매출성장을 기록,글로벌 M&A 및 공급망 전문가. KT&G가 국내/외 생산거점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생산 및 공급 시스템의 효율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큰 기여
거레소	케이티앤지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이지희 선임의 건	기타	311,158	0.248	311,158	찬성의견, 후보자의 결격사유 없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경력과 전문지식 보유했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후보자는 더블유픽스의 대표이사로서 여러 글로벌 소비재 브랜드(Nike, Intel, Google, eBay, Heineken, LG전자 등)의 성공적인 마케팅을 수행. 특히 마케팅 전문지식을 활용해 KT&G의 제품 출시 전략에 대해 제안하고, 직접 고려인상장(부여), 과천 R&D센터의 제품개발 과정을 모니
거레소	케이티앤지	2025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손관수 선임의 건	기타	311,158	0.248	311,158	타입하는 등 전체 그룹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함
거레소	케이티앤지	20250326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311,158	0.248	311,158	찬성의견, 후보자의 결격사유 없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경력과 전문지식 보유했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후보자는 C대한통운 대표로 (2014~2019) 재직 당시 매해 기록적인 매출성장을 기록,글로벌 M&A 및 공급망 전문가. KT&G가 국내/외 생산거점에 대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생산 및 공급 시스템의 효율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큰 기여
거레소	LF	20250326	결산 및 배당	제19기(2024.01.01 ~ 2024.12.31)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案)포함] ※ 1주당 예정 현금배당금: 보통주 700원	기타	55,066	0.188	55,066	전문성과 더불어 손관수 후보자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법상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관계 법령에 규정된 독립성 기준대로, 최대주주 및 경영진과의 직/간접적 또는 우호적 관계 등이 없는 독립적 위치에 있음. 감사위원으로 선임될 경우, 독립성과 객관성이 필요한 감사위원회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거레소	LF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후보 김상균 (재선임)	기타	55,066	0.188	55,066	찬성의견, 이사의 보수한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 및 업계평균수준 (인당 6억 수준). 동사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등을 고려할 때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이 없는 수준의 보수한도로 판단되므로 찬성
거레소	LF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김유림 (신규선임)	기타	55,066	0.188	55,066	동사는 2024년 영업이익이 1,261억원, 당기순이익의 900억원으로 전년대비 YoY로 각각 120%, 13% 성장함. 본임인 패션업은 국내 내수 경기 둔화로 실적이 하락하였으나 코람과 사업이 실적 부진을 극복하고 이익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23년 대비 개선된 실적을 보이며,
거레소	LF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후보 김재홍 (재선임)	기타	55,066	0.188	55,066	DPS는 700원으로 전년과 동일, 2022년에 2024년과 유사한 실적에서 700원을 배당했음. 최저 배당금은 500원이나 2023년 영업실적 악화로도 700원을 배당했어서 꾸준히 DPS는 700원 수준을 유지하는 중으로 결과사로 없다고 판단함
거레소	LF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후보 김재홍 (재선임)	기타	55,066	0.188	55,066	사내이사 김상균 후보는 LF에서 오랜 패션 사업부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2022년 대표이사에서 취임 후 LF의 실적이 반등하기 시작함. 그동안의 사업 경험과 회사 경영 능력을 인정하여 사내이사 재선임에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함.
거레소	LF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후보 김재홍 (재선임)	기타	55,066	0.188	55,066	동사는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으로 전체 이사회 인원 중 과반 이상이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함. 현재 7명(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3명)으로 이사회의 구성되어 있으나 기타비상무이사로서 선임시 총 8인에 사외이사 3인으로 사외이사 과반이 되지 않으므로 ISS의견에 따라 반대의견을 표함
거레소	LF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후보 김재홍 (재선임)	기타	55,066	0.188	55,066	찬성의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로써 김재홍 후보를 재선임하고자 함. 김재홍 후보는 산업통상부, 지식경제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의 직무 경험이 있어 산업과 무역분야의 전문가. LF의 사외이사로서 재직하는 동안 이사회 참석률 100%로 이사회에서 회사의 성장을 위해 노력중. 결격사유 없다고 판단함.
거레소	LF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후보 김재홍 (재선임)	기타	55,066	0.188	55,066	찬성의견: 사외이사 감사위원회로써 김재홍 후보를 재선임하고자 함. 오랜 공직 경험과 과거 3년간의 회계 및 감사 업무를 감사위원회에서 수행했기때문에 이번에도 문제없이 잘 수행할 것이라 판단함.
거레소	LF	20250326	임원보수	2025년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기타	55,066	0.188	55,066	찬성의견: 이사회이사 감사위원회로써 김재홍 후보를 재선임하고자 함. 오랜 공직 경험과 과거 3년간의 회계 및 감사 업무를 감사위원회에서 수행했기때문에 이번에도 문제없이 잘 수행할 것이라 판단함.
거레소	LG	20250326	결산 및 배당	제6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1주당 배당 예정액: 보통주 3,100원 / 우선주 3,150원)	기타	219,601	0.14	219,601	찬성의견, 25년 보수 한도액은 전년과 동일한 60억원, 24년의 경우 60억원 중 35억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약 58%임. 동종업계 유사 회사 대비 소폭 높은 보수한도이나, 전년대비 유지 되었다는 점, 24년 회사 실적이 성장했다는 점에서 금번 보수한도액에 대해서는 이견 없음.
거레소	LG	20250326	정관변경	정관 변경의 건 (중간배당에 관한 절차 개선)	기타	219,601	0.14	219,601	찬성의견, 3/18 감사보고서 제출하였음
거레소	LG	20250326	자본구조	자기주식 소각 승인의 건	기타	219,601	0.14	219,601	24년 주당 배당금 3,1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 유지. 24년도 순이익은 8,045억원으로 23년 1조 4,143억원 대비 크게 감소하였음에도 주당 배당금은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였음. 이에 배당성향은 23년 38.4%에서 24년 81.2%로 크게 상승
거레소	LG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권봉석	기타	219,601	0.14	219,601	찬성의견, 제안된 안건은 제39조제2 중간배당에 관한 절차 개선과 관련된 내용으로 기존에는 중간배당 기준일을 7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이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고, 이를 해당 기준일 2주 전에 공고하는 것으로 개정. 배당에 대해 주주의 권익이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
거레소	LG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권봉석	기타	219,601	0.14	219,601	찬성의견, 동사는 24년 11월 이사회 결의 및 기업가치재고계획 발표를 통해 2026년까지 보유 자기주식을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 이번 안건에서 소각처리하기로 제안한 자기주식은 21년 5월 회사 분할시 발생한 단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것으로, 상법 제343조에 근거하여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소각이 가능. 보유 자사주 소각을 통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차단하여 지배구조 개선이 가능하고, ROE를 높이는 효과가 기대됨
거레소	LG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허범종	기타	219,601	0.14	219,601	찬성의견, 후보자는 그룹 입사 후 LG전자 해외생산법인장, 사업부장, 상품기획그룹장, 사업본부장을 거쳐 CEO를 역임하여 LG전자의 역대 최대 매출, 영업이익을 달성한바 있고, 신사업기획, 경영관리, 전략, 생산 등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지난 3년간은 LG의 COO이자 사내이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음
거레소	LG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허범종	기타	219,601	0.14	219,601	찬성의견, 후보자는 LG그룹에 장기간 재직한 회계, 재무 전문가이자 전문경영인으로서 회사의 사업전략과 재무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있음. 지난 3년 LG의 경영지원본부장이자 사내이사로서 성과에 기여하였음



거래소	LG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정도진	기타	219,601	0.14	219,601			한성의권. 후보자는 회계학을 전공한 경영학 박사이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IFRS, 내부통제, 회계 감사 등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롯데하이마트, 네이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풍부한 이사회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거버넌스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춘 것으로 평가됨
거래소	LG	2025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사외이사 정도진	기타	219,601	0.14	219,601			한성의권. 후보자는 회계학을 전공한 경영학 박사이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IFRS, 내부통제, 회계 감사 등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 롯데하이마트, 네이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으로 풍부한 이사회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거버넌스에 대한 높은 이해를 갖춘 것으로 평가됨
거래소	LG	20250326	임원보수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기타	219,601	0.14		219,601		반대의견. 제안된 이사 보수 최고한도액은 170억원(1연당 24.3억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고, 국내 지주회사 평균인 150억원(1연당 19.0억원) 대비 높은 수준임. 동사의 수익성은 국내 지주사 평균대비 높고 부채비율은 월등히 낮은 수준인 것은 사실이나, 당사는 국내 대형 지주사들의 이사 보수 한도액이 전체적으로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또한 동사의 24년 순이익은 7905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4% 급증하였고, 주가는 16% 하락하였음. 이사회의 성과 평가와 보상에 기업의 실적과 추가 수익률이 일정부분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거래소	NAVER	20250326	결산 및 배당	제26기(2024년)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기타	112,067	0.071	112,067			동사의 배당정책은 2년 평균 FCF (Free Cash flow)의 15~30%를 현금 배당으로 지급하는 것. 24년 DPS는 1,130원으로 23년 DPS 790원 대비 증가하였는데, 24년 실적이 yoy 개선되었기 때문. 또한 동사는 매년 발행주식의 1%를 소각하는 정책을 실행했음. 사실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합쳐도, 수익률이 2%가 안되기 때문에, 주주환원이 우수하다고 할수는 없음. 그러나 동사 주주입장에서는 주주환원은 현재 수준으로 납득할만한 수준 정도로만 진행하고, 나머지는 핵심 사업 분야인 데이터센터와 AI 기술 개발에 대부분의 현금흐름을 투입하는 지금의 방식이 동사의 기업가치에는 더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함. 찬성의견.
거래소	NAVER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이혜진 선임의 건	기타	112,067	0.071	112,067			동사의 창업주이자, 글로벌 투자책임자, 회사 전반과 글로벌 IT 시장상황에 깊이있는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음. A시대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그동안 다수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도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NAVER의 중장기 성장 방향성을 제시하며, 의사 결정에 힘을 실고, 경영전반에 안정성을 부여해 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찬성의견.
거래소	NAVER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최수연 재선임의 건	기타	112,067	0.071	112,067			지난 임기 동안 사업구조 개편을 진행하였고, 생성형 AI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기술에 대응하고자, NAVER 서비스에 AI를 적극,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on-service AI 방향성을 경영전략에 반영하였음. 새로운 임기에도 NAVER 플랫폼 경쟁력 강화와 함께 매출과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성장을 모색해 나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찬성의견.
거래소	NAVER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노혁준 재선임의 건	기타	112,067	0.071	112,067			상법 및 M&A, 기업 지배구조 분야 전문성과 함께, 판사, 변호사, 교수 등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네이버의 이사회 운영과 안전 심의 등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조연과 자문을 행해왔음. 향후에도 신관주의, 충실의무, 경영금지의무, 자기거래금지의무 등 사외이사로서의 의무를 인지하고 전문성과 독립성과 기반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
거래소	NAVER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김이배 선임의 건	기타	112,067	0.071	112,067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한국회계 정책학회회장, 덕성여대 회계학 전공 교수 등을 역임하며 금융 및 회계 분야의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네이버의 이사회 운영과 안전 심의에 면밀한 검토 및 조연과 자문을 할 것으로 기대. 사외이사로서의 의무를 인지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 찬성의견.
거래소	NAVER	2025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노혁준 재선임의 건	기타	112,067	0.071	112,067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법률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 관리 및 감독 기능 및 감사 위원회 활동을 지난 임기 동안 충실히 수행. 다음 임기에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기반으로 충실한 역할 수행을 기대함. 찬성의견.
거래소	NAVER	2025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김이배 선임의 건	기타	112,067	0.071	112,067			회계와 재무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극재강과 농업 생명보험에서 감사위원장을 수행한 경험이 있음. 이사회의 관리 및 감독 기능을 충실히 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찬성의견.
거래소	NAVER	20250326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112,067	0.071	112,067			이사보수 한도액은 전년도 동일한 80억원으로 제시, 24년 실적에 매출 11%, 영업이익 33% 성장하였지만, 보수한도는 그대로 유지함. 공정적으로 판단. 24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도 이사 보수한도의 50%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25년의 실제 보수도 한도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함. 찬성의견.
거래소	SK	20250326	결산 및 배당	제34기(2024.1.1 ~ 2024.12.31) 재무제표 승인	기타	105,657	0.146	105,657			찬성의견. 3/11 감사보고서 제출 확인. 24년도 주당 배당금은 7,000원으로 23년 5,000원 대비 크게 증가. 24년 배당성장률 70.3% (23년은 당기순손실 기록)
거래소	SK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1인 선임 (후보: 최태환)	기타	105,657	0.146		105,657		반대의견. 후보자는 수년간 기업의 지배구조, 관리감독, 위험관리 측면에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 후보자는 2003년 SK네트웍스 회계 부정 및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계열사 주식거래로 인한 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 2008년 사면. 이후 차금 형량 혐의로 다시 4년형 선고받았으나 2015년 사면. 2016년 이사회 복귀하였음
거래소	SK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1인 선임 (후보: 강동수)	기타	105,657	0.146		105,657		반대의견. 정중호 사외이사 후보자에 반대 의견임에따라(반대 근거는 아래 제2-4호 의견 참조) 이사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내이사 후보자간 강동수 후보자에 대해 반대의견 (이사 후보자 4인을 포함한 이사회 총 수는 8명, 이 중 사내 이사 3명, 사외이사는 5명임)이 박현주 사외이사는 현재 SK에 법무서비스를 제공중인 법무법인 세종의 시니어 변호사로 근무중으로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그리고 정중호 후보자에 대한 반대의견임에따라 사외이사 수는 3명으로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하지 못함
거래소	SK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1인 선임 (후보: 이관영)	기타	105,657	0.146	105,657			한성의권. 후보자는 에너지와 화학분야에서 30년 이상의 연구 경력과 하계에서의 리더십 경험, 2차전지 소재 관련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로서의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이사회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주주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거래소	SK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1인 선임 (후보: 정종호)	기타	105,657	0.146		105,657		반대의견. 후보자는 2024년 한일물류인스 이사회의에서 활동하는 동안 이사회의 충실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판단. 주주의 이익의 위해 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우려 제기. 2024년 12월 한일물류인스의 하기로 회장은 주식 소유상황 보고 의무 위반으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음. 다만, 한일시멘트와 한일현대시멘트의 모회사인 HLC물류인스의 합병과정에서 지주사인 한일물류인스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한일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음
거래소	SK	2025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1인 선임 (후보: 김선희)	기타	105,657	0.146	105,657			찬성의견. 후보자는 지난 4년간 SK와의 이사회 내 위원회인 인사위원회 위원장, ESG위원회 위원장, 거버넌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사외이사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바 있음. 후보자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대표이사 평가 및 보상 시스템을 보완하였고, ESG위원장으로 회사의 주요 취약 및 지배구조 개선의 감시를 이끄는 등 이사회 중립 경험을 실증하는바 기대하였음
거래소	SK	20250326	임원보수	이사보수한도 승인 (180억)	기타	105,657	0.146		105,657		반대의견. 이사보수한도 총액이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이긴하나, 업계 평균대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제시되어있지 않음 (보수한도 총액 100억원 1연당 22.5억원)
거래소	SK	20250326	임원보수	임원퇴직금 규정 개정	기타	105,657	0.146	105,657			한성의권. 임원의 퇴직연금 운용방식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DC형(확정기여형) 제도를 추가로 도입한 내용으로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방식임
거래소	신한지주	20250326	결산 및 배당	제24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590,777	0.117	590,777			찬성의견. 제 24기 연결/별도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제출. 제 24기 주당 배당금 : 2,160원으로 적절 (1-4분기 균등배당 540원) 제 23기 주당 배당금 : 2,100원  2024년 총주주환율은 39.6%이며, 전년 36% 대비 상승세 유지 2024년 자사주 취득/소각 금액은 7000억으로 전년도 4860억 대비 큰 폭으로 상향시켰음. 2025년에도 동일한 주주환원정책 성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2024년 EPS는 8,924원으로 YoY +6.1% 상승 2024년 BPS는 112,482원으로 YoY 7.4% 상승 2024년 CET1은 13.03%로 마무리했으며, 전년 동기 13.17% 대비 소폭하락했으나 Target인 13% 이상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자본역력을 보유하고 있음
거래소	신한지주	20250326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관련 정관 변경	기타	590,777	0.117	590,777			2027년 총 주주환율을 50%를 타겟하는 기업가치제도 계획을 발표한 뒤로 이에 걸맞는 정책을 마련하면서 투자자 신뢰를 쌓아가고 있음. 2027 찬성의견.
거래소	신한지주	20250326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관련 정관 변경	기타	590,777	0.117	590,777			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을 반영한 정관 개정으로 주주권익에 반하는 특이사항은 없음. 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서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근거를 정관 조항으로 마련하고, 위원회의 위험관리점검 등에 대한 근거 조항도 추가하는 건. 이사회의 리스크 관리 기능을 법 개정에 맞춰 정관 조항을 강화하고 주주가치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판단됨
거래소	신한지주	20250326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분기배당 기준일 관련 정관 변경	기타	590,777	0.117	590,777			찬성의견. 2025년 1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맞춰 분기배당을 "선 배당금확정 후 배당기일" 방식에 따라 정관 변경하는 것. 한국상장사협의회 표준정관 개정 내용을 반영함

거레소	신한지주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이사후보(기타비상무이사) 정상혁	기타	590,777	0.117	590,777		<p>인정되긴.</p> <p>후보자는 2023년 2월부터 신한은행 은행장을 역임하고 있음.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신한은행에서 35년간 근무하면서 다양한 부서를 경험했고 역량을 입증하여 은행장에 취임함. 은행장에 취임하면서 은행 슈퍼앱으로 디지털역량을 강화하고, 베트남/일본 은행의 해외법인에서 우량한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또한, 인도 비은행 학자금 대출회사 크레딤라에 자본투자하는 등 은행의 해외사업 확장에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p> <p>후보자는 2023년 3월 기타비상무이사로 신현지주 이사회에 선임되었음. 조용병/전옥동 회장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과 부정청탁 채용 무죄판결 이후에 이사회에 합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장 선임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음. ISS의 경우 후보자 역시 지난 2년간의 이사회 활동에서 전옥동 회장의 활동을 억제하지 않아 감시/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여 반대의견이나, 사건의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미 후보자가 이사회 참여한 뒤로는 사법절차나 검찰권 경계심리가 진행되는 것이 없었음. 또한, 후보자는 신한지주의 핵심 자회사인 신한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지주 경영에 중요한 경영진이며, 실제로 성과를 입증하고 있음. 해당 후보자를 선임하는 것에 반대하면, 주주기지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선임 차선 의견.</p>
거레소	신현지주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이사후보(사외이사) 김조설	기타	590,777	0.117	590,777		<p>2019년에 판매되었고 2020년 대규모 손실을 가져왔던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조용병 회장이 금감원 정계(주)의 처분이 있었고, 2013년~2016년 부정청탁채용 관련 2018년 기소되어 1심 유죄 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에 신현지주 이사회 이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조용병 회장의 행동을 제약하는 적합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기존 이사회 이사의 재선임 반대.</p> <p>채용비리 의혹은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되었으나,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은 장기간 걸친 조사 끝에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펀드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고 결론 짓고 조용병 전 회장과 전옥동 회장에게 경징계 처분했음. 해당 펀드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들 이 실질적으로 큰 손실을 봤고, 조용병 전 회장과 전옥동 회장이 당시 경영자로서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역할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p> <p>은행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산업이며, 국가 경제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책임지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넘어서 Best practice에 기반한 높은 거버넌스 기준을 부여해야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사회는 경영진 관리 감도하는 핵심 기구로서 그 책임과 역할이 중요함. 금융지주의 거버넌스에 더 높은 잣대를 부여하고자 조용병 전 회장과 이사회 활동 기간이 겹치고 전옥동 회장 선임 과정을 제약하지 않은 기존 이사들에 대해서도 재선임 반대 의견을 제시</p> <p>#재선임되는 이사들의 최초 선임일 2020년 3월, 윤재원, 2021년 3월, 배준, 이용국, 객수근 2022년 3월, 김조설 2023년 3월, 정상혁</p>
거레소	신현지주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이사후보(사외이사) 배 훈	기타	590,777	0.117	590,777		<p>2019년에 판매되었고 2020년 대규모 손실을 가져왔던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조용병 회장이 금감원 정계(주)의 처분이 있었고, 2013년~2016년 부정청탁채용 관련 2018년 기소되어 1심 유죄 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에 신현지주 이사회 이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조용병 회장의 행동을 제약하는 적합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기존 이사회 이사의 재선임 반대.</p> <p>채용비리 의혹은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되었으나,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은 장기간 걸친 조사 끝에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펀드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고 결론 짓고 조용병 전 회장과 전옥동 회장에게 경징계 처분했음. 해당 펀드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들 이 실질적으로 큰 손실을 봤고, 조용병 전 회장과 전옥동 회장이 당시 경영자로서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역할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p> <p>은행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산업이며, 국가 경제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책임지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넘어서 Best practice에 기반한 높은 거버넌스 기준을 부여해야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사회는 경영진 관리 감도하는 핵심 기구로서 그 책임과 역할이 중요함. 금융지주의 거버넌스에 더 높은 잣대를 부여하고자 조용병 전 회장과 이사회 활동 기간이 겹치고 전옥동 회장 선임 과정을 제약하지 않은 기존 이사들에 대해서도 재선임 반대 의견을 제시</p> <p>#재선임되는 이사들의 최초 선임일 2020년 3월, 윤재원, 2021년 3월, 배준, 이용국, 객수근 2022년 3월, 김조설 2023년 3월, 정상혁</p>
거레소	신현지주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이사후보(사외이사) 윤재원	기타	590,777	0.117	590,777		<p>2019년에 판매되었고 2020년 대규모 손실을 가져왔던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조용병 회장이 금감원 정계(주)의 처분이 있었고, 2013년~2016년 부정청탁채용 관련 2018년 기소되어 1심 유죄 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에 신현지주 이사회 이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조용병 회장의 행동을 제약하는 적합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기존 이사회 이사의 재선임 반대.</p> <p>채용비리 의혹은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되었으나,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은 장기간 걸친 조사 끝에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펀드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고 결론 짓고 조용병 전 회장과 전옥동 회장에게 경징계 처분했음. 해당 펀드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들 이 실질적으로 큰 손실을 봤고, 조용병 전 회장과 전옥동 회장이 당시 경영자로서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역할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p> <p>은행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산업이며, 국가 경제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책임지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넘어서 Best practice에 기반한 높은 거버넌스 기준을 부여해야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사회는 경영진 관리 감도하는 핵심 기구로서 그 책임과 역할이 중요함. 금융지주의 거버넌스에 더 높은 잣대를 부여하고자 조용병 전 회장과 이사회 활동 기간이 겹치고 전옥동 회장 선임 과정을 제약하지 않은 기존 이사들에 대해서도 재선임 반대 의견을 제시</p> <p>#재선임되는 이사들의 최초 선임일 2020년 3월, 윤재원, 2021년 3월, 배준, 이용국, 객수근 2022년 3월, 김조설 2023년 3월, 정상혁</p>

거레소	신한지주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이사후보(사외이사) 이용국	기타	590,777	0.117	590,777	<p>판대익건.</p> <p>2019년에 판매되었고 2020년 대규모 손실을 가져왔던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조용병 회장이 금감원 정계(주)의 처분이 있었고, 2013년~2016년 부정정탁채용 관련 2018년 기소되어 1심 유죄 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에 신한지주 이사회 이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조용병 회장의 행동을 제약하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기존 이사회 이사의 재선임 반대.</p> <p>채용비리 의혹은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되었으나,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은 장기간 걸친 조사 끝에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펀드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고 결론 짓고 조용병 전 회장과 진옥동 회장에게 경징계 처분했음. 해당 펀드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들 이 실질적으로 큰 손실을 봤고, 조용병 전 회장과 진옥동 회장이 당시 경영자로서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역할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p> <p>은행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산업이며, 국가 경제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책임지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넘어서 Best practice에 기반한 높은 거버넌스 기준을 부여해야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사회는 경영진 관리 감도하는 핵심 기구로서 그 책임과 역할이 중요함. 금융지주의 거버넌스에 더 높은 잣대를 부여하고자 조용병 전 회장과 이사회 활동 기간이 겹치고 진옥동 회장 선임 과정을 제약하지 않은 것은 이사들에 대해서도 재선임 반대 의견을 제시</p> <p>#재선임되는 이사들의 최초 선임일 2020년 3월, 윤재원, 2021년 3월, 배준, 이용국, 박수근 2022년 3월, 김조설 2023년 3월, 전사현</p>
거레소	신한지주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이사후보(사외이사) 양인집	기타	590,777	0.117	590,777	<p>판대익건.</p> <p>후보자는 1998년 IT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어니컴㈜을 설립한 선도적인 IT 전문가임. 백대태, 마신리, 안국자, 사물인터넷 등을 통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ICT 시스템 품질 검증 등을 주력 사업을 영위하며, 후보자는 디지털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통찰력은 물론 ICT기술에 관한 전문적 이해도를 겸비 한 것으로 알려짐. 후보자는 또한 손해보험 회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경험이 있어서 금융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향후 금융권에서 인터넷은행 등 경쟁회사들의 빠르고 편리한 어플리케이션과 금융상품 출시로 디지털 경쟁이 심화 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가 신한지주의 이사회에서 적절한 전략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p>
거레소	신한지주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이사후보(사외이사) 천요상	기타	590,777	0.117	590,777	<p>판대익건.</p> <p>후보자는 일본의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한 회계 전문가임. 수십년간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며 은행과 증권 등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업무를 담당 하여 회계 및 내부통제 관련 업무 경험을 축적했음. KPMG FAS에서는 회계 자문을 통해 주로 구조조정, M&amp;A 등 업무에 있어 역량 입증했음. 후보자는 KPMG에 재직하던 중 일본정착투자은행의 회계자문역으로 일정 기간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할 만큼 전문성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있음. 내부통제가 중요해지는 금융회사의 상황을 감안할 때, 후보자의 회계감사 경력, 전략 기획과 경영 관리 업무 경험을 기반으로 신한지주 이사회에서 경영 위험과 전략 변화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이 조언할 것으로 기대됨</p>
거레소	신한지주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박수근	기타	590,777	0.117	590,777	<p>2019년에 판매되었고 2020년 대규모 손실을 가져왔던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조용병 회장이 금감원 정계(주)의 처분이 있었고, 2013년~2016년 부정정탁채용 관련 2018년 기소되어 1심 유죄 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에 신한지주 이사회 이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조용병 회장의 행동을 제약하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기존 이사회 이사의 재선임 반대.</p> <p>채용비리 의혹은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되었으나,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은 장기간 걸친 조사 끝에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펀드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고 결론 짓고 조용병 전 회장과 진옥동 회장에게 경징계 처분했음. 해당 펀드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들 이 실질적으로 큰 손실을 봤고, 조용병 전 회장과 진옥동 회장이 당시 경영자로서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역할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p> <p>은행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산업이며, 국가 경제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책임지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넘어서 Best practice에 기반한 높은 거버넌스 기준을 부여해야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사회는 경영진 관리 감도하는 핵심 기구로서 그 책임과 역할이 중요함. 금융지주의 거버넌스에 더 높은 잣대를 부여하고자 조용병 전 회장과 이사회 활동 기간이 겹치고 진옥동 회장 선임 과정을 제약하지 않은 것은 이사들에 대해서도 재선임 반대 의견을 제시</p> <p>#재선임되는 이사들의 최초 선임일 2020년 3월, 윤재원, 2021년 3월, 배준, 이용국, 박수근 2022년 3월, 김조설 2023년 3월, 전사현</p>
거레소	신한지주	2025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후보 배 훈	기타	590,777	0.117	590,777	<p>2019년에 판매되었고 2020년 대규모 손실을 가져왔던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조용병 회장이 금감원 정계(주)의 처분이 있었고, 2013년~2016년 부정정탁채용 관련 2018년 기소되어 1심 유죄 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에 신한지주 이사회 이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조용병 회장의 행동을 제약하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기존 이사회 이사의 재선임 반대.</p> <p>채용비리 의혹은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되었으나,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은 장기간 걸친 조사 끝에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펀드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고 결론 짓고 조용병 전 회장과 진옥동 회장에게 경징계 처분했음. 해당 펀드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들 이 실질적으로 큰 손실을 봤고, 조용병 전 회장과 진옥동 회장이 당시 경영자로서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역할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p> <p>은행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산업이며, 국가 경제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책임지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넘어서 Best practice에 기반한 높은 거버넌스 기준을 부여해야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사회는 경영진 관리 감도하는 핵심 기구로서 그 책임과 역할이 중요함. 금융지주의 거버넌스에 더 높은 잣대를 부여하고자 조용병 전 회장과 이사회 활동 기간이 겹치고 진옥동 회장 선임 과정을 제약하지 않은 것은 이사들에 대해서도 재선임 반대 의견을 제시</p> <p>#재선임되는 이사들의 최초 선임일 2020년 3월, 윤재원, 2021년 3월, 배준, 이용국, 박수근 2022년 3월, 김조설 2023년 3월, 전사현</p>

거레소	신한지주	2025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후보 윤재원	기타	590,777	0.117	590,777	<p>반대의견. 2019년에 판매되었고 2020년 대규모 손실을 가져왔던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조용병 회장이 금감원 정계(주)의 처분이 있었고, 2013년~2016년 부정정탁채용 관련 2018년 기소되어 1심 유죄 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에 신한지주 이사회 이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조용병 회장의 행동을 제약하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기존 이사회 이사의 재선임 반대.</p> <p>채용비리 의혹은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되었으나,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은 장기간 걸친 조사 끝에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펀드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고 결론 짓고 조용병 전 회장과 진옥동 회장에게 경징계 처분했음. 해당 펀드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들 이 실질적으로 큰 손실을 봤고, 조용병 전 회장과 진옥동 회장이 당시 경영자로서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역할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p> <p>은행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산업이며, 국가 경제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책임지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넘어서 Best practice에 기반한 높은 거버넌스 기준을 부여해야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사회는 경영진 관리 감도하는 핵심 기구로서 그 책임과 역할이 중요함. 금융지주의 거버넌스에 더 높은 잣대를 부여하고자 조용병 전 회장과 이사회 활동 기간이 겹치고 진옥동 회장 선임 과정을 제약하지 않은 기존 이사들에 대해서도 재선임 반대 의견을 제시</p> <p>#재선임되는 이사들의 최초 선임일 2020년 3월, 윤재원, 2021년 3월, 배준, 이용국, 박수근 2022년 3월, 김조설 2023년 3월, 전사현</p>
거레소	신한지주	2025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후보 이용국	기타	590,777	0.117	590,777	<p>반대의견. 2019년에 판매되었고 2020년 대규모 손실을 가져왔던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조용병 회장이 금감원 정계(주)의 처분이 있었고, 2013년~2016년 부정정탁채용 관련 2018년 기소되어 1심 유죄 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에 신한지주 이사회 이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조용병 회장의 행동을 제약하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기존 이사회 이사의 재선임 반대.</p> <p>채용비리 의혹은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되었으나,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은 장기간 걸친 조사 끝에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펀드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고 결론 짓고 조용병 전 회장과 진옥동 회장에게 경징계 처분했음. 해당 펀드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들 이 실질적으로 큰 손실을 봤고, 조용병 전 회장과 진옥동 회장이 당시 경영자로서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역할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p> <p>은행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산업이며, 국가 경제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책임지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넘어서 Best practice에 기반한 높은 거버넌스 기준을 부여해야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사회는 경영진 관리 감도하는 핵심 기구로서 그 책임과 역할이 중요함. 금융지주의 거버넌스에 더 높은 잣대를 부여하고자 조용병 전 회장과 이사회 활동 기간이 겹치고 진옥동 회장 선임 과정을 제약하지 않은 기존 이사들에 대해서도 재선임 반대 의견을 제시</p> <p>#재선임되는 이사들의 최초 선임일 2020년 3월, 윤재원, 2021년 3월, 배준, 이용국, 박수근 2022년 3월, 김조설 2023년 3월, 전사현</p>
거레소	신한지주	20250326	임원보수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590,777	0.117	590,777	<p>반대의견. 2019년에 판매되었고 2020년 대규모 손실을 가져왔던 라임펀드 및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조용병 회장이 금감원 정계(주)의 처분이 있었고, 2013년~2016년 부정정탁채용 관련 2018년 기소되어 1심 유죄 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에 신한지주 이사회 이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조용병 회장의 행동을 제약하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기존 이사회 이사의 재선임 반대.</p> <p>채용비리 의혹은 2022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되었으나,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은 장기간 걸친 조사 끝에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펀드 상품을 불완전판매했다고 결론 짓고 조용병 전 회장과 진옥동 회장에게 경징계 처분했음. 해당 펀드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들 이 실질적으로 큰 손실을 봤고, 조용병 전 회장과 진옥동 회장이 당시 경영자로서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는 역할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p> <p>은행은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규제를 받는 산업이며, 국가 경제의 건전성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책임지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넘어서 Best practice에 기반한 높은 거버넌스 기준을 부여해야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사회는 경영진 관리 감도하는 핵심 기구로서 그 책임과 역할이 중요함. 금융지주의 거버넌스에 더 높은 잣대를 부여하고자 조용병 전 회장과 이사회 활동 기간이 겹치고 진옥동 회장 선임 과정을 제약하지 않은 기존 이사들에 대해서도 재선임 반대 의견을 제시</p> <p>#재선임되는 이사들의 최초 선임일 2020년 3월, 윤재원, 2021년 3월, 배준, 이용국, 박수근 2022년 3월, 김조설 2023년 3월, 전사현</p> <p>이사보수 한도액이 타 시중은행 대비 높은 수준은 아니고, 작년 대비 증액하지 않았으며 실제지급액은 절반 수준으로 합리적. 무리하게 낮게 설정된 경영진의 성과보수는 장기적으로 우수 인재들을 획득하는데 실패하여 주주가지에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 장기성과연동형 주식보수는 30,000주로 전년과 한도가 동일함</p>
거레소	엔씨소프트	20250326	결산 및 배당	제28기(FY2024)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배당 예정내용: 1주당 배당금 1,460원, 배당기준일 2025년 3월 24일	기타	67,090	0.306	67,090	<p>2024년 지급액 21억원 / 2023년 지급액 17억원</p> <p>1주당 배당금 1,460원. 배당성향 30% 는 유지하였으나, 부진한 실적으로 배당금은 23년 636억원에서 24년 283억원으로 감소.동사는 25년 2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공시. 향후 30%의 배당성향을 유지할 계획을 밝히며, 기보유 자사주 41만주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1.9%, 전체 보유 자사주의 18.8%에 해당)를 소각함. 나머지 자사주 177만주에 대해서는 회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힘.</p> <p>동사는 실적 부진으로 매년 배당금이 축소되고 있음. 자사주 소각 규모도 전체 자사주 규모를 감안하면, 회사의 주주가지 제고 의지가 의심될 만한 수준. 24년 800여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하며 비용효율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동시에 글로벌 RDI 센터 건립을 위한 5,800억의 투자계획 또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움. 회사측으로 부터 해당 건물이 동사의 수익성에 어떤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합리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였음.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주주에만 떠넘기는 행위라 판단함. 동사의 자본 활용에 대한 주주로서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재무제표 승인 인건을 반대함.1주당 배당금 1,460원. 배당성향 30% 는 유지하였으나, 부진한 실적으로 배당금은 23년 636억원에서 24년 283억원으로 감소.동사는 25년 2월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공시. 향후 30%의 배당성향을 유지할 계획을 밝히며, 기보유 자사주 41만주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1.9%, 전체 보유 자사주의 18.8%에 해당)를 소각함. 나머지 자사주 177만주에 대해서는 회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힘.</p> <p>동사는 실적 부진으로 매년 배당금이 축소되고 있음. 자사주 소각 규모도 전체 자사주 규모를 감안하면, 회사의 주주가지 제고 의지가 의심될 만한 수준. 24년 800여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하며 비용효율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동시에 글로벌 RDI 센터 건립을 위한 5,800억의 투자계획 또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납득하기 어려움. 회사측으로 부터 해당 건물이 동사의 수익성에 어떤 방향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합리적인 답변을 듣지 못하였음. 실적 악화에 대한 책임을 주주에만 떠넘기는 행위라 판단함. 동사의 자본 활용에 대한 주주로서의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재무제표 승인 인건을 반대함.</p>
거레소	엔씨소프트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청교화 선임의 건	기타	67,090	0.306	67,090	재선임 건. 테크 산업 현장 경험을 겸비한 법률가이자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서 회사 경영을 감독하는데 기여해줄, 재선임 의견 찬성.
거레소	엔씨소프트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이은화 선임의 건	기타	67,090	0.306	67,090	재무,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서, 재보임사안 RGA의 한국 country head로 재직 중. 향후 회계/재무 전문성은 물론, 글로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역할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함.
거레소	엔씨소프트	2025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청교화 선임의 건	기타	67,090	0.306	67,090	법원, 법무법인, IT 산업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거레소	엔씨소프트	20250326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이은화 선임의 건	기타	67,090	0.306	67,090	회계/재무,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서 감사위원회의 경영투명성과 전문성, 독립성제고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함.
거레소	엔씨소프트	20250326	임원보수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67,090	0.306	67,090	실적 부진을 이유로 이사 보수한도는 22년 200억에서 23년 150억으로 감소되었음. 24년에도 실적이 전년대비 부진했음을 감안하면, 동일할 논리로 보수한도가 감소되는 게 맞음. 보수한도와 실제 지급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편이나, 그럼에도 전년과 동일한 금액은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움. 반대의견.
코스닥	원익머트리얼즈	20250326	결산 및 배당	제19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배당 예정내용 : 보통주 1주당 현금 350원 배당	기타	201,457	1.598	201,457	<p>전장건의건, 24년 매출액 3,107억원(YoY -20.7%), 영업이익액 519억원(YoY 110.3%) 기록. 부진했던 메모리 협정에 따라서 고객사 가동률 하락의 부정적 영향을 받았음. 25년 하반기 가동률 상승을 예상하며 점진적인 실적회복세를 예상.</p> <p>24년 DPS는 350원으로 23년 DPS 150원 대비 상승. 24년도 실적이 23년대비 수익성이 상승하였고, 그에 따른 DPS 상승은 합리적으로 판단. 배당성향 13.8%로 전년과 동일하였고 배당수익률은 2.0%. 실적에 따라 확대된 주주지급정책은 일관적인 정책을 보유했다고 판단.</p>

코스닥	원익머트리얼즈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한정숙 선임의 건	기타	201,457	1,598	201,457			한성의건. 후보자는 16~18년 삼성전기 PLP 사업팀 제조팀장, 18년~22년 월익머트리얼즈 부사장, 22년부터 현재까지 월익머트리얼즈 대표이사 재직중.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소재분야 전문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책임자로 판단.
코스닥	원익머트리얼즈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황철성 선임의 건	기타	201,457	1,598	201,457			한성의건. 14~16년 서울대학교 반도체 공물연구조장, 19년~현재 한국 공학 한림원 회장, 20~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석좌교수로 재직중. 재료 공학부 교수로 오랜기간 연구하여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산아의 전문적인 소재 발굴 및 개발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이사회의 중요 결정에 있어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지속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
코스닥	원익머트리얼즈	20250326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201,457	1,598		201,457		사외이사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이 가능하며, 객관적이고 유용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
코스닥	원익머트리얼즈	20250326	임원보수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201,457	1,598	201,457			반대의견. 제안된 이사보수한도는 5,000백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고 이사의 수도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1명으로 동일. 지급된 보수총액은 1,370백만원으로 한도에 미치지못하는 수준이지만 시장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판단. 평균을 상회하는 이사보수한도를 제안한 사유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반대의견.
거레소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20250326	결산 및 배당	제13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개산서 포함) 및 연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현금 배당 예정 내용: 보통주 1주당 2,000원	기타	101,282	0.082	101,282			한성의건. 제안된 감사보수한도는 전년과 동일한 300백만원. 감사 수도 동일. 지급된 보수총액은 36백만원으로 한도에 미치지 못하고, 시장평균 수준으로 제안된 감사보수한도는 적절하다고 판단.
거레소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20250326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위원회 명칭 변경의 건(지속가능경영위원회 → 경영위원회)	기타	101,282	0.082	101,282			한성의건. 감사보고서 제출 전 제13기 보통주 1주당 배당금 2000원은 전기 대비 제 12기 보통주 1주당 배당금 1300원은 전기 대비 62.5% 증가한 금액. 제13기 배당성장 33%로 전기 배당성장 23% 대비 상향되어 2개년 연속 배당 성장 상황임. 동사의 실적은 원재료 가격 하락에 따라 영업이익 개선되었으나 한은시스템 인수 관련 비용이 영업외에서 반영됨에 따라 전기 대비 당기순이익은 3.3% 증가하였음.
거레소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20250326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중간배당 도입의 건	기타	101,282	0.082	101,282			한성의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 없음. 이사회에서 위임한 경영 일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하는 경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반영.
거레소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20250326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부칙(2025.03.26)	기타	101,282	0.082	101,282			한성의건. 중간배당 관련 내용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주식 배당 기준일 역시 사전 공고를 명문화 함에따라 주주들의 배당관련 예측 가능성 높아짐.
거레소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20250326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부칙(2025.03.26)	기타	101,282	0.082	101,282			한성의건. 변경된 정관 사항에 관한 단순 부칙. 주주 이익에 반하는 내용 없음.
거레소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이상훈 선임의 건	기타	101,282	0.082	101,282			한성의건. 유럽, 중국 등 글로벌 핵심 시장에서 분부장을 역임하며 해당 지역 매출 성장에 크게 기여한 이력이 있음. 재직기간 중 14년 이상을 중국과 유럽에서 보냈으며, 특히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의 유럽 관련 마케팅 강화 및 시장분석을 통해 유럽 내 M5 확대에 기여한 이력이 있음.
거레소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안종선 선임의 건	기타	101,282	0.082	101,282			이 사장은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북미 공장 증설 이후 생산 안정화는 물론 해외 영업과 물류 비용 상승 등 여러 리스크에 대응한 사업 운영을 책임질 것으로 예상.
거레소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안종선 선임의 건	기타	101,282	0.082	101,282			한성의건. 2021년 4월부터 한국엔컴퍼니 경영총괄사장, 2022년 3월부터 대표이사로서 그를 전반의 전략과 신장상을 위한 미래 로드맵을 구성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ES(Energy Solution) 사업본부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사업형 지주회사로 정착하는 데 기여.
거레소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박정수 선임의 건	기타	101,282	0.082	101,282			24년부터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사장으로 부임하였으며, 제24기 대표이사로서 선임시 이상훈 후보와 공동대표 체제로 경영에 기여할 계획.
거레소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20250326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101,282	0.082	101,282			한성의건. '24년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재무회계부분장 전무로 부임한 이후 제 13기 실적 개선과 더불어 현금 배당성장 상황, 3개년 주주환원 로드맵 공유, 제14기 중간배당 도입 계획 등 주주환원 관련 정책을 강화되는모습.
거레소	효성ITX	20250326	결산 및 배당	제28기(2024.1.1 ~ 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개산서 (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143,355	1.24	143,355			한성의건. 실적 개선 및 이사의 주 1인 증가에도 보수 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전기와 같은 80억으로 동일함.
거레소	효성ITX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남경환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기타	143,355	1.24	143,355			동사는 2024년 매출 5,064억, 영업이익 187억, 지배순이익 118억을 기록. '강감까지'는 'Yoy로 비슷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기타 비용의 증가로, 지배순이익은 전년대비 19% 감소.
거레소	효성ITX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황용언 사내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기타	143,355	1.24	143,355			동사는 분기 배당을 실시함으로써, 주주들에게 더 빈번하고 예측가능한 현금흐름을 제공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 FY24 기간동안 집행된 DPS는 총 750원으로, 전년과 동일. 배당성장률은 76% (전년 61.3%)수준이고, 배당수익률로는 6.3% 수준임. 지배순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규모를 유지한 것은 동사의 주주환원 의지가 확고함을 연분수 있음을 시사하며, 안정화되는 동사의 재무이사로써, 91년 효성물산에 입사해 35년째 효성 그룹에 재직하고 있음. 2009년에 처음으로 효성 ITX에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연임하고 있음. 동사가 매출 전액에서의 중형 IT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경영을 주도지휘한 인물임. 회사 및 경영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극히 높은 인사라고 판단함. 한성의건.
거레소	효성ITX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박성준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기타	143,355	1.24	143,355			주 효성의 전략본부장으로서 경영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함과 동시에 ESG 경영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임. 황용언씨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스펀덱스 부문장을 역임하며, 베트남과 중국에서의 생산시설 증설을 주도하였는데, 이를 통해 효성이 스펀덱스 본야 글로벌 1위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임. 그룹내에서의 성과를 반추해 볼때, 효성 ITX의 사내이사로서, 동사의 경영자문 업무에 적임자로 평가. 한성의건.
거레소	효성ITX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박성혁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기타	143,355	1.24	143,355			마인즈랩, 퍼스트 게이트 등 지솔루션 업체 대표이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AI/CT/로봇/바이오/친환경/신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중심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한 바 있음.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IT사업 및 경영전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성의건.
거레소	효성ITX	20250326	이사의 선임 및 해임	박성혁 사외이사 후보자 선임의 건	기타	143,355	1.24	143,355			카이스터 경영공학 박사 및 LG CNS 자문고수로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야의 전문가임. 레코백(개인화 추천 서비스 기업) 창업, 두나무엔 파트너스 벤처투자, 더블유진전 코리아 CTO, 인팩트아이 대표이사 를 역임하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IT기반 비즈니스 혁신을 이룩한 경험을 갖고 있음.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IT 사업 및 경영전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성의건.
거레소	효성ITX	20250326	임원보수	제29기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기타	143,355	1.24	143,355			전년과 이사 보수한도가 동일. 이는 기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임. 회사가 안정적인 실적과 함께, 주주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볼수 있음. 이사보수한도 금액 자체도 동종업계대비 높은편이 아니고 동시에, 실제 지급액과도 차이가 있음. 회사가 성과에 따른 변동보수를 고려하고 있거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한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수 있음. 한성의건.
거레소	효성ITX	20250326	임원보수	제29기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기타	143,355	1.24	143,355			전년과 감사 보수한도가 동일. 이는 기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임. 회사가 안정적인 실적과 함께, 주주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볼수 있음. 이사보수한도 금액 자체도 동종업계대비 높은편이 아니고 동시에, 실제 지급액과도 차이가 있음. 회사가 성과에 따른 변동보수를 고려하고 있거나,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한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수 있음. 종합하여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며, 동시에 비용효율성과 주주이익도 고려하는 보수한도라고 판단함. 한성의건.
거레소	HD현대	20250327	결산 및 배당	제87기(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233,063	0.295	233,063			한성의건. 감사보고서 3/17 제출 확인.
거레소	HD현대	20250327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사외이사 이지수)	기타	233,063	0.295	233,063			제 87기 주당 배당금 3,600원으로 전년도 3,700원 대비 감소. 배당성장률은 13.2%로 전년도 33.3%대비 하락. 24년도 순이익은 1,93조원으로 전년도 7,858억원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배당수익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오일뱅크의 실적은 전년대비 부진하였고, 회사는 증가적으로 차입금 축소를 최우선순위의 과제로 두고 있어 주당 배당금이 소폭 감소하였음. 하지만 감소폭이 미미하고, 매 분기 900원씩 정액으로 분기배당을 시행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하여 찬성의견.
거레소	HD현대	20250327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사외이사 이지수)	기타	233,063	0.295	233,063			전년의건. 후보자는 법률가로서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주 전체 및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적법하고 윤리적인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후보자를 포함한 이사회의 총 인원수는 5명이고 이중 사외이사 비중은 60%로 과반을 상회함으로써 이사회는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거레소	HD현대	20250327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233,063	0.295	233,063			한성의건. 후보자는 법률가로서 전문성을 활용하여 주주 전체 및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감독기능을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후보자를 포함한 이사회의 총 인원수는 5명이고 이중 사외이사 비중은 60%로 과반을 상회하므로 이사회는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
거레소	SK하이닉스	20250327	결산 및 배당	제77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315,785	0.043	315,785			반대의견. 제안된 보수 한도는 시장 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전년대비보다도 48%나 증가한 금액임에도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보수한도를 상향할 만한 적절한 이유를 주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233,063		한성의건. 24년 DPS는 2,204원으로 23년 DPS 1,200원대비 큰 폭 증가. 24년도 실적은 23년 실적대비 큰 폭 증가하였음. 25~27년 주주환원정책을 공시하면서 주주환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소통을 시행하고 있음. 3년간 FCF의 50% 수준을 주주환원정책의 총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공시하였음. 찬성의견.

거레소	SK하이닉스	20250327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선임의 건(후보: 궤노정)	기타	315,785	0.043	315,785			전성익건. 현재 SK하이닉스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 오랜시간동안 축적한 반도체 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HBM 기술 경쟁력 선두업체로 위상 강화를 주도하고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 향후에도 기술경쟁력을 통한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
거레소	SK하이닉스	20250327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후보: 한명진)	기타	315,785	0.043	315,785			전성익건. SK텔레콤에서 글로벌사업개발 본부장 및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등을 역임. CSO 경험과 투자, 사업개발 전문 역량을 기반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투자 영역의 풍부한 경험을 갖춘 투자전문가로 회사 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
거레소	SK하이닉스	20250327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315,785	0.043	315,785			전성익건. 이사회의 규모를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5명으로 기존 이사회 10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고, 보수한도를 20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감소시킨 제시. 24년 경영성과는 23년때로 큰 폭으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보수한도는 과하지 않다고 판단
거레소	대상	20250327	결산 및 배당	제71기(2024.01.01 ~ 2024.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276,576	0.798	276,576			전성익건. 영업이익이 1781억원으로 YoY 43.9% 증가, 매출은 4조2551억원으로 YoY 3.6% 증가. 24년 소비자 니즈 및 온라인 변화 대응 (불황으로 글로벌 내수 수요증가)을 통해 식품 매출과 손익을 늘린 게 주요. 간편 편의식, 소스 등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이력단에서는 알뜰로스 등 전분당 스페셜티 사업을 확대한 게 수익성 증대에 기여했으며, 바이오 사업 시황이 개선된 가운데 라이신 수요 증가와 판매 가격 상승 덕을 봤음  24년 이익개선세마라 DPS는 보통주 기준 850원으로 23년 800원대비 증가. 배당 성향은 30%대로 유지. 이익증가분이 주주환원 확대에 이어짐
거레소	대상	20250327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이등원 선임의 건	기타	276,576	0.798	276,576			전성익건. 후보자의 결격사유 없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경력과 전문지식 보유했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거레소	대상	20250327	임원보수	임원보수관리규정 일부 변경의 건	기타	276,576	0.798	276,576			주요 해외 법인인 PT DAESANG INGREDIENTS INDONESIA에서의 경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및 해외 사업에 대한 전략기획,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다수의 전략기획 업무를 통해 회사의 비전과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음
거레소	대상	20250327	임원보수	임원보수관리규정 일부 변경의 건	기타	276,576	0.798	276,576			전성익건. 임원보수관리 규정 내 비동기 임원 보수 한도 규정 삭제 (기존 동기임원의 2배 규정 삭제). 24년 비동기 임원 48명에 지급된 총 보수는 총 100억원, 인당 약 2억 규모. 반면, 동기임원 총 7명에 24년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14억 (인당 2억). 이처럼 동기이사와 비동기이사의 실제 인당 보수는 비슷한 수준으로, 2배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 해당 규정 삭제로 인한 큰 주주이익 침해 없음
거레소	대상	20250327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276,576	0.798	276,576			전성익건. 이사의 보수한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 실 지급액은 업계 평균 (2억대) 수준.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이 없는 수준의 보수한도로 판단 되므로 찬성
코스닥	와이슬	20250327	결산 및 배당	제1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304,537	1.101	304,537			전성익건, 감사보고서 제출 완료(25년 3월 17일) 제17기 보통주 1주당 배당금 500원은 전기 250원 대비 100% 증가한 금액. 제17기 배당성향은 125.8%로 전기 배당성향 52.4% 대비 상향됨. 동사의 실적은 전방 5G 관련 부품 출하 둔화, 모듈 비용 확대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영업이익이 96.6% 감소하였으나 금융비용 감소, 투자손익 개선 등 영향으로 당기순이익은 -16.7% 감소하는 데 그침
코스닥	와이슬	20250327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1명(김지호)	기타	304,537	1.101	304,537			전성익건. 사내이사 김지호 후보는 2022년부터 와이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통신산업 사업 특성상 신규 통신 세대 도입 전후 실적 등락이 큰 편으로 부임 이후 실적 등락은 존재 했으나 이른 시간 내에 안정적인 실적 턴어라운드와 꾸준한 주주환원 확대 의지 버짐
코스닥	와이슬	20250327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 선임의 건 → 감사 1명(김종범)	기타	304,537	1.101	304,537			전성익건  감사 후보자 김종범은 2022년 와이슬의 감사로 부임한 이후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 다년간의 CFO, COO 등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보여짐
코스닥	와이슬	20250327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304,537	1.101	304,537			찬성 의견  이사 보수 한도 축소의 건으로 이사의 수는 동일한 가운데 총 보수한도액을 10억원 가량 감소시키는 안건. 주주 이익에 침해되는 내용 없음
코스닥	와이슬	20250327	임원보수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304,537	1.101	304,537			찬성 의견, 감사의 수는 변화 없이 1인이며 이에 대한 보수 총액 또는 최고한도액이 전기와 같은 2억원으로 동일함
거레소	쿠쿠홈시스	20250327	결산 및 배당	제8기 별도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기타	243,492	1.085	243,492			2024년 연결기준 영업이익 1,648억원, 순이익 1,312억원으로 2023년대비 각각 25%, 19%증가. 2024년 DPS는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00원 증가. 배당성향은 15.5%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  2024년 국내 연탈 판매 개정 증가 및 일시물 판매 증가, 말레이시아 사업에서의 실적 증가가 전사의 실적을 견인하였음.
거레소	쿠쿠홈시스	20250327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건 (사업확장 및 신규시장 진입을 위한 것으로 회사의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함)	기타	243,492	1.085	243,492			다만, 최근 실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배당성향은 15% 대에 머물고 있어 보수적인 상황. 동종업계 유사회사인 코웨이와 비교시 25년부터 코웨이는 총주주환원율을 기존 20%에서 40% 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비교가 됨. 또한 쿠쿠홈시스는 순현금 837억원으로 코웨이가 순자금융 상황인데 비해 안정적인 재무 상황을 가지고 있으며 현금흐름 또한 매년 안정적으로 충분히 주주환원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함.  배당 이외 리스크 관리 방안 등도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동의함
거레소	쿠쿠홈시스	20250327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243,492	1.085	243,492			찬성 의견 정관 변경의 목적은 사업확장 및 신규시장 진입을 위한 것으로 회사의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의함.  25년 보수 최고 한도액은 전년과 동일한 15억원. 다만, 지급된 보수총액이 전년 4.1억원에서 4.3억원으로 증가한 이유는 사외이사들의 월 임금(50만원)이 증가하여 연간으로 0.2억원 상향됨. 사내이사의 임금은 전년과 동일하고 사외이사 임금만이 상향하고 회사의 실적 성장성과 안정성을 감안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함. 또한 동종업계 회사인 코웨이의 이사보수 한도가 55억원, 이사 9명이므로 인당 약 6억원인데 비해 쿠쿠홈시스의 이사 1인당 보수한도는 약 1.1억원으로 더 낮은 수준으로 현재 0.2억원의 상황은 무방하다고 생각함. 찬성 의견. 현금배당 200원으로 24년 이익 성장률보다 높은 배당인상률을 보이며 배당성향을 확대. 향후 주주환원 계획에 대해서는 공유되지 않고 있으나 4년 연속 주주환원율을 높여가는 점 긍정적.
코스닥	성광벤드	20250328	결산 및 배당	제45기(2024.01.01~2024.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282,596	1.012	282,596			찬성 의견. 현금배당 200원으로서 24년 이익 성장률보다 높은 배당인상률을 보이며 배당성향을 확대. 향후 주주환원 계획에 대해서는 공유되지 않고 있으나 4년 연속 주주환원율을 높여가는 점 긍정적.
코스닥	성광벤드	20250328	결산 및 배당	제45기(2024.01.01~2024.12.31) 이익배당의 건 *예정배당금 총액 : 5,311,472,800원 *현금배당 : 배당주식수 26,557,364주 (주당 200원)	기타	282,596	1.012	282,596			찬성 의견. 현금배당 200원으로서 24년 이익 성장률보다 높은 배당인상률을 보이며 배당성향을 확대. 향후 주주환원 계획에 대해서는 공유되지 않고 있으나 4년 연속 주주환원율을 높여가는 점 긍정적.
코스닥	성광벤드	20250328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분기배당 기준일에 대해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 반영)	기타	282,596	1.012	282,596			찬성 의견.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을 명시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기 배당 기준일을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 또한 분기 배당시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설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문제 없다고 판단.
코스닥	성광벤드	2025032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김재호 선임의 건	기타	282,596	1.012	282,596			찬성 의견. 후보자는 91년부터 부산은행의 기업금융과 여신분야를 거친 재무전문가로서 금융권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리스크 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해 재무전문성이 요구되는 각종 안전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코스닥	성광벤드	20250328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상근감사 주현삼 선임의 건	기타	282,596	1.012	282,596			찬성 의견. 후보자는 성광벤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타회사에서도 관리, CFO경력과 이후에는 본인이 직접 회사 경영을 해온 경험이 풍부한 회계 및 재무전문가로서 기업감사와 세무, 재무 및 건설팀 등 회사의 투명성과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
코스닥	성광벤드	20250328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282,596	1.012	282,596			찬성 의견. 이사의 보수한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 실지금액은 13억원으로 시장 기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
코스닥	성광벤드	20250328	임원보수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282,596	1.012	282,596			찬성 의견. 감사의 보수한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 실지금액은 2,400만원으로 시장 기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수준.
코스닥	원스	20250328	결산 및 배당	제14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주당 현금배당 예정액 : 800원)	기타	288,815	2.352	288,815			동사는 2024년 매출 1,015억, 영업이익 204억, 지배순이익 198억을 기록, 영업이익률은 11.8%, 지배순이익률은 6.3% 감소하였음. 그러나 주당 현금배당 예정액 800원으로 전년도 500원에 비해 60% 성장 되었는데, 이는 배당성향이 기존 30%에서 44.5%로 증가한데에 기인함. DPS 800원은 배당 수익률 7.3%로 매우 우수한 수준임. 지배순이익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규모를 유지한 것은, 동사의 주주환원 의지가 확고함을 엿볼 수 있음. 찬성 의견.
코스닥	원스	2025032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박기담 선임의 건	기타	288,815	2.352	288,815			박기담씨는 원스의 부사장이자 CTO로서 정보보안 전문기업 원스에서 사람과 기술을 총괄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 클라우드/ MSP (Managed Service Provider) 사업의 연구개발, 기술, 솔루션, 서비스, 해외사업 및 전략 물자 관리를 맡고 있음. 현재까지 사람과 기획 분야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고,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향후에도 회사가 지향하는 사업확장과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코스닥	원스	20250328	임원보수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288,815	2.352	288,815	전년과 이사 보수한도가 동일, 그러나 실제 지급액이 153억으로 통총 업계 대비 많다고 생각함. 예를들어 동종업계인 NHN KCP의 경우, 24년 매출 1,105억, 영업이익 438억, 지배순이익 452억으로, 동사보다 두 배 이상의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실제 지급액은 99억원에 불과함. 성과에 걸맞는 금액으로 보수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반대 의견
코스닥	원스	20250328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상호변경, 주식소각 한도개정, 이사 수 상한을 9인 이내로 설정)	기타	288,815	2.352	288,815	정관 변경 사항은 상호 변경과, 주식소각 한도 개정 (현재 발행 주식수의 10%에서 무제한으로), 이사 수 상한을 9인 이내로 설정하는 것. 동사는 현재도 136 여만주 (현재 발행 주식 수의 9.8%)를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음. 여기서 자기 주식 소각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은 동사가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줌. 상당히 주주친화적인 결정. 또한 이사수에 제한을 두는 것 또한 주주친화적인 결정임. 이사 수 증가로 인한 비효율성 증가와, 이사 개개인의 의견이 희석되어 특정 주주나 그룹에 유리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판단함. 찬성 의견
코스닥	티씨케이	20250328	결산 및 배당	제30기(2024년1월1일~2024년12월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포함, 현금배당 : 1,410원/주)	기타	66,053	0.566	66,053	24년 매출액 2,757억원(yoy 21.6%), 영업이익 807억원(yoy 21%)기록하였음. 내구성 높은 소모성 부품인 SIC의 적용성 확대. NAND형 매출비중은 65% 수준. V9, V10 으로 고단화에 대한 전담투자에 대한 수혜 가능. 25년 하반기 IT 세트들의 수요 회복이 예상. 전방 고객사의 가동률과 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수혜업체로 점진적인 실적 회복세 예상
코스닥	티씨케이	2025032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신 히데오 선임의 건(재선임)	기타	66,053	0.566	66,053	24년 DPS는 1,410원으로 23년 DPS 1,200원대비 증가. 배당성향은 23%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고 배당수익률은 2.0%. 24년도 실적은 실적수준 증가세였고, 이에 따른 PBR 상승으로 주주친화적임을 지시
코스닥	티씨케이	2025032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오창민 선임의 건(재선임)	기타	66,053	0.566	66,053	찬성 의견, 후보자는 13년부터 도카이카본에 재직하며, 17-19년 도카이카본 탄노우라 공장장, 20-현재 도카이카본 탄노우라 사업부장, 22년-현재까지 티씨케이 대표이사 회장으로 재직중. 현재까지의 경영 노하우를 비롯하여 회사 및 경영환경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필요한 도움과 회사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으로 판단
코스닥	티씨케이	2025032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사토오 아키히코 선임의 건(재선임)	기타	66,053	0.566	66,053	찬성 의견, 15-20년 삼성전자 상무, 20-23년 삼성전자재판 대표이사, 24-현재까지 티씨케이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재직중. 동종업계 오랜 경험을 가진 전문경영인으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해와 삼성전자재판의 대표이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업력 강화 및 경영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할 것.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
코스닥	티씨케이	2025032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사토오 아키히코 선임의 건(재선임)	기타	66,053	0.566	66,053	찬성 의견, 10-18년 JA(사이스리쓰) 경리부장, 18-21년 도카이카본 재무관리부장, 21-23년 도카이카본 집행인원, 23년-현재 도카이카본 경영기획부 관장 겸 경영기획부장으로 재직중. 도카이카본에서 경영전환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보유. 회사의 효율성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하고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
코스닥	티씨케이	2025032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미야자키 아츠시 선임의 건(신규선임)	기타	66,053	0.566	66,053	찬성 의견, 13-20년 도카이카본 경영기획실 차장, 20-24년 카본블록협회 전무이사 재직중. 경영전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경영전환의 의사결정에 조언과 적절한 견제기 가능한 후보자로 판단
코스닥	티씨케이	20250328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상근감사 이정훈 선임의 건(재선임)	기타	66,053	0.566	66,053	찬성 의견, 이정훈 감사 후보자는 15년 제이엘 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를 거쳐, 17-19년 엘오티배금 감사, 19-현재까지 티씨케이 감사로 재직중. 감사업무에 대한 경험과 티씨케이의 경영상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및 준법감시 등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회사발전에 기여할 책임자로 판단
코스닥	티씨케이	20250328	임원보수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66,053	0.566	66,053	찬성 의견, 이사회의 규약은 사내이사3명, 사외이사 1명으로 전년과 동일. 재연된 이사보수한도에 전년과 동일한 수준. 지급된 보수는 745백만원으로 한도에 미치지 못하고, 시장평균과 비교하여 제안된 보수한도는 합리적이라고 판단
코스닥	티씨케이	20250328	임원보수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66,053	0.566	66,053	찬성 의견, 감사의 수와 재연된 감사 보수한도에 전년과 동일. 지급된 보수총액은 85백만원으로 보수한도에 미치지 못함. 재연된 감사 보수한도는 시장평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된 보수한도는 과하지 않다고 판단
거래소	한국금융지주	20250328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추가 및 이사회내 위원회 신설, 분기배당 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변경)	기타	218,238	0.392	218,238	1.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 추가 및 이사회내 위원회 신설, 본 정관 변경을 통해 기존 이사회내 운영중인 위원회에 내부통제 위원회 신설 및 내부통제관련 절차 강화, 주주권익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찬성 의견
거래소	한국금융지주	20250328	자본구조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기타	218,238	0.392	218,238	2.주주익 배당에측 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보기배당 기준일을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변경. 주주권익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찬성 의견
거래소	한국금융지주	20250328	자본구조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기타	218,238	0.392	218,238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내용인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주총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를 근거로 하여 자본준비금(4232.3억원 규모)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건. 배당재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주주친화적이며, 개인주주의 경우 비과세 배당을 통해 원금징수 15.4%를 납부하지 않고 배당금 100%를 수령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주식에 투자한 이익을 유급할 경우 배당금 수령에 필요한 적합한 성격과 전문지식 보유했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거래소	한국금융지주	2025032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김희재	기타	218,238	0.392	218,238	후보자는 주주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성격과 전문지식 보유했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거래소	한국금융지주	2025032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지영조	기타	218,238	0.392	218,238	후보자는 주주개선에 적극적이며, 금융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성격과 전문지식 보유했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거래소	한국금융지주	2025032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이성규	기타	218,238	0.392	218,238	후보자는 배스토포타닉스 경영자로 부문대표로 재직 중이며, 연합자산관리(UAMCO) 대표이사를 역임.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영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보유
거래소	한국금융지주	2025032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선임의 건 - 백영재	기타	218,238	0.392	218,238	찬성 의견, 후보자의 결격사유 없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합한 성격과 전문지식 보유했다고 판단되므로 찬성
거래소	한국금융지주	20250328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최수미	기타	218,238	0.392	218,238	후보자는 배스토포타닉스 경영학 박사로서 연합자산 관리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회계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
거래소	한국금융지주	20250328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지영조	기타	218,238	0.392	218,238	후보자는 현대자동차 고문으로 재직 중이며, 삼성전자 마케팅 및 기획 분야, 현대자동차 전략 기술 및 이노베이션 담당 사장을 역임. 주로 신사업 관련 전략 업무에서 성과를 보여줌. 한국금융지주의 사외이사로서 신사업관련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
거래소	한국금융지주	20250328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218,238	0.392	218,238	찬성 의견, 이사 보수한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50억. 인당지급액은 업계 평균 (약 5억) 대비 7억으로 소폭 높은 수준이나 적정수준. 전년 총지급액 25.1억도 한도 50억대비 적정수준.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이 없는 수준의 보수한도로 판단되므로 찬성
거래소	한국금융지주	20250328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의 건 - 이성규	기타	218,238	0.392	218,238	후보자는 배스토포타닉스 경영자로 부문대표로 재직 중이며, 연합자산관리(UAMCO) 대표이사를 역임. 사외이사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금융, 경영 등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보유
거래소	한국금융지주	20250328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218,238	0.392	218,238	감사위원으로서는 하나금융지주 전략/재무기획 부사장/CFO 이혁 및 UAMCO 대표이사 이혁을 미루어버려, 금융 및 재무 전문가로서 감사업무를 원활히 할 것으로 기대
거래소	한국금융지주	20250328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218,238	0.392	218,238	찬성 의견, 이사의 보수한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50억. 인당지급액은 업계 평균 (약 5억) 대비 7억으로 소폭 높은 수준이나 적정수준. 전년 총지급액 25.1억도 한도 50억대비 적정수준. 기업가치 훼손 가능성이 없는 수준의 보수한도로 판단되므로 찬성

거래소	한국철강	20250328	결산 및 배당	제1호 의안 : 제17기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 의 건 ※1주의 배당금 800원	기타	14,041	0.033	14,041			<p>잔성의견.</p> <p>제 17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제출 3월 20일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제출 예정 제 17기 주당 총 배당금 : 800원으로 적절 (2024년 절근 시황 악세로 배당성향 113%) 제 16기 주당 총 배당금 : 400원 (배당성향 22.8%)</p> <p>동사는 대표 내수 철근업체로 건설사이클과 동행하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음. 2024년은 역대 최악의 건설환경에 따라 영업이익이 전년 865억원에 서 18억으로 대폭 축소되었지만, 4천억원이 넘는 현금/단기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어서 금융수익으로 2024년 184억을 수취했음. 배당금을 늘리 는데 전혀 무리가 없으며, 회사의 장기 CAPEX를 고려해도 현금에 많은 상황으로 실적 악세에도 배당 증액에 합리적으로 판단됨</p>
거래소	한국철강	20250328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사업목적 변경 및 운구 조정	기타	14,041	0.033	14,041			<p>잔성의견.</p> <p>정관상 사업목적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변경사항이 미미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에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주주가 치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p>
거래소	한국철강	20250328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중간배당제 신설	기타	14,041	0.033	14,041			<p>잔성의견.</p> <p>결산배당만 정관에 준비되어 있어 중간배당에 관련하여 정관을 조항을 마련하는 것. 상법개정에 따라 이사의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조항이 신설되었음</p>
거래소	한국철강	2025032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문종민 (사내이사)	기타	14,041	0.033	14,041			<p>잔성의견.</p> <p>후보자는 2018년부터 한국철강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지속 가능한 성장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음. 중대재해법 등 경영 환경의 변화와 규제 강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후보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확립하고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수준을 개선시켜왔음. 후보 자 재임기간의 한국철강의 DPS가 2021년부터 250원, 300원, 400원, 800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어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온 것으로 판단됨. 이런 성과를 기반으로 후보자를 이사회 사내이사로 선임하면 주주친화적인 정책활동을 지속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p>
거래소	한국철강	2025032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이수하 (사내이사)	기타	14,041	0.033	14,041			<p>잔성의견.</p> <p>후보자는 한국철강에서 수십년간 재직하면서 다방면에서 경험을 쌓아온 철강 전문가임. 공장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원자재 조달 및 공급 및 관리를 최적화하는 데 기여해 왔고, 한국철강의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근산업의 핵심 경쟁력은 철근 생산과 및 원자재 조달 부문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원가경쟁력을 상승시켜 지속적인 성장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 할것으로 판단됨. 향후에도 한국철강 이사회의 이사로서, 이사회 내에서 한국철강의 장기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p>
거래소	한국철강	2025032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이병재 (사내이사)	기타	14,041	0.033	14,041			<p>잔성의견.</p> <p>후보자는 한국철강의 전략기획 담당 임원으로,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음. 내수 시장에서의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되며, 회사의 높은 현금보유를 활용하여 미래 지향적인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시기 임. 이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갖춘 인자로 판단되. 후보자는 중장기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 하는 데 기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장 변화와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음. 후보자가 한국 철강의 이사회에 합류하면, 전략적 성장 및 효율성에 기반한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재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p>
거래소	한국철강	2025032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김중명 (사외이사)	기타	14,041	0.033	14,041			<p>잔성의견.</p> <p>두산중공업 부사장을 역임한 이력을 보유한 후보자는 오랜 기간 다양한 기업에서 경영을 수행하며 축적한 폭넓은 경험과 깊이 있는 경영 판단 능 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복잡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온 바 있으며, 이 를 바탕으로 한국철강의 경영진에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또한, 후보자의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김중명 후보자가 이사회 멤버로서 회사의 경영 안정 성과, 주주 가치를 증대하는 데 귀중한 조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p>
거래소	한국철강	20250328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 선임의 건 (후보자 : 김중명)	기타	14,041	0.033	14,041			<p>잔성의견.</p> <p>두산중공업 부사장을 역임한 이력을 보유한 후보자는 오랜 기간 다양한 기업에서 경영을 수행하며 축적한 폭넓은 경험과 깊이 있는 경영 판단 능 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복잡한 경영 환경 속에서도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온 바 있으며, 이 를 바탕으로 한국철강의 경영진에 균형 잡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또한, 후보자의 탁월한 역량을 바탕으로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김중명 후보자가 감사위원으로 선임되면, 기업 경영 의 세부사항을 이해하는 감사위원으로서 다양한 측면에서 리스크를 검토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진에게 독립적인 조언과 적절한 감 사 활동을 기대함</p>
거래소	한국철강	2025032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후보자 : 노건호)	기타	14,041	0.033	14,041			<p>잔성의견.</p> <p>후보자는 기업 경영과 재무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전문가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신중한 판단력을 갖춘 것으로 보여짐. 특 히, 기업 운영의 효율성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이사회 내에서 중요한 자문 역 할을 수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독립적인 시각과 객관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검토하고, 경영진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견제와 지원을 균형 있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후보자가 감사위원으로서 경영진에게 독립적인 조언과 적절한 감 사 활동을 기대함</p>
거래소	한국철강	20250328	임원보수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30억원)	기타	14,041	0.033	14,041			<p>잔성의견.</p> <p>이사의 보수한도가 전년과 동일한 30억으로 유지되었고, 2024년 실제 지급액은 사내이사 4명 16억원, 사외이사 3명 1억원으로 회사의 규모와 경 영실적을 보았을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p>
거래소	케이티	20250331	결산 및 배당	제4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353,676	0.14	353,676			<p>잔성의견. 기존 주당배당금액이 올해 주당순이익을 넘어서는 상황에서도 주당배당금액의 인상을 결정했음. 2028년까지 누적 1조원 규모의 자사 주 매입 및 소각에 나선다는 방침이며 이에 따라 올해 8월까지 약 25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 및 소각을 진행하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에 적극 나섬 예정. 주주환원외지가 확실한 것으로 판단.</p>
거래소	케이티	20250331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분기배당 배당기준일 변경	기타	353,676	0.14	353,676			<p>잔성의견. 투자자가 분기배당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분기배당절차가 개선. 금융시장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연간 재권 발 행한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발행한도 내 구체적인 재권 종류 및 금액 등의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정관변경.</p>
거래소	케이티	20250331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회사재 발행 의결 방식 변경	기타	353,676	0.14	353,676			<p>잔성의견. 투자자가 분기배당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분기배당절차가 개선. 금융시장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연간 재권 발 행한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발행한도 내 구체적인 재권 종류 및 금액 등의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정관변경.</p>
거래소	케이티	2025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4명) - 사외이사 후보 권욱영	기타	353,676	0.14	353,676			<p>잔성의견. 후보자는 LG전자, 현대자동차에서 이동통신 단말기, 네트워크 장비 및 커넥티드 장비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성공경험을 갖춘 ICT 분야 전문가로 2023년 6월부터 KT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기업의 Risk Management에 대한 기여활동을 하였음. 앞으로도 ICT 전문가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p>
거래소	케이티	2025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4명) - 사외이사 후보 김성철	기타	353,676	0.14	353,676			<p>잔성의견. 후보자는 기업, 정부 경험이 많은 리스크/규제 분야 전문가로서 ICT 산업의 시장 변화, 통신 사업 전략, 정부 규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 해 실증적 연구를 수행해왔음. 국내외 정부와 업계에 ICT 비즈니스 생태계 변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 2023년 6월부 터는 KT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KT의 혁신과 전략적 방향 설정에 기여. 후보자는 앞으로는 앞으로 회사의 전략 방향 수립과 리스크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p>
거래소	케이티	2025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4명) - 사외이사 후보 이승훈	기타	353,676	0.14	353,676			<p>잔성의견. 후보자는 UBS, JP모건 한국 리서치센터장을 역임하며 (NISK)의 M&amp;A총괄 부문장을 역임하고 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주도하 며 성과를 인정받은 재무 전문가. 2023년 6월부터 KT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금융시장 분석,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KT의 투자 담당장, 재무관점의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임기동안 KT 기업가치 증 대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p>
거래소	케이티	2025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4명) - 사외이사 후보 김용현	기타	353,676	0.14	353,676			<p>잔성의견. 후보자는 대전지방법정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 또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아사아 헌법재판소연합 사무처장 등을 역임하며 조직운영과 이해관계 조정에도 역할을 겸종받았으나 상법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으로써의 관계가 끝난지 2년이 지난 후에 사외이사로 선 임될 수 있음. 후보자는 KT의 법무법인인 대륙아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KT와 관계가 없는 업무만 맡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대 의 견.</p>



거래소	케이티	20250331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총 3명) - 후보 김성철	기타	353,676	0.14	353,676			전성익건. 후보자는 기업, 정부 경험에 많은 리스크/규제 분야 전문가로서 ICT 산업의 시장 변화, 통신 사업 전략, 정부 규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실증적 연구를 수행해왔음, 국내외 정부와 업계에 ICT 비즈니스 생태계 변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관한 높은 이해도를 보유. 2023년 6월부터는 KT 사외이사로 활동하며 KT의 혁신과 전략적 방향 설정에 기여. 후보자는 앞으로도 회사의 전략 방향 수립과 리스크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거래소	케이티	20250331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총 3명) - 후보 이승훈	기타	353,676	0.14	353,676			전성익건. 후보자는 UBS, JP모건 한국 리저치센터장을 역임하며 南SK의 M&A총괄 부장장을 역임하고 그룹의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을 주도하며 성과를 인정받은 재무 전문가. 2023년 6월부터 KT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활동하며, 금융시장 분석,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KT의 투자 타당성, 재무관리의 사업 포트폴리오 개선 등 다양한 활동들 통해 임가동한 KT의 리스크 관리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
거래소	케이티	20250331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총 3명) - 후보 김용현	기타	353,676	0.14		353,676		반대의견. 후보자는 대전지방법정장, 광주고등법원장 등을 역임한 법륜 전문가. 또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사회 헌법재판소연합 사무총장 등을 역임하며 조직운영과 이해관계 조정에도 역량을 검증받았으나 상법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으로써의 관계가 끝난지 2년이 지난 후에 사외이사로 선임될 수 있음. 후보자는 KT의 법무법인인 대륙아주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KT와 관계가 없는 업무만 맡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대의견.
거래소	케이티	20250331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353,676	0.14	353,676			전성익건. 이사 보수한도의 인상을 제안하고 있지 않으며 실질급된 보수총액은 24억원 가량으로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지 않음.
거래소	동아쏘시오홀딩스	20250331	결산 및 배당	제7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기타	102,044	1.607	102,044			전성익건. 최근 3년간 현금배당액 총액 주의를 보면 2022년 93.7억원에서 2023년 137.5억원, 2024년 106.2억원을 지급하였음. 현금 배당은 감소하였으나 2024~2026년까지 현금 배당 최소 1000억 및 주식배당 3%를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현금 배당이 아닌 점은 아쉬우나, 주주를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여 찬성함.
거래소	동아쏘시오홀딩스	20250331	결산 및 배당	자본준비금 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의 건	기타	102,044	1.607	102,044			전성익건. 주주환원 증대 및 현금흐름 개선을 위한 비과세 배당(감액배당) 재원 확보를 위한 자본준비금 변환으로 상법 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에 의거 최대감액가능금액인 2,539억원 중 1,000억원을 감액. 77기에 적용될 수는 없으나 다음해부터 주주환원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
거래소	동아쏘시오홀딩스	20250331	정관변경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배당 기준일 조정)	기타	102,044	1.607	102,044			전성익건. 분기배당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정비로 이사회 결의를 통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음을 정관에 추가. 주주가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점과 변경으로 판단.
거래소	동아쏘시오홀딩스	2025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후보 이현민	기타	102,044	1.607	102,044			전성익건. 후보자는 현재 동사의 경영기획실장으로 계열사인 에스티팜원 경영관리본부장을 역임하면서 mRNA CDMO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적자구조를 해소하는 등 기업가치제고에 크게 기여. 그룹 재정 및 기획 관리를 담당하며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탁월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거래소	동아쏘시오홀딩스	2025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후보 권세원	기타	102,044	1.607	102,044			전성익건. 후보자는 공인회계사 및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 팀장을 역임한 경영 전문가.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적합하다는 판단.
거래소	동아쏘시오홀딩스	2025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의 건 - 사외이사 후보 정연석	기타	102,044	1.607	102,044			전성익건.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로 풍부한 이론과 경험을 겸비한 약학 전문가. 회사의 주력 사업분야인 제약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향후 회사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로서 적절하다고 판단.
거래소	동아쏘시오홀딩스	20250331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후보 권세원)	기타	102,044	1.607	102,044			전성익건. 후보자는 공인회계사 및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기획재정부 공기업 경영평가 팀장을 역임한 경영 전문가.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사외이사 후보로 적합하다는 판단.
거래소	동아쏘시오홀딩스	20250331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102,044	1.607	102,044			전성익건. 이사보수한도 20억원 중 실질급액은 14.3억원이었음. 이사보수한도의 인상을 제안하고 있지 않으며 업계 수준에서 약간 높다고 볼 수 있으나 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코스닥	뷰웍스	20250331	결산 및 배당	제26기(2024.1.1~2024.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기타	128,822	1.288	128,822			전성익건. 매출액은 2,229억원으로 전년 2,203억원대비 1.2% 상승했으나 수익성의 큰 개선으로 영업이익에서 222억원으로 전년 187억 대비 18.6%의 성장을 보임. 이에 따라 주당배당금이 600원으로 전년 350원에서 인상되었으며 배당성향이 26.9%로 전년 23.7%에서 올라감이 확인. 또한 당사는 25만 1865주(결의일 전일 증가 기준 52억6000만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의하며 주주환원에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
코스닥	뷰웍스	20250331	결산 및 배당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현금배당 주당 600원)	기타	128,822	1.288	128,822			전성익건. 매출액은 2,229억원으로 전년 2,203억원대비 1.2% 상승했으나 수익성의 큰 개선으로 영업이익에서 222억원으로 전년 187억 대비 18.6%의 성장을 보임. 이에 따라 주당배당금이 600원으로 전년 350원에서 인상되었으며 배당성향이 26.9%로 전년 23.7%에서 올라감이 확인. 또한 당사는 25만 1865주(결의일 전일 증가 기준 52억6000만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의하며 주주환원에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판단.
코스닥	뷰웍스	2025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 - 사내이사 장현석 재선임	기타	128,822	1.288	128,822			전성익건. 후보자는 99년부터 뷰웍스의 전략사업그룹장을 역임하며 연구본부장으로서 공학 지식을 바탕으로 의료용이미징솔루션 및 산업용이미징솔루션에서 회사가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 후보자는 전문 지식과 회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회사의 핵심 역량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자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
코스닥	뷰웍스	2025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 - 사외이사 최우진 재선임	기타	128,822	1.288	128,822			전성익건. 후보자는 회사 및 최대주주와 거래관계 등이 없는 독립된 위치에 있으며 현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의 교수와 한국과학기술원 이사로 제임중인 경영학 전문가. 당사 이사회 내에서 마케팅 및 경영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보완하고, 겸직하는 시장 환경에서 기업의 브랜드 가치 제고, 경영 전략 수립에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
코스닥	뷰웍스	2025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이사 선임 - 사외이사 최은영 신규선임	기타	128,822	1.288	128,822			전성익건. 후보자는 회사 및 최대주주와 거래관계 등이 없는 독립된 위치에 있으며 HSBC 은행과 기획재정부에서 금융투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M&A, ESG경영 및 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또한 글로벌 환경에너지 산업의 전략적 투자와 재무적 의사결정을 주도한 경험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경영 환경에서의 대응력을 높이고, 재무 및 경영의 감시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
코스닥	뷰웍스	20250331	임원보수	이사 보수액 한도 승인	기타	128,822	1.288	128,822			전성익건. 이사 보수한도의 인상을 제안하고 있지 않으며 이사회의 크기를 볼때에 충분한 수준으로 판단됨.
코스닥	뷰웍스	20250331	임원보수	감사 보수액 한도 승인	기타	128,822	1.288	128,822			전성익건. 전년 대비 동일한 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비슷한 규모의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이사회의 보수가 다소 높아보이는 점은 있습니다. 최대주주인 대륙아주가 R&D와 영업을 이끌고 있기에 그에 맞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의 보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코스닥	에스에프에이	20250331	결산 및 배당	제27기 재무제표(연결/별도) 승인의 건	기타	529,817	1.475		529,817		반대의견. 감사보고서 제출(2025년 3월 18일)  경영 실적에 악화된 가운데 이사에 대한 연당 보수액은 14.9% 증가 했지만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은 -6.7% 감소했다는 측면에서 경영성과와 주주환원, 이사 보수 책정 방식에 대한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한 정책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기 때문  - 제27기 보통주 1주당 배당금은 중간 배당 270원, 기말 배당 0원으로 연 합산 현금 배당금 270원으로 제26기 보통주 1주당 연간 배당금 280원 (연간 배당 성향 19.7%) 대비 10원 감소함.  - 동기간 에스에프에이의 연결 실적은 매출액 20, 454억 원으로 YoY 9.9% 증가하였으나, 영업손익은 이전처럼 관련 고객사의 파산에 의한 매출 채권 손상차손 인식 등의 영향으로 약 1,373억원 감소한 484억 원의 적자를 기록함. 지배기업 순손익은 약 1126억 원이 감소한 726억 원의 적자를 실현  - 제4호 의안인 이사 보수와 관련된 내용을 불러 보아도 제1안에 반대 의견. 제27기 이사의 수 5인 기준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은 39.1억 원이며 연 당 보수 총액은 7.8억 원으로 전기 6.8억 원 대비 14.9% 증가함. 동사의 순이익이 1000억 원 이상 감소한 가운데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은 39.1억 원
코스닥	에스에프에이	2025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원진 선임의 건	기타	529,817	1.475		529,817		사내이사 후보 원진은 에스에프에이의 최대 주주인 디아이홀딩스(에스에프에이 지분 40.98%) 대표이사(디아이홀딩스 지분 100% 보유, 에스에프에이 지분 0.03% 보유)이자 에스에프에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  원진 후보는 사실상 최대 주주로서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으로 보임.  제1호 의안과 제4호 의안에서 언급했듯, 에스에프에이는 경영 악화 및 실적 감소에 대한 책임을 이사진들이 지지 않고 있으면서도 주주환원은 축소하는 등 기가치 지 제고에 대한 노력이 미흡함.  이에 사실상 최대주주이자 2010년부터 에스에프에이의 부회장이자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원진 후보에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동의하고 반대 의견

코스닥	에스에프에이	2025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김영민 선임의 건	기타	529,817	1.475	529,817			<p>한성의견</p> <p>사내이사 후보 김영민은 2013년부터 에스에프에이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음. 에스에프에이의 경영 실적 악화는 산업 사이클상 일부 불가피한 부분이 있음. LCD-&gt; OLED로의 전환과 OLED 투자 사이클을 일몰에 따라 신사업으로 추가된 이차전자 장비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 대비 변동성이 큰 상황.</p> <p>문제는 경영 실적 하향 조정 및 악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사들의 보수는 여전히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주주환원만 축소되고 있다는 점</p> <p>김영민 후보는 기존 이사회 구성원이자 대표이사이기에 경영 전반 및 미흡한 주주환원책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이 같은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인 김영민 후보의 재선출에 반대할 시 경영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김영민 후보에 대한 선임 건은 찬성함</p> <p>* 참고: 앞선 제2-1호 의안에서 에스에프에이의 최대 주주인 디와이홀딩스(에스에프에이 지분 49.98%) 대표이사(디와이홀딩스 지분 100% 보유, 에스에프에이 지분 0.03% 보유)이자 에스에프에이 사내이사 원진 후보 선임에는 반대 의견</p> <p>찬성의견</p> <p>2012년부터 현재까지 건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경영 관리 관련 연구 실적과 경험을 토대로 에스에프에이 경영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보임. 이력 상 특이 사항 및 결격 사유 없음</p> <p>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재무회계 전문가. 원가관리 및 수익성/효율성/생산성 분석 등의 주요 연구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에스에프에이와의 독립적인 위치에서 사외이사로서 에스에프에이 경영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기에 이력 상 특이 사항 및 결격 사유 없음</p> <p>반대의견, 두루 이익에 반하는 의사 결정.</p>
코스닥	에스에프에이	2025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유상열 선임의 건	기타	529,817	1.475	529,817			<p>2012년부터 현재까지 건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경영 관리 관련 연구 실적과 경험을 토대로 에스에프에이 경영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으로 보임. 이력 상 특이 사항 및 결격 사유 없음</p> <p>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재무회계 전문가. 원가관리 및 수익성/효율성/생산성 분석 등의 주요 연구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에스에프에이와의 독립적인 위치에서 사외이사로서 에스에프에이 경영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리기에 이력 상 특이 사항 및 결격 사유 없음</p> <p>반대의견, 두루 이익에 반하는 의사 결정.</p>
코스닥	에스에프에이	20250331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위원회 위원 유상열 선임의 건	기타	529,817	1.475	529,817			<p>이사의 수 및 보수 한도는 전기와 동일하나 1) 실제 지급된 인당 보수 금액이 실적과 연동되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2) 이사 5인 기준 연 80억 원 인 총보수 한도가 산업 평균 수준과 비교하여 과도한 측면이 있음. 3) BAMB는 동 보수 한도액 승인에 대해 제26기 정기 주총 의결 당시에도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데 회사의 경영 환경이 전기와 비교하여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사 1인당 보수 한도 인상 결정에 대한 명분도 불확실하다는 점이 변하지 않았음.</p> <p>1) 제27기 이사 5인에 대해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 39.06억 원은 제 26기 이사 6인에 대해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 40.78억 원 대비 감소하였으나 인당 보수 금액은 6.8억 원에서 7.8억 원으로 15% 증가하였음. 동기간 에스에프에이 지배주주 순이익이 약 1126억 원 감소하며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서는 등 경영이 악화하였음에도 이사 1인당 보수 지급액이 증가한 것은 불합리.</p> <p>동기간 주주에게 환원될 주당 배당금은 6.7% 감소한 것과 비교하여도 불합리한 결정임</p> <p>2) 동종 IT/HW 장비 및 유사 전반 산업을 가진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에스에프에이의 인당 이사 보수 한도 총액은 산업 평균 대비 과도한 수준.</p> <p>실제 인당 지급액 규모도 산업 평균 대비 높은 측에 속함</p> <p>3) 이사 보수 한도가 산업 평균 대비 높고 실제 보수 지급액과 영업 성과와의 연동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이사 보수 체계에 대한 설명을 주주들에게 해줘야 할 것으로 보임. 지난 주총 당시와 개선된 점이 없다는 측면에서 반대 의견</p> <p>(** 참고: 지난 BAMB 이사 보수 한도 인상 반대 의견)</p> <p>이사 보수한도는 전기 대비 10억 원 감소한 80억 원이나 당기 이사의 수가 5인이므로, 전기 6인 대비 1인이 감소한 상황. 때문에 1인당 보수총액 및 최고 한도액은 1억 원 증가하는 꼴.</p> <p>제26기 이사의 수 6인 기준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40.78억 원임. 이는 제25기 이사의 수 6인 기준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 46.14억 원 대비 11.6% 감소한 것. 동사의 순이익은 55.06% 감소한 것에 비해 이사에게 지급된 보수 총액은 -11.6% 감소한 것에 그쳤으며, 주주에게 환원되는 배당금은 -67.8%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이사의 보수 책정이 기업의 실적 대비 과도한 것으로 판단</p> <p>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 책정에 의해서 수인 대비 과도한 보수 지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외이라는 화제에서 이사 1인당 보수 인상 의견</p>
코스닥	에스에프에이	20250331	임원보수	임원퇴직금지규정 일부 변경의 건	기타	529,817	1.475	529,817			<p>임원 직급 체계 개편에 따라 임원 퇴직금 지급 기준율을 일부 변경한 안건. 기존 이사 이하 직급에 대해서는 지급기준율이 낮아졌음. 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내용 없음</p>
코스닥	피에스케이	20250331	결산 및 배당	제6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현금배당 주당 400원)	기타	318,229	1.099	318,229			<p>찬성의견. 24년 매출액 3,981억원(VoY 13.1%), 영업이익액 860억원(VoY 58.9%) 기록. 부진했던 메모리 업황에도 불구하고, 특히 고객사들의 제품확대, 해외 매출 비중도 80% 수준으로 증가. 신규장비인 베벨에이지의 매출 비중도 10% 수준까지 상승. 25년 하반기 가동률 상승을 예상. 베벨에이지의 비중 성장, 신규장비에 대한 언급이 연일에는 가능할 것으로 추정.</p> <p>24년 DPS는 400원으로 23년 DPS 200원 대비 상승. 24년도 실적에 23년대비 수익성이 상승하였고, 그에 따른 DPS 상승은 합리적으로 판단. 배당 성장 164%로 전년 대비 상승임이고 배당수익률은 2.4%로 신장에 따라 확대된 주주지위정책으로 인과하여 주주를 보충했다고 판단</p> <p>찬성의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박사이후 19년부터 현재까지 피에스케이 대표이사로 재직. 대표이사로 경영전반을 관리하며 성장과 경영전략에 있어 합리적인 결정을 하였으며 경영전반을 관리하며 경쟁력을 강화시켰다고 판단. 반도체업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성장 전략 수립 및 핵심 경쟁력 기반의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 이사회 중요의결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출석률 100%를 기록. 결격사유 없음</p> <p>후보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경영학 석사 이후 90년부터 현재까지 피에스케이 사내이사로 재직중. 사내이사로서 경영전반을 관리하며 반도체업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적인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성장 전략 수립 및 핵심 경쟁력 기반의 사업 추진 등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사내이사 적임자로 판단. 이사회 중요의결사항을 결정하는 회의 출석률 100%를 기록. 결격사유 없음.</p>
코스닥	피에스케이	2025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내이사 이경일 선임의 건	기타	318,229	1.099	318,229			<p>찬성의견. 후보자는 서울대학교(원) 산업공학과 박사이후 24년부터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부교수로 재직중. 산업공학 AI분야의 세계적인 지식 및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며, 정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조언을 통해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책임자로 판단</p>
코스닥	피에스케이	20250331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사외이사 강팔성 선임의 건	기타	318,229	1.099	318,229			<p>찬성의견.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교 마케팅 석사 이후 19년부터 현재까지 피에스케이 감사로 재직.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유용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경영진을 견제, 지원할 전문가로 판단.</p>
코스닥	피에스케이	20250331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감사 이성재 선임의 건	기타	318,229	1.099	318,229			<p>감사는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직무수행이 가능하며, 객관적이고 유용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을 것.</p>
코스닥	피에스케이	20250331	임원보수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318,229	1.099	318,229			<p>찬성의견. 제24년 이사보수총액은 이사의 수가 사내이사 5명, 사외이사 2명(24년 3월말 임기 만료된 사외이사 1명포함)으로 전년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대비 상승하였지만, 전년대비 소폭 감소. 지급된 보수총액은 966백만원으로 한도에 미치지못하는 수준으로 시장평균 수준으로 판단.</p>
코스닥	피에스케이	20250331	임원보수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기타	318,229	1.099	318,229			<p>찬성의견. 제24년 감사보수총액은 전년지급액과 동일한 36백만원. 감사 수도 동일. 지급된 보수총액은 36백만원으로 한도에 미치지 못하였음. 제24년 감사보수총액은 시장평균 수준으로 적절하다고 판단</p>